기암성

L’Aiguille creus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09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iguille creuse » (1909)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iguille creus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레이몽드는 귀를 기울였다.

다시, 그것도 두 번이나 소리가 들렸다. 밤의 고요를 이루던 수많은 어렴풋한 소리들 사이에서 또렷이 구분될 만큼 분명한 소리였다. 하지만 너무도 약해서, 그것이 가까이서 나는지 멀리서 나는지, 드넓은 성채의 벽 안에서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공원 속 으슥한 곳에서 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천천히 그녀는 일어섰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녀는 창의 두 짝을 더 벌렸다. 달빛이 잔디밭과 수풀의 잔잔한 풍경을 비추고 있었고, 그 사이로 옛 수도원의 흩어진 잔해들이 비극적인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다. 잘려 나간 기둥들, 불완전한 첨두 아치들, 윤곽만 남은 주랑 현관, 그리고 부벽의 찢긴 조각들.

약한 바람이 사물들의 표면 위를 떠돌며, 벌거벗은 채 미동도 없는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났지만, 덤불의 작은 새싹들만은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왼쪽, 그녀가 사는 층 아래에서 났다. 즉, 성의 서쪽 별관을 차지하고 있는 거실들에서 나는 소리였다.

용감하고 강인한 처녀였지만, 그녀는 공포의 불안을 느꼈다. 그녀는 잠옷을 걸치고 성냥을 집어 들었다.

"레이몽드…… 레이몽드……"

옆방에서 숨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그 방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더듬어 그 방으로 가려는데, 사촌 수잔이 방에서 나와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레이몽드…… 너야?…… 들었어?……"

"응…… 너 안 자고 있었어?"

"개가 깨운 것 같아…… 한참 전에. 그런데 이제 짖지 않네. 지금 몇 시쯤일까?"

"네 시쯤 됐어."

"들어 봐. 거실에서 누가 걷는 소리가 나."

"걱정 마, 수잔.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 작은 거실 옆에서 주무시거든."

"다발 씨도 거기 계셔."

"성 반대편 끝이잖아…… 어떻게 듣겠어?"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부를까? 도와달라 소리칠까? 하지만 자기들 목소리 소리마저 무섭게 느껴져서, 두 사람은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때 창가로 다가갔던 수잔이 비명을 삼켰다.

"봐…… 분수 옆에 남자가 있어."

정말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팔 아래에 꽤 큰 물건을 끼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리에 부딪혀 흔들리는 그 물건이 그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남자가 옛 예배당 옆을 지나 벽에 뚫린 작은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 문은 열려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남자가 순식간에 사라진 데다, 경첩이 늘 내던 삐걱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롱에서 나온 거야." 수잔이 속삭였다.

"아니야. 계단이나 현관을 통했다면 훨씬 왼쪽으로 갔을 텐데…… 혹시……"

같은 생각이 두 사람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몸을 굽혀 내다보았다. 그들 아래로 사다리 하나가 벽에 기대어 1층까지 닿아 있었다. 희미한 빛이 돌로 된 발코니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무언가를 든

또 다른 남자가 그 발코니를 넘어 사다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같은 길로 달아났다.

수잔은 공포에 질려 힘없이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말했다.

"사람을 부르자!…… 도와달라고 부르자!……"

"누가 오겠어? 네 아버지뿐인데…… 다른 남자들이 또 있어서 그분께 덤벼들면 어떡해?"

"하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 네 초인종을 누르면 하인들 층과 연결되잖아."

"그래…… 그래, 어쩌면. 좋은 생각이야…… 제때 와 주기만 한다면!"

레이몽드는 침대 옆에서 전기 벨을 찾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위층에서 종이 울렸고, 두 사람은 아래층에서도 그 또렷한 소리가 들렸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기다렸다. 침묵은 갈수록 무서워졌고, 미풍조차 더는 관목의 잎을 흔들지 않았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수잔이 거듭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깊은 밤, 그들 아래에서 격투 소리가 났다. 가구가 나뒹구는 굉음, 외침 소리, 그리고 끔찍하고 불길하게도, 목이 베이는 자의 단말마 같은 거친 신음이 들렸다.

레이몽드가 문 쪽으로 뛰었다. 수잔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나 두고 가지 마. 무서워."

레이몽드는 그를 밀쳐내고 복도로 뛰쳐나갔고, 곧이어 비명을 지르며 이 벽 저 벽에 부딪혀 비틀거리던 수잔이 뒤따랐다. 그녀는 계단에 다다라 한 계단 한 계단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가, 거실의 큰 문으로 달려들었다가 문턱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다. 수잔은 그 곁에서 풀썩 주저앉았다. 그들 정면 세 발짝 앞에 한 남자가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한 동작으로 등불을 두 처녀에게 향해 눈이 부시게 하고는, 그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침착한 동작으로 모자를 집어 들고, 종이 한 조각과 짚 두 오라기를 주워 카펫 위의 자국을 지웠다. 그러고는 발코니로 다가가 처녀들 쪽으로 돌아서더니, 깊이 절을 하고는 사라졌다.

수잔이 제일 먼저 큰 거실과 아버지의 침실 사이에 있는 작은 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광경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비스듬히 비치는 달빛에, 바닥에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아빠!…… 아빠!…… 아빠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중 한 사람 위로 몸을 굽힌 채 정신없이 소리쳤다.

잠시 후 게브르 백작이 몸을 움직였다. 그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난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다발은? 살아 있느냐? 칼은?…… 칼은?……"

그때 하인 둘이 촛불을 들고 도착했다. 레이몽드는 다른 한 사람 앞으로 몸을 던졌고, 그가 백작의 비서이자 신임받는 측근인 장 다발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무기 진열 가운데에서 장전돼 있는 줄 아는 총 한 자루를 집어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 남자가 사다리의 첫 번째 가로대에 발을 디딘 지 기껏해야 오십에서 육십 초밖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무도 못 쓰게 사다리를 치워 두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으니, 이 근처에서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였다.

과연 곧 그녀는 그가 옛 회랑의 잔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차분히 겨눈 뒤 방아쇠를 당겼다. 남자가 쓰러졌다.

"맞혔다! 맞혔어!" 하인 하나가 외쳤다. "저자 잡았어. 내가 가지."

"아니, 빅토르, 저자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 계단을 내려가서 작은 문으로 달려가. 저자는 거기로밖에 못 빠져나가."

빅토르가 서둘렀다. 하지만 그가 정원에 채 이르기도 전에, 그 남자는 다시 쓰러져 있었다. 레이몽드는 다른 하인을 불렀다.

"알베르, 저기 보여? 큰 아치 옆에?……"

"네, 풀밭을 기어가고 있어요…… 저자는 끝장났어요……"

"여기서 계속 지켜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폐허 오른쪽은 탁 트인 잔디밭이라……"

"그리고 빅토르가 왼쪽 문을 지키고 있어." 그녀가 다시 소총을 쥐며 말했다.

"가지 마세요, 아가씨!"

"아니,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작은 딱딱하게 끊겼다. "나한테 탄환이 하나 남았어…… 저자가 움직이면……"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알베르는 창문 너머로 그녀가 폐허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창에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가 아치 뒤로 기어갔어요. 더는 안 보여요…… 조심하세요, 아가씨!"

레이몽드는 남자의 퇴로를 모두 차단하려고 옛 회랑을 한 바퀴 돌았고, 곧 알베르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나도 그녀가 다시 보이지 않자 알베르는 불안해졌다. 그는 폐허를 주시하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대신 사다리에 닿으려 애썼

다. 그렇게 사다리에 다다른 그는 재빨리 내려가, 남자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아치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거기서 서른 걸음쯤 더 간 곳에서, 그는 빅토르를 찾고 있던 레이몽드와 마주쳤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다.

"도무지 잡을 수가 없네." 빅토르가 말했다.

"작은 문은?"

"방금 거기서 오는 길이야…… 열쇠가 여기 있어."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아, 저자는 독 안에 든 쥐야…… 십 분 안에 저 악당은 우리 손에 들어와."

총소리에 잠이 깬 농부와 그의 아들이 농장에서 달려왔다. 농장 건물은 오른쪽으로 꽤 떨어져 있었지만 성벽 안에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럼, 못 만났겠지." 알베르가 말했다. "그 악당이 폐허를 빠져나갔을 리 없어…… 어느 구멍 속에서든 찾아내고 말 거야."

그들은 체계적으로 수색에 나서, 덤불 하나하나를 뒤지고 기둥 둘레에 감긴 무거운 담쟁이덩굴을 헤쳤다. 예배당이 단단히 잠겨 있고 스테

인드글라스 중 깨진 것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회랑을 돌아 구석구석 살폈다. 수색은 헛수고였다.

유일한 발견은, 레이몽드가 쏜 총에 맞아 남자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수용 황갈색 가죽 모자 하나를 주운 것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 여섯 시, 우빌라리비에르 헌병대는 이미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출동에 앞서 디에프 검찰청에는 범죄 정황과 주범의 임박한 검거 소식, 그리고 '범인의 모자와 범행에 쓰인 단도'가 발견되었다는 짧은 보고서를 특사 편에 보냈다.

열 시가 되자 자동차 두 대가 성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비탈길을 내려왔다.

한 대는 오래된 사륜마차로, 검사 대리와 예심판사, 그리고 그 서기가 타고 있었다.

다른 한 대는 소박한 이륜마차(캐브리올레)로, 루앙의 한 신문과 파리의 대형 일간지를 대표하는 두 젊은 기자가 타고 있었다.

낡은 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암브뤼메지 수도원장들의 거처였으나 혁명기에 훼손되었고, 20년 전부터 이 성을 소유한 제브르 백작에 의해 복원되었다. 성은 중앙 본채와 양쪽 날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채 위에는 시계가 달린 첨탑이 우뚝 솟아 있고, 양 날개에는 저마다 돌 난간이 딸린 계단이 둘러 있다.

정원 담장 너머, 노르망디의 높은 절벽이 떠받친 고지대 너머로, 생트마르그리트 마을과 바랑빌 마을 사이로 푸른 바다의 선이 보인다.

제브르 백작은 딸 수잔, 그리고 조카 레이몽드 드 생베랑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수잔은 금발의 가녀린 미인이었고, 레이몽드는 두 해 전 부모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자 백작이 거두어들인 아이였다.

성에서는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이어졌다. 가끔 이웃들이 들르기도 했다.

여름이 되면 백작은 두 아가씨를 거의 매일 디에프로 데려갔다. 백작은 키가 크고 근엄하면서도 잘생긴 얼굴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다. 막대한 재산을 지녔으면서도 직접 그것을 관리했고, 비서 장 다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영지를 손수 돌보았다.

예심판사는 들어서자마자 헌병대의 퀘비용 분대장에게서 첫 보고를 받았다. 범인은 곧 붙잡힐 듯했지만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고, 다만 정원의 모든 출구는 이미 봉쇄되어 있었다. 도주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1층에 있는 참사회실과 식당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곧바로 거실의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구 하나, 장식품 하나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없었고, 그것들 사이에 빠진 것도 없었다.

좌우 벽에는 인물이 그려진 화려한 플랑드르산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안쪽 벽판에는 당대의 액자에 담긴 네 점의 아름다운 유화가 걸려 있었는데, 신화 속 장면을 묘사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백작의 외삼촌이자 스페인 대귀족이던 보다디야 후작이 플랑드르산 태피스트리와 함께 제브르 백작에게 물려준, 루벤스의 그 유명한 그림들이었다.

예심판사 피외유 씨가 말했다.

"도둑질이 범행의 동기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거실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대리 검사가 말했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늘 판사의 의견과 반대로 말하곤 했다.

"이보세요, 선생. 도둑이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태피스트리와 그림들을 옮기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겨를이 없었겠지요."

"그건 곧 알게 되겠지요."

그때 제브르 백작이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백작은 자신이 당한 습격의 후유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 두 사법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작은 내실의 문을 열었다.

살인 사건 이후 의사 말고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이 방은, 거실과는 달리 몹시 어질러져 있었다. 의자 두 개가 넘어졌고, 탁자 하나는 부서졌으며, 여행용 탁상시계와 서류함, 편지지 상자 등 여러 물건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흩어진 하얀 종이 몇 장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의사가 시신을 덮고 있던 시트를 걷어냈다. 장 다발은 평소 입던 벨벳 옷차림에 징을 박은 구두를 신은 채, 한 팔을 몸 아래로 접어 넣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셔츠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가슴을 꿰뚫은 큰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즉사했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칼 한 번이면 충분했죠."

"아마 거실 벽난로 위, 가죽 모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칼이겠죠?" 판사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제브르 백작이 단언했다. "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웠습니다. 제 조카 생베랑 양이 총을 집어 든, 거실 벽의 무기 걸이에 걸려 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 운전사 모자는 분명 살인자의 것입니다."

피외유 씨는 방 안의 몇몇 세부를 다시 살핀 뒤 의사에게 몇 가지를 묻고, 제브르 백작에게 자신이 보고 아는 바를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다. 백작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장 다발이 저를 깨웠습니다. 사실 저는 잘 자지 못했어요. 잠결에 누군가 발소리를 듣는 것 같은, 희미한 각성 상태가 되곤 했죠. 그러다

문득 눈을 뜨니, 저의 침대 옆에 장 다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촛대를 들고, 옷도 그대로 차려입은 채였죠. 지금도 그렇듯,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소리가 들렸죠. 저는 벌떡 일어나, 조용히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큰 거실로 이어지는 다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덤벼들더니, 관자놀이 한 방에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판사님,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요 사실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벌어졌거든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발이 쓰러져 죽어 있었죠."

"언뜻 보아, 의심 가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다발 씨도 적이 없었습니까?"

"다발이요? 적이라니요.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 다발이 제 비서로, 또 막역한 사람으로 스무 해를 함께했지만, 그의 주위에서 본 것은 호감과 우정뿐, 적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입이 있었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엔 분명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요? 그야 그저 도둑질이지요."

"그럼 무언가를 도둑맞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고 없어진 것도 없다면, 적어도 무언가를 가져가기는 했다는 뜻이지요."

"무엇을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딸과 조카가 분명히 말해 줄 겁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정원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고, 그 두 사람이 꽤 부피가 큰 짐을 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따님과 조카분이…"

"두 아이가 꿈이라도 꾸었느냐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을 지경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온갖 추리와 추측에 진이 다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지요."

곧 두 사촌 자매를 큰 거실로 불러들였다. 수잔은 얼굴이 창백하고 아직도 떨고 있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반면 레이몽드는 더 강단 있고 다부졌으며, 갈색 눈에서 빛나는 금빛 광채 덕분에 한층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간밤에 일어난 일과 자신이 거기서 한 역할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가씨, 당신의 증언은 단정적이라는 말이지요?"

"확실합니다. 정원을 지나던 두 남자는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요?"

"그자는 빈손으로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자의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자는 등불 빛으로 줄곧 우리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기껏해야 키가 크고 육중해 보였다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당신에게도 그렇게 보였습니까, 수잔 양?" 판사가 수잔 드 제브르에게 물었다.

"네… 아니, 아니에요…" 수잔이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제 눈에는 중간 키에 마른 체격으로 보였어요."

피외유 씨는 같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 사이에서도 의견과 시각이 갈리는 일에 익숙했기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이 방에 있는 인물 한 명입니다. 이 남자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뚱뚱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원 쪽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방에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비난받고 있지만, 그 물건들은 아직 이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피유 주사는 스스로를 '풍자파' 판사라고 일컬을 만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군중과 주목받는 기회를 즐기기도 했다. 방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기자들 외에도 농부와 그의 아들, 정원사와 그의 아내, 성의 직원들, 그리고 디에프에서 마차를 몰고 온 두 운전수까지 모두 모여들었다.

피유 주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의견을 모아야겠군요. 아가씨, 당신은 이 총으로 이 창문에서 쏘았습니까?"

"네, 그 남자는 회랑 왼쪽, 가시덤불에 거의 파묻힌 묘비 근처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섰다는 말씀이죠?"

"반쯤만요. 비크토르가 곧바로 내려가 작은 문을 지켰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인 알베르를 여기 남겨 망을 보게 했어요."

이번에는 알베르가 진술했고, 판사가 결론지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부상자는 왼쪽으로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그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비교적 좁은 공간 안에 있는 셈입니다."

"제 확신입니다."

"당신 생각도 그렇습니까, 아가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빅토르가 말했다.

보좌 검사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외쳤다.

"수사 범위가 좁습니다. 네 시간 전부터 시작한 수사를 계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더 운이 따를지도 모르죠."

피유 씨는 벽난로 위에 놓인 가죽 모자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헌병 분대장을 불러 따로 말했다.

"분대장, 당장 부하 한 명을 디에프의 모자 장수 마그레에게 보내시오. 바르 거리에 있는 가게요. 마그레 씨에게 이 모자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가능하면 알려 달라고 하시오."

보좌검사의 말대로라면, 수사 범위는 성과 오른쪽 잔디밭, 그리고 왼쪽 담과 성 맞은편 담이 이루는 모서리 사이로 한정되었다.

대략 한 변이 백 미터쯤 되는 사각형이었다.

그 안에는 중세에 이름 높았던 암브르메지 수도원의 폐허가 여기저기 솟아 있었다.

짓밟힌 풀밭에서 곧바로 도망자가 지나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곳에서는 검게 변하고 거의 말라붙은 핏자국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회랑 끝을 표시하는 아치형 통로의 모퉁이를 지나자 더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솔잎이 깔린 땅이라 사람 몸이 지나간 자국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상자는 어떻게 아가씨와 빅토르, 알베르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인들과 헌병들이 몇 번이고 뒤진 덤불 몇 곳, 그리고 아래까지 살펴본 묘비 몇 개, 그것이 전부였다.

예심판사는 정원사에게 부탁해 샤펠디외의 문을 열게 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정원사였기 때문이다.

샤펠디외는 시간과 여러 차례의 혁명에도 온전히 보존된, 조각의 진정한 보석이었다.

정교하게 새긴 현관과 자잘한 조각상들로 가득한 이곳은 노르망디 고딕 양식의 걸작 중 하나로 늘 꼽히던 곳이었다.

안쪽은 매우 소박해서 대리석 제단 외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몸을 숨길 곳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숨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했을 텐데, 대체 무슨 수로 들어간단 말인가?

수색은 폐허를 찾는 방문객들이 드나들던 작은 문에서 끝났다. 그 문은 성벽과 잡목림 사이에 끼인 우묵한 길로 통했는데, 잡목림에는 버려진 채석장이 보였다. 피유 씨가 몸을 굽혀 보니 길바닥 먼지에 미끄럼 방지 띠가 달린 타이어 자국이 찍혀 있었다. 실제로 레이몽드와 빅토르는 총성이 울린 뒤 자동차가 헐떡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예심판사가 넌지시 말했다.

"부상자가 공범들과 합류했겠군요."

"말도 안 돼요!" 빅토르가 소리쳤다. "아가씨와 알베르가 아직 그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자는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밖이든 안이든,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그는 여기 있어요." 하인들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판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꽤 침울한 표정으로 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래도 사건이 처음부터 꼬이는 듯했다.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은 도둑질, 보이지 않는 죄수라니, 기뻐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늦었다. 드 게브르 씨는 판사 두 사람과 기자 두 명에게 점심을 청했다. 모두 말없이 식사를 했고, 그 뒤 피유 씨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가 하인들을 심문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곧 디에프로 보냈던 헌병이 들어왔다.

"그래, 모자 장수를 만났나?" 판사가 드디어 단서를 얻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외쳤다.

"마그레 씨를 만났습니다. 모자는 어느 마부에게 팔렸더군요."

"마부라니!"

"네, 마부 한 명이 마차를 가게 앞에 세우고는, 손님 한 분에게 줄 노란 가죽 운전모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마침 그거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는 치수도 따지지 않고 값을 치르고는 떠났습니다. 몹시 서두르더랍니다."

"어떤 마차였나?"

"사륜 포장마차였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지?"

"언제냐고요? 바로 오늘 아침, 여덟 시였습니다."

"오늘 아침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모자는 오늘 아침에 팔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그 모자는 어젯밤 공원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러려면 모자가 이미 거기 있었어야 하고, 따라서 그전에 샀어야 하지 않나."

"오늘 아침이 맞습니다. 모자 장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잠시 모두 어리둥절했다. 예심판사는 깜짝 놀라 사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에 사로잡혀 몸을 일으켰다.

"오늘 아침 우리를 태워 온 마부, 그 사륜마차 마부를 데려와! 어서 데려오라고!"

헌병 분대장과 그 부하가 서둘러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몇 분 뒤 분대장 혼자 돌아왔다.

"마부는?"

"부엌에서 밥을 차려 달라고 해 점심을 먹더니……."

"먹더니?"

"달아났습니다."

"마차를 가지고?"

"아닙니다. 우빌에 사는 친척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마구간지기의 자전거를 빌려 갔습니다. 여기 그자의 모자와 외투가 있습니다."

"그래도 맨머리로 가진 않았을 텐데?"

"주머니에서 모자를 하나 꺼내 쓰고 갔답니다."

"모자라고?"

"네, 노란 가죽 모자였다고 합니다."

"노란 가죽이라고? 그럴 리가, 그건 여기 있잖나."

"그렇긴 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그자가 쓴 것도 똑같은 모자였답니다."

보좌 검사가 살짝 비웃었다.

"참 우습군요, 정말 재미있어요. 모자가 두 개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진짜로, 우리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가짜 마부의 머리에 얹혀 떠나 버렸고, 다른 하나는 가짜인데 지금 판사님 손에 들려 있죠. 아, 그 능청맞은 자가 우리를 제대로 골탕 먹였군요."

"잡아 와! 끌고 오라고!" 피유 씨가 외쳤다. "퀘비용 분대장, 부하 둘을 말에 태워 전속력으로 쫓게!"

"이미 멀리 갔습니다." 보좌 검사가 말했다.

"아무리 멀리 갔어도 기어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만, 예심판사님, 제 생각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곳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외투 주머니에서 찾아낸 이 종이를 읽어 보십시오!"

"무슨 외투 말이오?"

"마부의 외투입니다."

보좌 검사가 피유 씨에게 네 번 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다소 상스러운 필체로 연필로 쓴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아가씨가 주인을 죽였다면, 그녀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은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렷다. 우리도 경고를 받은 셈이군." 보좌 검사가 중얼거렸다.

"백작 각하,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도 마찬가집니다. 이 위협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법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으니까요. 모든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두 명의 기자를 향해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여러분, 두 분께는 침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려해 드린 덕분에 이 수사에 함께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배려를 저버리신다면, 그것은 내게 큰 실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두 젊은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그중 한 명에게 다가섰다.

"어느 신문 소속이십니까?"

"루앙 저널입니다."

"신분증 지니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문서는 정확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피유 씨가 다른 기자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선생?"

"네, 당신 말입니다. 어느 편집국 소속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판사님, 저는 여러 신문에 글을 씁니다…… 여기저기에요."

"신분증은요?"

"없습니다."

"아니, 어째서 없습니까?"

"신문사에서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꾸준히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그저 가끔 기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리저리 원고를 보내면 형편에 따라 실리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함은요? 서류는요?"

"제 이름을 말해 봐야 아실 게 없을 겁니다. 서류라면 가진 게 없고요."

"직업을 증명할 서류 한 장 없단 말입니까!"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판사가 다소 거칠게 외쳤다. "당신은 속임수를 써서 이곳에 들어왔고, 사법의 비밀을 엿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체를 숨기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조사가 비밀에 부

쳐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지켜봤으니까요. 심지어 범인 중 한 명도요."

그는 더없이 정중한 말투로 부드럽게 말했다. 키가 무척 크고 비쩍 마른 아주 젊은 사내로, 너무 짧은 바지에 너무 꽉 끼는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소녀처럼 발그레했고, 넓은 이마에는 짧게 세운 머리가 나 있었으며, 금빛 수염은 제대로 다듬지 않은 채였다. 두 눈은 총기로 빛났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비꼬는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호감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피유 씨는 공격적이리만큼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살폈다. 헌병 두 명이 다가섰다. 젊은 사내가 쾌활하게 외쳤다.

"판사님, 저를 공범 중 하나로 의심하시는 게 분명하군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제 동료처럼 알맞은 때에 슬쩍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길 바랐을 수도 있지……."

"어떤 희망도 부질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님.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피유 판사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장난은 이제 그만! 이름이 뭔가?"

"이지도르 보트를레입니다."

"직업은?"

"잔송드사이리 고등학교 수사반 학생입니다."

피유 판사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수사반 학생이라니…"

"라퐁프 거리에 있는 잔송 고등학교요… 번지는…"

"이봐,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장난을 더 끌면 곤란하지!"

"판사님, 오히려 그렇게 놀라시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제가 잔송 고등학교 학생이 아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수염 때문일까요? 안심하십시오, 제 수염은 가짜입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턱을 장식하던 몇 가닥의 곱슬한 수염을 잡아 뜯어냈다. 수염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한층 더 앳되고 발그레해 보였다. 영락없는 고등학생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이 같은 웃음이 그의 하얀 이를 드러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더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보세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를요. '잔송드사이리 고등학교 기숙사생 이지도르 보트를레 귀하'라고요."

믿든 안 믿든, 피유 판사는 이 이야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야… 공부하고 있죠."

"그런 건 학교에서 하면 되네. 자네 학교에서."

"판사님, 잊으셨나 본데, 오늘이 4월 23일, 한창 부활절 방학 중이잖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번 방학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자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멀리 사부아 깊은 곳에 사십니다. 그리고 망슈 해안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하신 것도 바로 아버지셨죠."

"가짜 수염을 달고서 말인가?"

"아니,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신비한 모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변장하는 범죄 소설도 읽죠. 그래서 복잡하고도 무서운 상상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재미를 붙여 가짜 수염을 달았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점이 있었죠. 파리에서 온 기자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의미 없는 일주일의 나날을 보낸 끝에 루앙의 동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앰브뤼

메시 사건을 알게 되자, 그는 친절하게도 저를 동행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 마차 한 대를 빌렸습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솔직하고, 조금 순진해 보일 만큼 담담한 어조로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담겨 있었다. 미심쩍어 경계를 늦추지 않던 피유 판사조차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그래, 이번 탐방에는 만족하나?"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겪어 봐서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이번 일은 흥미진진하고요."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복잡한 사정들도 있을 테고."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짜릿하죠, 판사님! 어둠 속에서 하나둘 드러난 사실들이 서로 맞물리며 차츰차츰 그럴듯한 진실을 만들어 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감동은 없습니다."

"정말 대담한 추측이시군요, 젊은이여! 이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손에 쥐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보트를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의견이 서릴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무도 명확한 대목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

‘오, 정말 흥미롭군. 드디어 뭔가를 알게 되겠네. 솔직히 말해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판사님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자체에 해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확인한 사실들에도, 그 자체로 해답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서에 기록된 것들 말고 다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훌륭하군요! 그렇다면 이 살롱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대단하군! 이 일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인보다 더 훤히 알고 계시는군. 제스브르 씨의 목록은 셈이 맞는데,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의 목록은 그렇지가 않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책장 하나와 실물 크기 조각상 하나가 그 목록엔 빠져 있거든. 그렇다면 살인자의 이름을 묻는다면?”

“그것도 제가 안다고 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흠칫 놀랐다. 차장검사와 기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드 제브르 씨와 두 아가씨도 보트를레의 차분한 자신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귀를 기울였다.

"살인자의 이름을 안다고요?"

"어쩌면 그가 있는 곳까지도요?"

피유 판사는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이런 행운이! 이자를 붙잡으면 내 경력에 더없는 영예가 될 거야. 지금 당장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 줄 수 있겠나?"

"지금 당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판사님이 진행하시는 수사를 끝까지 지켜본 뒤, 한두 시간 뒤에 말씀드리죠."

"아니, 아닐세, 지금 당장 하게, 젊은이…"

그때, 이 장면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지도르 보트를레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던 레이몽드 드 생트베랑이 피유 판사에게 다가갔다.

"판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그녀는 두세 초쯤 망설이며 보트를레에게서 눈을 떼지 않다가, 피유 판사를 향해 말했다.

"저분께, 어제 작은 문으로 이어지는 옴폭한 오솔길을 왜 거닐고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요, 아가씨! 제가요! 어제 저를 보셨다고요?"

레이몽드는 마치 자기 안의 확신을 단단히 굳히려는 듯, 여전히 보트를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오후 네 시쯤, 숲을 가로지르다가 옴폭한 오솔길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키는 저분과 비슷했고, 옷차림도 같았으며, 수염도 똑같이 다듬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였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라면 이렇게 닮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니까요."

피유 판사는 난감했다. 이미 공범 한 명에게 속아 넘어간 그가, 또이 자칭 고등학생에게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젊은이의 태도는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 아닌가?

"선생, 뭐라고 답하겠나?"

"아가씨가 잘못 보신 겁니다. 그건 제가 쉽게 증명할 수 있죠. 어제 그 시각에 저는 뵐에 있었습니다."

"그건 증명해야 하네, 반드시. 어쨌든 상황이 달라졌어. 반장, 자네 부하 한 명이 이분을 지키도록 하게."

이지도르 보트를레의 얼굴에 짙은 불쾌감이 떠올랐다.

"오래 걸립니까?"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데 걸리는 만큼."

"판사님, 부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정보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인가?"

"제 아버지는 연로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척 아끼죠… 저 때문에 아버지가 상심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소 울먹이는 듯한 그 목소리가 피유 판사의 비위를 거슬렀다.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했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겠네."

오후가 깊어갔다. 판사는 옛 수도원 터로 돌아갔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했다.

그는 인내심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땅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폈다. 그는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 무렵, 그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성을 가득 메운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 모든 정황은 부상자가 우리 손끝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군요.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그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를 성 밖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그는 헌병 반장과 협의하여 영지 감시를 조직했다. 그리고 두 응접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성을 구석구석 둘러본 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나서 차장검사와 함께 디에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밤이 찾아왔다. 부두아르는 닫아 두어야 했기에, 장 다발의 시신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마을 여인 두 명이 수잔과 레이몽드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지켰다. 아래층에서는, 그의 곁에 붙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마을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옛 기도실의 벤치에서 졸고 있었다. 밖에서는 헌병들과 소작인, 그리고 열두 명 남짓한 농부들이 폐허 사이와 담장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열한 시까지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열한 시 십 분, 성 반대편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조심해!" 분대장이 고함쳤다. "여기 두 명만 남아라! 너, 포시에… 그리고 너, 르카누… 나머지는 구보로 따라와!"

모두가 일제히 뛰쳐나가 성을 왼쪽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슬쩍 몸을 피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총성이 그들을 더 멀리, 거의 농장 끝까지 끌고 갔다.

그들이 떼를 지어 사과나무밭을 둘러싼 울타리에 다다랐을 때, 농부에게 내준 집 오른쪽에서 갑자기 불꽃이 치솟더니, 곧이어 다른 불길들이 굵은 기둥을 이루며 솟아올랐다. 짚으로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곡간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악당 놈들!" 퀴비용 분대장이 소리쳤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어. 얘들아, 덮치자. 멀리 못 갔을 거다."

하지만 바람이 불꽃을 본관 쪽으로 휘게 했기에, 무엇보다 그 위험부터 막아야 했다. 게브르르 백작이 현장으로 달려와 상금을 약속하며 독려하자, 모두 한층 더 열정적으로 진화에 매달렸다.

불을 완전히 잡았을 때는 새벽 두 시였다. 이제 와서 쫓아가 봐야 헛수고였을 것이다.

"날이 밝으면 살펴보자고. 분명 흔적을 남겼을 테니, 찾아낼 수 있겠지." 분대장이 말했다.

"나도 이번 습격의 이유를 알고 싶군." 게브르르 백작이 덧붙였다. "짚단 더미에 불을 지른 건 너무도 쓸데없는 짓 같으니 말이야."

"저와 함께 오시지요, 백작님. 이유라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도원 폐허에 이르렀다. 분대장이 불렀다.

"레카누? 포시에?"

다른 헌병들도 이미 보초로 남겨 둔 동료들을 찾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작은 문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에는 눈가리개가 씌워진 채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백작님," 동료들을 풀어 주는 동안 분대장이 속삭였다. "백작님, 우리는 어린애처럼 농락당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총성도, 습격도, 방화도… 모두 우리를 저쪽으로 꾀어내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양동작전이었죠… 그사이에 누군가 우리 부하 두 명을 묶었고, 일은 끝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 말인가?"

"부상자를 빼돌린 거죠, 당연하잖습니까!"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믿다마다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지 벌써 십 분은 됐어요… 진작 생각하지 못하다니 저도 참 바보지요. 그랬다면 놈들을 모조리 붙잡았을 텐데."

퀴비용은 갑작스러운 분노에 발을 굴렀다.

"대체 어디로? 빌어먹을! 어디로 빠져나갔단 말인가? 어디로 그자를 빼냈지? 그리고 그놈, 그 악당은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도대체가! 온종일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 사람이 풀숲에 숨을 수는 없잖아, 더구나 다친 몸으로는. 이런 일은 마법이야!"

퀴비용 분대장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벽녘, 젊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감방으로 쓰던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젊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면 순경이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물병과 잔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잔의 바닥에는 흰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 우선 젊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순경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 그가 높이 2미터 50센티미터에 있는 창문으로만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흥미로운 대목이지만—그 창문에 닿으려면 간수의 등을 발판 삼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2장

『그랑 주르날』지 발췌:

야간 속보. 델라트르 박사 납치. 미친 듯이 대담한 사건.

"인쇄 직전, 우리는 진위를 장담할 수 없는 소식 하나를 접했다. 너무도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유보를 전제로 전한다.

"어제 저녁, 저명한 외과 의사 델라트르 박사는 아내와 딸과 함께 코메디프랑세즈 극장에서 '에르나니'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제3막이 시작될 무렵, 즉 밤 10시쯤 그의 특별석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을 대동한 한 신사가 박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델라트르 부인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저는 매우 괴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일을 수월하게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테자르입니다. 제1구 경찰서장이지요. 당신을 경찰청의 뒤두아 씨에게 모셔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한 말씀도 마십시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손짓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딱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움직여 누구의 이목도 끌지 말아야 합니다. 공연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장을 따라 나섰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몹시 불안해진 델라트르 부인은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짜 테자르 씨를 만났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을 데려간 자가 사기꾼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초동 수사에서 의사가 자동차에 올라탔고, 그 자동차가 콩코르드 광장 쪽으로 멀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제2판에서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속보를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다.

아무리 믿기 어렵다 해도 이 사건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결말도 오래 끌지 않았으니, 『그랑 주르날』은 정오 판에서 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건을 매듭짓는 반전을 몇 마디로 전했다.

"오늘 아침 아홉 시, 델라트르 박사가 뒤레 거리 78번지 문 앞으로 돌아왔고, 그 자동차는 즉시 빠르게 멀어졌다."

뒤레 거리 78번지는 다름 아닌 델라트르 박사의 병원으로, 매일 아침 그가 같은 시각에 도착하는 곳이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박사는 수사국장과 면담 중이었지만, 그래도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더없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세 동행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매력적이었지요. 더없이 정중하고, 재치 있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여정이 긴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죠."

"그 여정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네 시간, 돌아오는 데도 그만큼 걸렸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즉각 수술이 필요한 상태의 환자에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수술은 성공했습니까?"

"네, 하지만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여기였다면 제가 환자를 책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가 처한 환경에서는…"

"환경이 나쁘다는 말씀입니까?"

"참혹합니다… 여관 방 한 칸에, 사실상 거의 절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럼 그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기적, 그리고 남달리 강인한 그의 체질뿐입니다."

"그 기이한 환자에 대해 더는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맹세를 했고, 게다가 제 서민 진료소를 위해 만 프랑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돈은 도로 회수될 겁니다."

"설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자들은 하나같이 몹시 진지해 보이거든요."

"델라트르 박사가 우리에게 한 진술은 이상과 같다. 한편 우리가 따로 아는 바로는, 수사국장 역시 그가 시행한 수술과 돌본 환자,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간 지역에 관해 아직 그에게서 더 정확한 정보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진실을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는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진실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눈치챘다. 어제 암브뤼메지 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단히 비교해 보았을 뿐이었다. 그날 모든 신문이 그 일을 사소한 부분까지 상세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부상한 도둑이 사라진 것과 저명한 외과 의사가 납치된 것 사이에는 분명히 우연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했다.

수사 결과는 그 가설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가짜 마부의 자취를 쫓은 결과, 그는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아르크 숲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자전거를 도랑에 버린 뒤 생니콜라 마을로 가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음이 밝혀졌다.

"상황 절망적. 긴급 수술 요함. 명사를 14번 국도로 보낼 것."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통보를 받은 파리의 공범들은 서둘러 채비를 갖췄다. 밤 열 시, 그들은 아르크 숲을 끼고 돌아 디에프에 이르는 14번 국도로 그 명사를 실어 보냈다.

한편, 자기들이 직접 지른 불을 틈타 도둑 무리는 두목을 빼내어 여관으로 옮겼고, 새벽 두 시쯤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파리에서 특별히 파견된 가니마르 주임 형사와 폴랑팡 형사는 퐁투아즈, 고르네, 포르즈를 돌며 전날 밤 자동차가 지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디에프에서 앰브뤼메지까지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성에서 반 리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의 행방을 완전히 놓쳤지만, 공원 작은 문과 수도원 유적 사이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가니마르 형사는 작은 문의 자물쇠가 강제로 열렸다고도 지적했다.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남은 일은 의사가 말한 여관을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이는 가니마르에게 쉬운 일이었다. 그는 날카롭고 인내심이 강하며, 경찰 생활의 베테랑이었기 때문이다. 여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고, 부상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여관은 암브뤼메시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니마르와 부대장 케비용은 곧바로 나섰다. 500미터, 1킬로미터, 5킬로미터 반경 안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다. 여관으로 의심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보고 수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위독한 남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니마르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토요일 밤 성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에 직접 수사를 벌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야간에 순찰하던 헌병 한 무리가 성벽 밖 오솔길로 기어 들어가는 그림자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보를 확인하러 돌아온 동조자일까? 아니면 그 무리의 두목이 아직 수도원이나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는 뜻일까?

그날 저녁, 가니마르는 헌병들을 농장 쪽으로 공개적으로 이끌고 나섰다. 그는 자신과 폴랑팡을 성벽 밖, 문 근처에 숨어 있게 했다.

자정이 조금 남았을 때, 한 남자가 숲에서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 문턱을 넘어서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세 시간 동안 그가 폐허 사이를 배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몸을 굽히고, 낡은 기둥을 기어 올랐다가,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러다 그가 다시 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두 형사 사이를 또 한 번 지나쳤다.

가니마르가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사이, 폴랑팡이 그를 껴안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더없이 순순한 태도로 손목이 묶인 채 성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심문하려 하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 의무도 없으며, 예심판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들은 그를 단단히 묶어, 그들이 머물던 두 방 중 한 방의 침대 다리에 고정했다.

월요일 아침 아홉 시, 피유 씨가 도착하자마자 가니마르는 자신이 체포한 사실을 알렸다. 죄인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는 이지도르 보트를레였다.

"이지도르 보트를레!" 피유 씨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외쳤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훌륭한 아마추어 탐정이 여기, 우리 곁에! … 이건 행운이군요. 가니마르 경,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송 드 사이리 고등학교 수사학반 학생입니다."

가니마르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지도르는 자신을 존중하는 동료처럼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피유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판사님, 저에 대해 좋은 정보를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완벽하오. 먼저, 생베랑 양이 골짜기 길을 지나가는 당신을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이 실제로 뵈르레자즈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소. 당신의 분신(소시)의 신원을 밝혀낼 것이라 의심치 않소.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지도르 보트를레. 논술반 학생이요, 더구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우수 학생이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매달 한 번씩 베르노라는 지인 댁에 드나들며, 그분은 당신을 극찬하오."

"그렇다면…"

"그렇소,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오."

"완전히 자유로운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취제를 먹이고, 창문으로 탈출한 뒤, 다시 사유지에서 부랑 혐의로 현행범으로 잡힌 신사를 아무 대가 없이 놓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단했던 대화를 이어갑시다. 당신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를 얻은 지 이틀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겠지요?"

가니마르가 그다지 흥미로운 일도 아닌 듯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판사가 소리쳤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님. 형사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의 말을 들어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트를레 씨는 장송 드 사이리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관찰자'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는 형사님을 능가하는 실력자이자, 헐록 숌즈의 경쟁자로 꼽힌다고 하더군요."

"진심인가?" 가니마르가 비웃듯 말했다.

"물론입니다. 한 동창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더군요. '보트를레가 알겠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진리의 정확한 표현일 테니까요.'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 이제야말로 동창들의 신뢰에 보답할 때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리의 정확한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지도르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판사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학생들끼리 제 할 수 있는 대로 재미를 찾는데, 그들을 놀리시다니요. 하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더 이상 놀림감이 될 만한 이유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

"저는 정말 겸손하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인합니다. 두세 군데의 더 정확한 지점을 발견한 것을 '무언가를 안다'고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그것들조차도 제가 놓쳤을 리 없다는 점은 확신합니다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도난당한 물건 말입니다."

"아! 도난당한 물건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 먼저 연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이 더 쉬워 보였으니까요."

"더 쉬워 보인다는 말이오?"

"글쎄요, 그렇죠. 기껏해야 추론 하나를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추론이란 게 뭐죠?"

"설명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난이 있었습니다. 두 아가씨가 입을 모으고 있고, 실제로 두 남자가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도난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게브르 백작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도난이 발생했지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가져간 물건이 똑같은 물건으로 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추론이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얼른 덧붙여 두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추론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마땅하며, 신중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는 흥미를 보이며 중얼거렸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보트를레는 계속했다.

"그렇다면 그 살롱에는 도둑들의 탐욕을 끌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태피스트리가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래된 태피스트리는 모방할 수 없어서, 위조했다면 단번에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남은 것은 네 점의 루벤스 작품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벽에 걸린 루벤스 그림 네 점 모두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요."

"불가능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략 일 년 전, 판사님. '샤르페네'라는 이름을 쓰던 한 청년이 앙브뤼메지 성을 찾아와 루벤스 그림을 복사할 허락을 청했습니다. 제스브르 백작이 그 허락을 내려주었죠. 샤르페네는 그 거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려 다섯 달 동안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 액자부터 캔버스까지가 원래의 루벤스 원작 네 점과 교체된 것입니다. 그 원작들은 제스브르 백작의 삼촌인 보바딜라 후작이 백작에게 유증한 것이었죠."

"증거는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림이 가짜라는 건 그림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필뢰와 가니마르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기지 않은 놀람을 드러냈다. 형사는 이제 물러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심판관이 속삭였다.

"제스브르 백작의 의견을 들어야겠군요."

가니마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그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살롱으로 백작을 모셔오라고 명했다.

젊은 수사학도가 거둔 승리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필뢰 씨와 가니마르 형사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두 전문가가 자신의 가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라면 우쭐했을 만한 찬사였다.

하지만 보트를레는 그런 사소한 자존심의 만족감에는 무감각해 보였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조금의 비꼼도 섞지 않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드 게브르 씨가 들어섰다.

"백작 각하." 조사판사가 말했다. "우리의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점을 백작 각하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강도들이 이 집에 침입했을 때, 백작 각하의 루벤스 그림 네 점을 훔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네 점을 네 개의 위작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위작은 일 년 전, 샤르페네라는 이름의 화가가 그렸을 것입니다."

판사가 백작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그림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진품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백작은 순간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누르고는, 보트를레와 피유 판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그림 가까이 가지도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다.

"판사님, 진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으니 주저 없이 밝힙니다. 이 네 점의 그림은 모두 위작입니다."

"이미 아셨습니까?"

"첫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물건이 진품이 아니거나, 더 이상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텐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비밀을 흘리지 않고, 도둑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들이 처치 곤란해할 그 그림들을 되사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과 어떻게 연락을 취하죠?"

백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지도르가 받아쳤다.

"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서였죠. <자르날>, <파리 에코>, <마탱>지에 실린 이 짤막한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림들을 다시 사들이겠다."

백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다시 한번 그 젊은이가 나이 많은 이들을 압도한 셈이었다.

피유 씨도 깨끗이 승복했다.

"정말, 친애하는 선생님, 이제 당신의 동료들이 완전히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겠군요. 천만에,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직관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가니마르 형사와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될 테니까요."

"아니, 그다지 복잡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이 사건의 전모를 더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였던 게 기억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신은 살인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장 다발을 죽였습니까? 그 남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판사님,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과 사실 사이의 오해죠. 그건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살인자와 도망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유 씨가 깜짝 놀라 외쳤다.

"게브르 백작님이 내실에서 보고 몸싸움을 벌인 남자. 그 아가씨들이 거실에서 보고, 생트베랑 양이 총을 쏜 남자. 그리고 공원에 떨어져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남자. 그 사람이 장 다발의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아가씨들이 오기 전에 사라진 제삼의 공범자가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장 다발을 죽인 범인은 누구입니까?"

"장 다발은 ……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보트를레는 말을 멈추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전에 제가 어떻게 확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살인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고발이 터무니없어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간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장 다발이 칼에 찔렸을 때, 그는 겉옷부터 신발까지 모두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보행용 부츠를 신고 있었죠. 한마디로 한낮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조끼에 칼라, 넥타이, 멜빵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인은 새벽 네 시에 저질러졌습니다."

"그 기이한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게브르 백작께서 다발이 밤의 일부를 일하느라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하인들은 오히려 그가 매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났었다고 치죠. 왜 그가 이불을 풀어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잠자리에 들었다면, 소리를 듣고도 가볍게 옷을 걸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차려입는 수고를 왜 했을까요? 제가 첫날,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시는 동안 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슬리퍼는 침대 끝자락에 놓여 있었죠. 그가 그 무거운 철못 박힌 구두를 신기보다 슬리퍼를 신게 막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로는…… 잘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보인 것은 그저 이상한 점들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고 보니, 그 점들은 훨씬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모사한 화가 샤르페네가, 장 다발에 의해 게브르 백작에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요. 장 다발과 샤르페네가 공모자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과 한 발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화할 때 이미 그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군요."

"그렇죠. 확실한 물증도 필요했으니까요. 다발의 방에서 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글을 쓰던 받침판의 한 장에 적힌 주소 말입니다. 압지에 눌려 좌우가 뒤집힌 채 찍혀 있었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A. L. N. 씨, 우편 사서함 45번, 파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성 니콜라에서 위장 마부라고 사칭한 자가 보낸 전보에도 같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A. L. N., 우편 사서함 45번.'"

"이제 물증은 충분했습니다. 장 다발이 그 도둑 무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피유 씨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공범 관계는 입증됐군요.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결론짓습니까?"

"먼저 이겁니다. 도망자가 장 다발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 다발은 이미 그 도망자의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럼 대체?"

"판사님, 게브르 백작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처음 내뱉은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문장은 게브르 백작 자신의 진술로, 사건 기록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다발은? 살아 있나? 칼은?'

이 문장을, 사건 기록부에 적힌 게브르 백작의 공격 상황 설명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내게 덤벼들더니, 목덜미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쓰러뜨렸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게브르 백작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다발이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답을 해버리고 모든 논평을 차단하려는 듯, 그는 재촉하듯 말을 이었다.

"따라서 장 다발이 세 명의 절도범을 이 응접실로 안내한 셈이군요. 다발은 그들 중 '수장'이라 불리는 자와 함께 방 안에 있었는데, 그때 내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발이 문을 열고는 게브르 백작을 알아보자, 칼을 든 채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게브르 백작은 간신히 칼을 빼앗아 그를 찔렀지만, 곧바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두 소녀가 몇 분 뒤에 목격한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피유 판사와 가니마르 형사가 다시 마주 보았다. 가니마르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백작님,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게브르 백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작님, 침묵하고 계시면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게브르 백작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야기, 모든 면에서 정확합니다."

판사가 흠칫 놀랐다.

"그렇다면 당신이 왜 사법 당국을 오도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당방위라는 명분이 있는 행위를 왜 숨기셨습니까?"

"스무 해 동안 다발은 제 곁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었죠. 그가 어떤 유혹에 빠져 배신했든, 저는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 적어도 그 배신만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원치 않으셨던 거야 그렇다 쳐도, 그건 마땅히 알리셨어야 합니다."

"판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로 무고한 사람이 누구도 고발되지 않았으니,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던 그를 고발하지 않을 권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충분한 형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백작님, 진상이 밝혀진 지금이야말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그가 공범들에게 보낸 편지 초안 두 통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몇 분 뒤, 그의 지갑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도둑질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디에프의 라바르 거리 18번지로 가보십시오. 베르디에라는 여인이 거기 삽니다. 다발이 도둑질을 한 것은 바로 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두 해 전에 알게 된 그 여인에게 필요한 돈을 대주려고 한 짓이었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비극의 실체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둘 또렷한 빛을 띠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계속해 봅시다." 피유 판사가 백작이 물러난 뒤 말했다.

"음,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보트를레가 경쾌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망친 자, 부상당한 자는요?"

"그건 판사님도 저만큼이나 아십니다. 회랑 안뜰의 풀밭에 난 자취를 따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그를 빼냈지.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여관에 대한 단서야."

보트를레가 폭소를 터뜨렸다.

"여관이라뇨? 여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술수죠. 게다가 그 술수가 먹혔으니, 정말 영리한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델라트르 박사는…"

"아니, 바로 그겁니다!" 보트를레가 확신에 찬 어조로 외쳤다. "델라트르 박사가 그렇게 단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믿어선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델라트르 박사는 자신이 겪은 일 전체에 대해 가장 모호한 세부 사항만 밝히려 했어요. 의뢰인의 안전을 해칠 만한 말은 일절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관으로 주의를 끄는 겁니다! 박사가 '여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면, 그건 강요당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박사가 우리에게 늘어놓은 이야기 전부가 끔찍한 보복의 위협 아래 받아쓰게 한 대로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박사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무시무시한 힘을 직접 겪어 본 자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박사는 여러분의 수사에 가장 정확한 단서를 제공한 것이죠."

"어찌나 정확한지, 그 여관은 찾을 수가 없죠."

"어찌나 정확한지, 당신은 온갖 정황에 반하면서도 그 여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고, 정작 그자가 있을 수 있는 단 한 곳에서는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자가 떠나지 못한, 떠날 수도 없었던 그 비밀스러운 곳 말입니다. 그자는 드 생베랑 양에게 부상을 입은 그 순간부터, 상처 입은 짐승이 제 굴로 기어들 듯 그곳으로 숨어든 뒤로 줄곧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지옥의 어느 구석이란 말이오?"

"오래된 수도원의 폐허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폐허랄 것도 없소! 벽 몇 조각! 기둥 몇 개뿐이오!"

"바로 그곳에 그자가 숨어 있습니다, 판사님!" 보트를레가 힘차게 외쳤다. "수색 범위를 그곳으로 한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곳, 다른 어디도 아닌 그곳에서 아르센 뤼팽을 찾게 될 겁니다!"

"아르센 뤼팽!" 피유 씨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잠시 엄숙한 정적이 흘렀다. 그 유명한 이름의 음절들이 길게 여운을 남겼다. 위대한 모험가, 도둑들의 왕 아르센 뤼팽. 며칠 동안 헛되이 쫓았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 패배한 적수가 정말 그란 말인가? 그러나 아르센 뤼팽이 함정에 빠져 체포된다면, 그것은 예심 판사에게 즉각적인 승진이요, 부요, 영광이었다!

가니마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지도르가 그에게 물었다.

"형사님, 제 생각과 같으시죠?"

"물론이지!"

"형사님도 처음부터 이 사건의 주모자가 그 사람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죠?"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소! 서명이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뤼팽의 수법은 다른 수법과 다르오. 얼굴이 사람마다 다르듯, 그의 솜씨도 저마다 고유하지. 눈만 뜨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소."

"정말로…… 정말로……" 피유 씨가 되뇌었다.

"믿느냐고요!" 젊은이가 외쳤다. "자, 이 작은 사실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에는 어떤 이니셜을 쓰죠? A. L. N., 즉 아르센의 첫 글자, 그리고 뤼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아!" 가니마르가 말했다. "당신은 놓치는 게 없군.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 늙은 가니마르도 이제 두 손 들었네."

보트를레는 기쁨에 얼굴이 붉어지며 형사가 내미는 손을 꼭 쥐었다.

세 사람은 발코니 쪽으로 다가가, 폐허가 펼쳐진 벌판을 바라보았다. 피유 씨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그가 저기 있다는 거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보트를레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쓰러진 바로 그 순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드 생베랑 양과 하인 두 명에게 들키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공범들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건네주었으니까요. 바로 그날 아침, 그들 중 하나가 마부로 변장하고 당신을 이곳으로 태워 왔죠."

"신원을 알 수 있는 그 모자를 회수하기 위해서였군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해, 두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인했습니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자는 은신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목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도 그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불안에 휩싸인 나머지, 그는 경솔하게도 이런 협박의 글을 써 버렸으니까요. '그 아가씨가 두목을 죽였다면, 그녀에게 재앙이 닥치리라.'"

"하지만 그 뒤에 그의 동료들이 그를 빼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당신의 부하들은 폐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옮겼겠습니까? 기껏해야 수백 미터밖에 못 갔을 겁니다. 죽어 가는 사람을 멀리 옮기지는 못하니까요. 그랬다면 당신이 그를 발견했겠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에서 그를 끌어냈을 리 없습니다. 헌병들이 아이들처럼 불난 곳으로 달려가는 사이,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의사를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살아가려면 음식과 물이 필요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맹세컨대 그렇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신합니다. 그는 그곳에 있어요."

그는 폐허를 향해 손가락을 뻗은 채 공중에 작은 원을 그렸고, 그 원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었다. 그리고 두 동료는 그 점을 미친 듯이 더듬어 찾고 있었다. 둘 다 허공 위로 몸을 기울인 채, 보트를레와 똑같은 믿음에 사로잡혀, 그가 심어 준 뜨거운 확신에 몸을 떨었다.

그렇다, 아르센 뤼팽은 그곳에 있었다. 이론적으로든 실제로든 그는 그곳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더는 그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험가가 어둠이 깔린 어느 은신처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운 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지쳐 쓰러져 있다는 사실에는 무언가 위엄 있고도 비극적인 데가 있었다.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유 판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가 죽고, 그의 공범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보트를레가 대답했다. "드 생베랑 양의 안전을 꼭 지켜 주십시오, 판사님. 복수가 끔찍할 테니까요."

몇 분 뒤, 이 대단한 조력자를 기꺼이 곁에 두고 싶어 한 피유 판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보트를레는—그날로 방학이 끝나는 터라—다시 디에프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는 오후 다섯 시쯤 파리에 도착했고, 여덟 시에는 동료들과 함께 장송 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가니마르 형사는 앙브뤼메지 폐허를 꼼꼼하게, 그러나 헛되이 샅샅이 뒤진 뒤, 저녁 급행열차를 타고 귀가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다음과 같은 속달 우편을 발견했다.

'수석 경감님께,

오늘 하루를 마칠 무렵 잠시 여유가 생겨, 분명 흥미를 느끼실 만한 추가 정보를 몇 가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센 뤼팽은 지난 일 년간 파리에서 에티엔 드 보드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교계 소식란이나 스포츠 단신에서 자주 보셨을 이

름이지요. 그는 대단한 여행가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곤 하는데, 그 사이 자기는 벵골에서 호랑이를, 시베리아에서 청여우를 사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슨 사업엔가 종사하는 것으로 통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주소는 마르뵈프 거리 36번지입니다. (마르뵈프 거리가 45번 우체국 근처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브뤼메지 습격 전날인 4월 23일 목요일 이후로, 에티엔 드 보드레의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수석 경감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심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추신. — 이 정보를 얻는 데 제가 큰 수고를 들였으리라고는 부디 생각지 마십시오. 사건 당일 아침, 피유 씨가 몇몇 선택된 사람들 앞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저는 운 좋게도 가짜 운전사가 와서 바꿔치기하기 전에 도망자의 모자를 살펴볼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자 장수의 이름만으로도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줄 경로를 찾기에 충분했지요.'

이튿날 아침, 가니마르는 마르뵈프 거리 36번지로 찾아갔다. 관리인에게 정보를 얻은 뒤, 그는 오른쪽 1층 방을 열게 했고, 거기서 벽난로 속에 남은 재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흘 전, 두 친구가 찾아와 문제가 될 만한 서류를 모두 태워 버린 것이다.

하지만 문턱을 넘으려던 순간, 가니마르는 드보레즈 후작에게 편지를 전달하러 온 우편부와 마주쳤다.

오후가 되자 검찰청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 편지를 압수해 갔다. 편지 봉투에는 미국 우표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영어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요원이 보낸 답변을 확인해 드립니다. 드제브르 후작의 그림 네 점을 손에 넣는 대로, 정해진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가능하다면 나머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다만 저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와 거의 동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랑호텔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바로 그날, 가니마르는 체포영장을 들고 미국 시민인 하링턴을 연행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는 장물 취득 및 절도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단 스물네 시간 만에, 열일곱 살 소년이 정말 뜻밖에 건넨 단서 덕분에 얽힌 실타래가 모조리 풀렸다.

스물네 시간 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것이 단순하고 명료해졌다.

스물네 시간 만에, 두목을 구하려던 공범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부상을 입고 죽어가던 아르센 뤼팽의 체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으며, 그의 무리는 와해되었고, 그가 파리에 마련해 둔 거처도, 쓰고 있던 가면도 모두 드러났다. 그리고 그가 완벽히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의 가장 교묘하고 오랫동안 공들인 수법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중은 놀람과 감탄, 그리고 호기심에 찬 거대한 함성으로 들끓었다. 이미 루앙의 한 기자는 아주 잘 쓴 기사를 통해, 젊은 수사학반 학생(보트를레)의 첫 심문 과정을 묘사하며 그의 우아한 태도와 순수한 매력, 차분한 자신감을 부각했다.

가니마르와 피외유 씨는 직업적 자존심보다 더 강한 충동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흘렸고, 이 누설로 대중은 보트를레가 최근 사건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은 그 혼자였다. 승리의 모든 공로는 오직 그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하루아침에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영웅이 되었고, 갑작스레 사로잡힌 군중은 이 새로운 총아에 대해 가장 상세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보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장송드사이리 고등학교로 쇄도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통학생들을 붙잡았고, 보트를레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캐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헐록 숌즈의 라이벌'로 불리던 그가 어떤 명성을 누렸는지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오로지 추론과 논리만으로, 그리고 신문에서 읽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여러 차례 복잡한 사건의 해결책을 미리 일러 주었고, 사법부는 한참 뒤에야 그를 따라 그 사건들을 풀어냈다.

장송 고등학교에서는 보트를레에게 까다로운 질문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던지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확실한 분석력으로, 또 얼마나 기발한 추론으로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지 보며 감탄했다.

식료품상 조리스가 체포되기 열흘 전, 그는 그 유명한 우산에서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일러 주었다. 마찬가지로 생클루 사건 초기부터, 그는 경비원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범인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작은 책자였다.

그것은 그가 직접 쓴 것으로, 타자기로 찍어 단 열 부만 펴낸 것이었다.

제목은 '아르센 뤼팽, 그의 방법론 — 어떤 점에서 고전적이고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가'였고, 뒤에 '영국식 유머와 프랑스식 아이러니의 비교'가 이어졌다.

이것은 아르센 뤼팽의 각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였다. 일류 도둑으로 불리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기법이 숨어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이한 전술, 신문사 보내는 서한, 협박, 도난 예고까지. 그가 선택한 피해자를 어떻게 속여 '조리'했는지, 모든 수법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그 결과 피해자는 특정 심리 상태에 빠졌다. 거의 자발적으로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다시피 했다. 결국 모든 일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마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진행됐다.

그 비판은 너무도 정확했고, 통찰력이 깊었으며, 생생했다. 게다가 천진하면서도 잔인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 웃는 이들은 순식간에 그의 편으로 돌아섰고, 군중의 호감도 망설임 없이 뤼팽에게서 이지도르 보트를레에게로 옮겨 갔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사람들은 미리부터 젊은 수사학반 학생의 승리를 선언했다.

어쨌든 이 승리의 가능성만큼은, 피외유 씨도 파리 검찰청도 기꺼이 그에게 남겨 두려는 듯한 기색이었다.

일단, 하링턴이라는 남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뤼팽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동조자든 아니든, 그는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필적을 조사한 결과,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라고 단정하기도 망설여졌다.

할 수 있는 말은 이뿐이었다. 하링턴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여행 가방과 지폐가 잔뜩 든 지갑을 들고 그랑호텔에 묵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한편 디에프에서는, 피외유 예심판사가 보트를레가 차지해 준 진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건 전날 생베랑 양이 보트를레로 착각했던 그 인물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네 점의 루벤스를 빼돌린 일에 관해서도 똑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날 밤 그림들을 싣고 사라진 자동차는 어느 길로 갔을까?

뤼느레, 이에르빌, 이브토, 그리고 코드벡앙코에서 그 자동차가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코드벡앙코에서는 새벽녘에 증기 나룻배로 센 강을 건넌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사를 끝까지 파고들자, 문제의 그 자동차는 지붕이 없는 무개차였으며, 따라서 나룻배 직원들 눈에 띄지 않고서는 큰 그림 네 점을 실을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마도 같은 차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네 점의 루벤스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모든 것은 피외유 씨가 답하지 못한 채 남겨 둔 문제들이었다. 날마다 그의 부하들은 폐허의 사각 구역을 샅샅이 뒤졌고, 그 자신도 거의 매일 나와 수색을 지휘했다.

하지만 — 보트를레의 견해가 옳다면 — 뤼팽이 죽어 가고 있을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까지는, 이 훌륭한 판사가 도무지 건널 마음이 없어 보이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이지도르 보트를레에게로 향한 것도 당연했다. 그가 아니고서는 더 짙고 뚫을 수 없게 되살아나던 어둠을, 오직 그만이 걷어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왜 이 사건에 더 매달리지 않는 것일까? 그가 일을 끌고 온 지점이면, 마지막 한 번의 노력으로 충분히 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질문은 '그랑 주르날'의 한 기자가 던졌다. 그는 보트를레의 후견인이라며 베르노라는 가명으로 장송 고등학교에 잠입했다. 이에 이지도르는 아주 분별 있게 답했다.

"선생님, 세상에 뤼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둑과 탐정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학력고사'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저는 7월에 시험을 봅니다. 지금은 5월이고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착하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아르센 뤼팽을 사법 당국에 넘긴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다음 방학 때면……."

"성령강림절 방학 말입니까?"

"네. 6월 6일 토요일, 첫 기차로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 토요일 저녁에 아르센 뤼팽은 붙잡히겠군요."

"일요일까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보트를레가 웃으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늦추려 하십니까?" 기자가 더없이 진지한 어조로 되받았다.

어제 막 생겨났는데도 이미 그토록 강렬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신뢰를, 사람들은 모두 이 젊은이에게 품고 있었다. 실제로 사건들이 그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만 뒷받침해 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아무러면 어떤가! 사람들은 믿었다. 그가 못 할 일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예지와 직관, 경험과 솜씨를 두루 갖춘 비범한 인물에게서나 바랄 법한 것을 그에게 기대했다.

6월 6일! 이 날짜는 모든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렸다. 6월 6일,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디에프행 급행열차를 타면, 그날 저녁 아르센 뤼팽은 체포될 것이었다.

"그 전에 그가 달아나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모험가를 옹호하던 마지막 지지자들이 토를 달았다.

"불가능해! 출구란 출구는 모두 지키고 있어."

"그렇다면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을 수도 있지." 영웅이 붙잡히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라던 지지자들이 그렇게 되받았다.

그러자 곧바로 대꾸가 돌아왔다.

"설마. 뤼팽이 죽었다면 동료들이 알 테고, 그러면 뤼팽의 원수를 갚았겠지. 보트를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6월 6일이 왔다. 생라자르 역에서 기자 예닐곱 명이 이지도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두 명은 그의 여행에 동행하려 했다. 그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그는 혼자 떠났다. 객차는 비어 있었다. 밤새워 일한 탓에 지친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는 기차가 여러 역에 멈추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 같았다.

루앙이 보일 때 깨어난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맞은편 좌석 등받이에 회색 천에 핀으로 고정된 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각자 제 일이나 하시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당신만 손해 볼 거요."

"좋군."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상대편이 곤경에 처했군. 이 위협은 가짜 마부 때의 그것만큼이나 어리석어. 글솜씨가 형편없어. 뤼팽이 쓴 글이 아님이 분명해."

기차는 노르망디의 고도 앞을 지나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역에 도착한 이지도르는 다리를 풀기 위해 승강장을 두세 바퀴 돌았다. 그는 다시 객차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는 서점을 지나며 무심코 《루앙 신문》 특별판을 펼쳐 보았다. 첫 페이지에 실린 짧은 글귀가, 순간 그에게 끔찍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최신 소식입니다. 디에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밤, 악당들이 앙브뤼메지 성에 침입해 드 제브르 백작을 묶고 입을 막은 뒤, 드 생트베랑 양을 납치했습니다. 성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 자국이 발견되었고, 그 근처에서는 피로 얼룩진 스카프도 수습했습니다. 불쌍한 소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디에프에 도착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디에프에서 그는 자동차를 한 대 빌렸다. 앙브뤼메지 성 문턱에서 그는 예심판사를 만났고, 판사는 그에게 끔찍한 소식을 확인해 주었다.

"더 알아내신 건 없습니까?" 보트를레가 물었다.

"없습니다. 방금 도착한 참입니다."

그때 헌병대 반장이 피유 씨에게 다가가, 스카프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주워 온 구겨지고 찢어지고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을 건넸다.

피유 씨는 종이를 살펴본 뒤 이지도르 보트를레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는 우리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되겠군."

보트를레는 종이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 가며 살폈다. 숫자와 점, 기호로 뒤덮인 그 종이는 정확히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다.

제3장

저녁 여섯 시쯤, 모든 조사를 마친 피유 판사는 서기 브레두와 함께 디에프행 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두 번이나 물었다.

"보트를레라는 청년은 못 봤소?"

"못 봤습니다, 예심판사님."

"도대체 그 녀석이 어디 있단 말이오? 온종일 모습을 볼 수가 없었소."

그때 피유 판사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지갑을 브레두에게 맡긴 뒤, 달음박질로 성을 한 바퀴 돌아 폐허로 향했다.

큰 아치 근처, 긴 솔잎이 깔린 땅에 엎드려 한 팔을 머리 밑에 괸 채, 이지도르는 잠든 듯 보였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젊은이? 자고 있는 거요?"

"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 중입니다."

"오전부터?"

"오전부터입니다."

"생각은 무슨! 먼저 봐야 합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단서를 찾고, 기준점을 잡아야 하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사색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압니다. 그게 흔히 쓰는 방법이고, 아마 옳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큰 줄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그 전체적인 발상을 먼저 찾아내려 하죠. 그런 다음 그 발상과 들어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오직 그 뒤에야, 사실들이 제 가설에 잘 들어맞는지 살펴봅니다."

"참 특이한 방법이군요. 게다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유 씨. 반면 당신 방법은 그렇지 못하죠."

"원, 무슨 소리. 사실은 사실일 뿐이오."

"일반적인 상대라면 모르죠. 하지만 적이 조금이라도 교활하다면, 드러나는 사실이란 그가 골라 놓은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수사의 근거로 삼는 그 유명한 단서들도, 그가 마음대로 배치해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뤼팽 같은 자가 상대일 때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어떤 오류와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끌고 갈지 짐작이 가시죠? 헐록 숌즈조차 그 함정에 빠졌으니까요."

"아르센 뤼팽은 죽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그 일당은 남아 있고, 그런 스승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또한 거장입니다."

피유 판사는 이지도르의 팔을 잡고 끌면서 말했다.

"그건 말뿐입니다, 젊은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가니마르는 지금 파리에 발이 묶여 며칠 뒤에야 도착합니다. 한편 드제브르 백작은 헐록 숌즈에게 전보를 쳤고, 숌즈는 다음 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죠. 젊은이, 그 두 유명 인사가 도착하는 날 이렇게 말해 준다면 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사 여러분.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선량한 피유 씨보다 더 교묘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트를레는 미소를 억누르고,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겉으로는 속은 척하며 대답했다.

"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방금 전 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결과를 판사님께서 제게 알려 주시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음, 이렇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케비용 반장이 성에 보초로 남겨 둔 세 헌병이 바로 그 반장에게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부대가 있는 우빌로 급히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곧장 말에 올라 우빌로 달려갔고, 막상 도착해 보니…"

"속았다는 것을, 명령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앙브뤼메지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케비용 반장의 인솔 아래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한 시간 반이나 됐고, 바로 그 한 시간 반 동안 범행이 저질러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였습니까?"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농장 건물에서 가져온 사다리를 성의 2층 벽에 기대 세웠죠. 유리창 하나를 잘라 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각등을 든 두 남자가 드 제브르 부인의 침실로 들어와, 그녀가 소리쳐 부를 새도 없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밧줄로 묶은 뒤, 드 생트베랑 양이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죠. 드 제브르 부인은 숨죽인 신음을, 이어 누군가 발버둥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두 남자가 자신처럼 묶이고 입이 막힌 사촌을 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 앞을 지나 창문으로 빠져나갔죠. 기진맥진한 데다 공포에 질린 드 제브르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들은요? 드 제브르 씨가 밤마다 풀어 놓는, 거의 야생에 가까운 맹견 두 마리를 사 두지 않았습니까?"

"그 개들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독에 당했죠."

"대체 누가요? 그 개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두 남자가 아무 방해 없이 폐허를 가로질러 그 유명한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들은 잡목 숲을 가로지른 뒤 옛 채석장을 우회해서… 성에서 오백 미터쯤 떨어진, '큰 떡갈나무'라 불리는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만약 드 생트베랑 양을 죽일 작정으로 왔다면, 왜 방에서 해치우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일은 성을 나선 뒤에야 벌어졌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아가씨가 결박을 풀어내는 데 성공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주워 온 그 스카프가 그녀의 손목을 묶는 데 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손을 쓴 곳은 '큰 떡갈나무' 아래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시신은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제가 따라간 자취는 바랑주빌 교회, 절벽 꼭대기에 매달린 듯 자리한 옛

묘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낭떠러지였죠… 깊이가 백 미터도 넘는 심연이요. 그리고 그 아래엔 바위와 바다가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큰 밀물이 시신을 해안으로 밀어 올릴 겁니다."

"당연하죠. 이 모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정말 간단하고, 제겐 조금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뤼팽은 죽었고, 그의 공범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고한 대로 복수를 위해 드 생트베랑 양을 살해한 겁니다. 이 정도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뤼팽은요?"

"뤼팽은요?"

"그렇다면 그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중팔구 공범들이 그 아가씨를 데려가면서 그의 시신도 함께 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신을 옮겼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가 폐허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로 없죠. 바로 거기에 모든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보트를레 씨. 레이몽드 양의 죽음은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죠. 지난 두 달 동안 앙브뤼메지 성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다른 자들이 찾아와 우리를 앞질러 버릴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언제 옵니까?"

"수요일… 어쩌면 화요일일지도…."

보트를레는 잠시 계산이라도 하듯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밤에는 고등학교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요, 월요일 아침 열 시에 여기 계신다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보트를레 씨? 정말로요? 확신이 서시나요?"

"적어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내가 지금껏 파악한 대략적인 틀과, 실제 사건들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맞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판사님, 사건 쪽에 잘못이 있는 셈이지요." 보트를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고분고분한 다른 사건들을 찾아볼 테니까요. 월요일에 봬요, 그렇죠?"

"네, 월요일에."

몇 분 후, 피유 씨는 디에프를 향해 차를 몰아 나갔다. 한편 이지도르는 제브르 백작이 빌려준 자전거를 타고, 예르빌과 코드벡앙코의 도로로 질주했다.

젊은 남자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점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싶었다. 그 점이 바로 적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루벤스 네 점 같은 거대한 그림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들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당장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경로만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보트를레의 가설은 이랬다. 자동차가 네 점의 그림을 싣고 가다가, 코드벡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자동차로 그림을 옮겨 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코드벡 상류나 하류에서 센 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하류 쪽에는 킬레브프 페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 위험했다.

상류 쪽에는 마이예리 페리가 있었다. 외딴 마을이라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다.

자정 무렵, 이지도르는 자신을 마이예리와 갈라놓은 18리그를 주파해 강가에 있는 여관 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다음 날 아침부터 페리 선원들에게 물었다.

승객 명부를 확인해 보았다. 4월 23일 목요일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럼 말이 끄는 마차인가? 짐수레? 화물마차?" 보트를레가 넌지시 물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지도르는 오전 내내 캐물었다. 그가 킬레브프로 떠나려던 참에, 그가 묵었던 여관의 사내아이가 말을 건넸다.

"그날 아침, 저는 열사흘간의 병역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차 한 대를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 마차는 강을 건너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지?"

"네. 마차는 짐을 부려서, 부두에 묶여 있던 어떤 평평한 배, 뱃사람들 말로 '페니슈' 같은 배에 실었거든요."

"그 마차는 어디서 온 것이오?"

"오, 저는 확실히 알아봤어요. 마부 바티넬의 마차였죠."

"그가 어디 사는 사람인가?"

"루베토 마을에 살아요."

보트를레는 참모 지도를 살폈다. 루베토 마을은 이베토에서 코드벡으로 가는 길과, 숲을 가로질러 마이예리까지 굽이굽이 이어지는 작은 길이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여섯 시가 되어서야 이지도르는 한 주막에서 마부 바티넬을 찾아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낯선 이를 의심하지만, 금화 한 닢

의 유혹과 몇 잔 술의 힘 앞에서는 끝내 못 이기고 마는, 약삭빠른 노르망디 노인 가운데 하나였다.

"네, 맞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저와 오후 다섯 시에 이 교차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큰 물건 네 개를 맡겼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따라왔고, 우리는 그 짐을 배까지 날랐어요."

"그들을 마치 이미 아는 사람처럼 말하시네요."

"알다마다요,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을 위해 일한 게 그때가 여섯 번째였으니까요."

이지도르가 흠칫 놀랐다.

"여섯 번째라고요? …언제부터요?"

"아니, 그 전날까지 매일 그랬죠, 당연하잖아요! 그땐 다른 물건들이었어요… 커다란 돌덩이들이거나, 아니면 길쭉하고 자그마한 것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천으로 싸서 성체라도 모시듯 들고 다녔어요. 아, 그것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됐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네요."

"별일 아닙니다… 이 방이 더워서요."

보트를레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발견의 기쁨과 뜻밖의 놀라움에 정신이 아찔했던 것이다.

그는 태연히 발걸음을 돌려, 그날 저녁은 바랑주빌 마을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초등학교 선생과 함께 면사무소에서 한 시간을 보낸 뒤 성으로 돌아왔다.

그를 기다리는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제브르 백작 댁 편으로 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두 번째 경고다. 입을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가 중얼거렸다. "내 신변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겠군. 그자들 말마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아홉 시였다. 그는 유적지 사이를 거닐다가, 아치형 구조물 근처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어떤가, 젊은이. 이번 조사는 만족스럽나?"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한 피유 씨였다.

"더없이 만족스럽습니다, 판사님."

"그게 무슨 뜻이오?"

"그건 제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가 저더러 꼭 그러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는 편지를 피유 씨에게 보여 주었다.

"아, 그런 건 다 허튼소리예요." 피유 씨가 소리쳤다. "그것 때문에 설마 그만두시는 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는 일을 말입니까? 아닙니다, 판사님. 약속했으니 지키겠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우리는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될 겁니다."

"일부라고요?"

"네, 제 생각엔 뤼팽의 은신처가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다음 일은 차차 보기로 하죠."

"보트를레 씨, 당신이 하는 일에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아, 아주 자연스럽게요. 하를링턴 씨가 에티엔 드 보드레 씨, 아니 뤼팽에게 보낸 편지 속에……"

"가로챈 그 편지 말입니까?"

"네. 늘 궁금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림을 보낼 때, 가능하면 나머지도 함께 넣어 보내시오.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소만.'"

"맞아요, 기억나네요."

"그 나머지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미술품일까요, 진귀한 골동품일까요? 성 안에는 루벤스 그림과 태피스트리 말고는 값나가는 게 없

었습니다. 보석일까요? 보석은 몇 점 안 되는 데다 값어치도 변변찮았죠. 그럼 대체 뭘까요?

또 한 가지, 뤼팽처럼 놀라운 솜씨를 지닌 자가, 분명히 자기가 제안했을 그 나머지를 함께 보내는 데 실패했으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럴 만합니다. 유별난 일이었다 칩시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었으니, 뤼팽이 원한 이상 틀림없이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네, 루벤스 작품이요. 하지만……"

"루벤스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루벤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조품으로 감쪽같이 바꿔치기한 무언가, 루벤스보다 훨씬 더 놀랍고 희귀하며 값진 무언가 말입니다."

"대체 그게 뭐란 말입니까? 사람 애간장을 다 태우시는군요."

두 사람은 폐허 사이를 걸으며 작은 문 쪽으로 향했고, 샤펠디외 예배당을 끼고 걷고 있었다.

보트를레가 발걸음을 멈췄다.

"궁금하십니까, 판사님?"

"궁금하다마다!"

보트를레는 손에 단단하고 옹이진 굵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그는 느닷없이 그 지팡이를 휘둘러, 예배당 정문을 장식한 작은 조각상 하나를 산산조각 냈다.

"당신 미쳤어요!" 피외유 씨가 제정신이 아닌 듯 외치며 조각상 파편 쪽으로 달려들었다. "미쳤군요! 그 오래된 성인상은 정말 훌륭했는데……"

"훌륭하다고요!" 이지도르가 지팡이를 한 바퀴 휘둘러 성모 마리아상을 쓰러뜨리며 내뱉었다.

피외유 씨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아 붙잡았다.

"젊은이, 자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두진 않겠네……"

동방박사 하나가 또 공중으로 날아갔고, 이어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까지 나뒹굴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쏘겠소."

제브르 백작이 들이닥쳐 권총을 장전하고 있었다.

보트를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거기다 쏘십시오, 백작님… 거기다 쏘세요, 장터 사격놀이 하듯이… 자, 보세요… 두 손에 제 머리를 받쳐 든 이 양반이요."

세례 요한 성인상이 튀어 올랐다.

"아!" 백작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이런 신성모독을……! 이런 걸작들을……!"

"가짜입니다, 백작님!"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피유 씨가 제브르 백작의 권총을 빼앗으며 소리쳤다.

"가짜라고요!" 보트를레가 되풀이했다. "종이반죽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속이 빈 거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백작이 몸을 굽혀 조각상 파편 하나를 주워 들었다.

"잘 보십시오, 백작님… 석고예요! 오래된 돌처럼 고색이 앉고, 곰팡이가 슬고,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석고죠… 하지만 석고는 석고입니다, 석고 주형일 뿐이에요… 순수한 걸작이라던 것에서 남은 건 고작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들이 며칠 만에 해치운 짓입니다!… 루벤스의 모사가인 샤르페네 씨가 일 년 전에 준비해 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유 씨의 팔을 붙잡았다.

"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장엄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통째로 사라졌다고요! 고딕 양식의 예배당이 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떼어내 옮겼다고 합니다. 작은 조

각상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모두 사로잡혀 버렸고, 그 자리에 석고로 만든 가짜 인형들이 들어섰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술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유물 중 하나가 몰수당한 셈입니다. 드디어 '샤펠디외' 예배당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 판사님, 이 남자는 정말 천재입니다."

"보트를레 씨, 너무 과장되십니다."

"그런 인물을 두고는 아무리 감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평균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든 감탄할 만하지요. 그리고 그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 도둑질에는 구상의 풍부함과 힘, 위력, 그리고 기교와 거리낌 없는 여유가 담겨 있어 저를 전율케 합니다."

"죽어서 다행이지요." 필뢰가 비웃듯 말했다. "안 그랬다면 결국 노트르담 성당의 탑까지 훔쳤을 테니까요."

이지도르는 어깨를 으쓱였다.

"웃지 마십시오, 선생님. 비록 죽었어도 그자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보트를레 선생님. 솔직히 그자의 시신을 마주하려는 지금 어떤 동요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자의 동료들이 시신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말이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엾은 조카에게 부상을 입힌 자가 정말 그자였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오." 제브르 백작이 덧붙였다.

"바로 그자였습니다, 백작님." 보트를레가 단언했다. "생베랑 양이 쏜 총알에 맞아 폐허 속으로 쓰러진 것이 바로 그자였습니다. 그녀가 본 대로 그자는 다시 일어섰다가 또 쓰러졌고, 큰 아치 쪽으로 몸을 끌고 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섰습니다. — 이는 잠시 후 설명드릴 기적 덕분이었지요 — 그리고 마침내 저 돌로 된 피난처에… 결국 그의 무덤이 될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보트를레는 지팡이로 예배당 문턱을 툭 쳤다.

"네? 뭐라고요?" 필뢰가 어리둥절해 외쳤다. "그의 무덤이라고요?… 그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은신처가…라고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 저기에 있습니다." 그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엔 은신처가 없습니다." 제브르 백작이 반박했다. "나는 이 예배당을 잘 압니다."

"아닙니다, 백작님, 은신처가 있습니다." 보트를레가 차분히 이어 말했다. "바랑빌 시청으로 가 보십시오. 옛 암브뤼메시 교구에 있던 문서들이 모두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데, 18세기로 연대가 매겨진 그 문서들을 보면 예배당 아래에 지하실(크립트)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지하실은 분명 로마네스크 양식의 예배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의 예배당은 바로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뤼팽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필뢰가 물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당을 들어내기 위해 직접 해야 했던 작업을 통해서지요."

"이보세요, 보트를레 씨, 과장이 심하시군요… 그가 예배당 전체를 들어낸 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주춧돌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만, 즉 다듬어진 돌과 조각, 작은 조각상들, 그리고 작은 기둥들과 정교하게 새겨진 첨두아치(오지브)들의 보물 전체만 본떠서 가져갔습니다. 건물의 기단 자체에는 손대지 않았지요.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트를레 씨, 뤼팽은 지하실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셈이군요."

그때, 하인 중 한 명을 부르러 보냈던 제브르 백작이 예배당 열쇠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살펴본 뒤, 보트를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바닥의 포석들은 당연히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제단이 이제 주물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

통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주제단 앞에서 시작해 그 아래를 지나가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뤼팽이 바로 그곳을 파다가 지하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백작이 가져오게 한 곡괭이로 보트를레는 제단을 파기 시작했다. 석고 조각들이 좌우로 튀었다. 그는 그것들을 차례차례 치워 나갔다.

"제기랄." 필뢰가 중얼거렸다. "어서 알고 싶군요."

"저도요." 보트를레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불안으로 창백했다.

그는 곡괭이질을 재촉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도 만나지 않던 곡괭이가 갑자기 더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왔다.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곡괭이가 내리친 돌덩이를 따라 제단의 남은 부분마저 빈 공간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보트를레가 몸을 굽혔다. 그는 성냥을 켜서 그 빈 구멍 위로 비춰 보았다.

"계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앞쪽에서, 거의 입구의 포석 바로 아래에서 시작되는군요. 저기 맨 아래에 마지막 계단들이 보입니다."

"깊은가요?"

"삼사 미터쯤 됩니다… 계단이 아주 높고… 몇 단은 없어졌네요."

"세 헌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생베랑 양을 끌고 가던 그 짧은 동안에, 공범들이 이 지하에서 시신을 꺼낼 시간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뢰가 말했다. "게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 시신은 여기 있습니다."

하인이 사다리를 가져오자 보트를레는 그것을 구덩이 안으로 넣고, 더듬더듬 떨어진 잔해 더미 사이에 단단히 세웠다. 그러고는 양쪽 기둥을 힘껏 붙잡았다.

"필뢰 선생님,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예심판사는 초를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제브르 백작이 그 뒤를 따랐다.

이어서 보트를레도 첫 번째 가로대에 발을 올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세었는데 모두 열여덟 개였다. 그러는 동안 그의 눈은 촛불의 희미한 빛이 짙은 어둠과 싸우고 있는 지하실을 살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격렬하고 역겨운 냄새가 그를 덮쳤다. 두고두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그런 부패의 냄새였다.

오! 그 냄새에 그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떨리는 손 하나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입니까?"

"보트를레…" 필뢰 판사가 더듬거렸다. "보트를레…"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 판사님, 진정하세요…"

"보트를레… 그가 저기 있어요…"

"네?"

"그래요… 제단에서 떨어져 나온 그 큰 돌 아래에 뭔가가 있었어요… 내가 그 돌을 밀었고… 만졌어요… 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을 보시오. 이 냄새 맡아보시오? 그리고, 저기요. 보세요."

그는 촛불을 집어 들더니 바닥에 누운 형체 쪽으로 불빛을 비췄다.

"으악!" 보트를레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세 남자는 재빨리 몸을 굽혔다. 반쯤 벗겨진 시체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야윈 몸은 끔찍할 정도로 추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결은 녹색을 띠고 있었고, 마치 녹은 양초 같은 질감이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리가 있었다. 방금 전 거대한 바위덩이에 짓눌린 머리였다. 형체만 남아 있을 뿐, 더 이상 어떤 부분도 구별할 수 없는 끔찍한 덩어리였다.

그들이 어둠에 눈을 익숙하게 하자, 그 살점 전체가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보트를레는 네 걸음 만에 사다리를 다시 올라가 환한 대낮의 자유로운 공기 속으로 달아났다.

필뢰 씨가 다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엎드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필뢰 씨가 그에게 말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보트를레 씨. 은신처를 발견한 것 외에도, 당신 주장의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생베랑 양이 총을 쏜 남자는 당신이 처음부터 말한 대로 분명 아르센 뤼팽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파리에서 살 때 쓰던 이름이 바로 에티엔 드 보드레였다는 것도 맞습니다. 속옷에 E. V.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만하면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지도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작님은 마차를 준비시키러 가셨습니다. 주에 박사를 부르러 가서 통상적인 검안을 하게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사망한 지 적어도 여드레는 됐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말이지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지 않군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제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뢰 씨는 자신의 설명을 계속했지만, 더 뚜렷한 경청의 기색은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제브르 백작이 돌아와 그의 독백을 끊었다.

백작은 편지 두 통을 들고 돌아왔다. 한 통은 헐록 숌즈가 이튿날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더할 나위 없군요!" 필뢰 씨가 명랑하게 외쳤다. "가니마르 형사도 함께 옵니다. 아주 즐겁겠는걸요."

"이 다른 편지는 판사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백작이 말했다.

"점점 더 좋아지는군요." 편지를 읽고 난 필뢰 씨가 말을 이었다. "이분들은 정말이지 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 보트를레 씨, 디에프에서 알려오기를, 오늘 아침 새우잡이 어부들이 바위 위에서 한 젊은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답니다."

보트를레가 흠칫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신이라니요…"

"젊은 여자의…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이라더군요.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다만 오른쪽 팔에 아주 가느다란 금팔찌가 부어오른 살갗에 파고들어 박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베랑 양은 오른쪽 팔에 금팔찌를 차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 시신은 분명 바다에 휩쓸려 그곳까지 떠내려간 백작님의 가엾은 조카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트를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맞물립니다. 제 논증에 더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모

든 사실이 하나하나, 심지어 가장 모순되어 보이는 것조차, 가장 당혹스러운 것조차, 제가 처음 순간부터 떠올린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완전한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만 참으십시오, 판사님. 지금까지 저한테 불평하실 일은 없으셨잖습니까. 날씨도 좋습니다. 산책도 하시고, 성에서 점심도 드시고, 파이프 담배도 피우세요. 저는 네다섯 시쯤 돌아오겠습니다. 제 학교야 뭐, 어쩔 수 없죠, 자정 기차를 타면 되니까요."

그들은 성 뒤쪽 부속 건물가에 다다랐다. 보트를레는 자전거에 올라타 멀어져 갔다.

디에프에서 그는 라 비기 신문사 사무실에 들러 최근 보름 치 신문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열 킬로미터 떨어진 엔베르뮈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시장과 신부, 그리고 시골 순경과 각각 면담했다. 마을 교회 종소리가 세 시를 알렸다. 그의 조사는 이제 끝이 났다.

그는 기쁨에 찬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왔다. 두 다리는 두 페달을 번갈아 고르고 힘차게 눌렀고, 가슴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는 종종 자신이 쫓고 있는 목표와 그토

록 성공적인 노력들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곤 했다.

암브루메시가 나타났다. 그는 성 앞에 이어진 경사면을 전속력으로 내려갔다.

길 양옆에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네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 나무들은 마치 그에게 달려오듯 보이다가, 순식간에 그의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인 환상처럼, 그는 길을 가로질러 나무와 나무 사이로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부딪힌 자전거가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튕겨 나갔고, 오직 기적 같은 우연 하나가 자신을 돌무더기에서 비켜 가게 해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 그의 머리는 그 돌무더기에 부딪혀 박살 났을 것이다.

그는 몇 초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온몸이 타박상으로 멍들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난 채로 주변을 살폈다. 오른쪽에는 작은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공격자는 분명 그곳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보트를레는 밧줄을 풀었다. 밧줄이 감겨 묶여 있던 왼쪽 나무에는 끈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 읽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그는 성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오른쪽 별관 맨 끝에 있는 1층 방에서 예심판사와 합류했다. 피유 판사는 평소 심문을 진행할 때 그 방에 머물곤 했다. 판사는 글을 쓰고 있었고, 서기가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판사의 손짓에 서기가 나가자, 판사가 소리쳤다.

"보트를레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손이 피투성이인데."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젊은이가 말했다. "그냥 누가 제 자전거 앞에 쳐 놓은 줄에 걸려 넘어진 것뿐입니다. 다만 그 줄이 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만 유념해 주십시오. 불과 이십 분 전까지만 해도 세탁장 옆에서 빨래를 너는 데 쓰던 줄이었으니까요."

"그럴 리가요?"

"판사님, 바로 이곳에서 저는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복판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이죠. 그자는 저를 보고 제 말을 들으며, 매 순간 제 행동을 지켜보고 제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자를 찾아내는 건 판사님 몫이고,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일을 마무리하고 약속드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적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였고, 그래서 그들 쪽에서도 맹렬히 나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둘러싼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봐요, 이봐요, 보트를레…"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 바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크빌롱 반장이 주워서 제가 보는 앞에서 판사님께 건넨 그 문서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글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무슨 특별한 가치라도 있는 건가요?"

"대단히 큰 가치죠. 제 짐작일 뿐이고, 솔직히 어떤 증거에도 근거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서를 해독하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 이야기로 돌아오지 않으려고요."

보트를레는 피유 씨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우리 말을 엿듣고 있어요… 바깥에서요."

모래가 밟히는 소리가 났다. 보트를레는 창가로 달려가 몸을 내밀었다.

"이제 아무도 없네요… 하지만 화단이 밟혔어요… 발자국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군요."

그는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보십시오, 예심판사님. 적은 이제 조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릅시다. 그들이 제가 말하는 걸 막으려 하니, 어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펼친 채로 눌러 두었다.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이 종이에는 점(.)을 빼면 숫자뿐입니다. 그리고 첫 세 줄과 다섯 번째 줄—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이것뿐인데, 네 번째 줄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이 줄들에 있는 숫자 중 5보다 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숫자가 다섯 모음 중 하나를, 그것도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과를 적어 봅시다."

그는 별도의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e.a.a..e..e..a..a.a...e.e..e.oi.e..e..ou..
e.o...e..e.o..e.ai.ui..e..eu.e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이걸로는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 암호의 열쇠는 아주 쉬운 동시에—모음을 숫자로, 자음을 점으로 바꾸기만 했으니까요—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매우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충분히 난해하군요."

"한번 풀어 봅시다. 두 번째 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이제 중간의 점들을 자음으로 바꿔 보면, 시행착오 끝에, 그 모음들을 논리적으로 받쳐 줄 수 있는 자음들로는 단 하나의 단어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바로 'demoiselles(아가씨들)'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지브르 양과 생베랑 양을 가리키는 것이겠군요?"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 줄 한가운데에서도 끊긴 부분이 하나 더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줄의 첫머리에 같은 작업을 해 보면, 두 이중모음 'ai'와 'ui' 사이에서 점을 대신할 수 있는 자음은 'g'뿐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어의 첫머리 'aigui'를 만들고 나면, 이어지는 두 점과 끝의 'e'를 더해 'aiguille(바늘)'라는 단어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일입니다."

"과연… '바늘'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군요."

"끝으로 마지막 단어인데, 모음이 셋, 자음이 셋 있습니다.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거치며 글자를 하나씩 차례로 대입해 보고, 첫 두 글자가 자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니 네 단어가 들어맞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fleuve(강)', 'preuve(증거)', 'pleure(울다)', 'creuse(속이 빈)' 말이죠. 이 가운데 '강', '증거', '울다'는 바늘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배제하고, 'creuse(속이 빈)'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속이 빈 바늘(aiguille creuse)'이 되는군요. 해답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트를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제 생각엔 '속이 빈 바늘(aiguille creuse)'이라는 이 두 단어의 수수께끼 같은 결합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더 신경 쓰이는 건 문서의 재질, 사용된 종이입니다… 이렇게 약간 오톨도톨한 양피지를 아직도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아빛 색깔도 그렇고… 또 이 접힌 자국들… 네 군데 접힌 곳의 닳은 정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뒤쪽에 있는 붉은 밀랍 자국도 그렇습니다."

그때 보트를레의 말이 끊겼다. 서기 브레두가 문을 열고 들어와 검사장이 갑자기 도착했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피유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 검사장님께서 아래층에 와 계신다고?"

"아닙니다, 예심판사님. 검사장님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암브루메시를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라, 정문 앞으로 나와 만나 주시기를 청하십니다. 한 말씀만 전하실 거라고요."

"이상하군." 피유가 중얼거렸다. "어쨌든… 가서 봅시다. 보트를레, 미안하지만 잠깐 다녀오겠네."

그가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그러자 서기 브레두가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린 뒤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보트를레가 깜짝 놀라 외쳤다. "왜 우리를 가두는 거죠?"

"이야기하기엔 이편이 낫지 않겠소?" 브레두가 쏘아붙였다.

보트를레는 옆방으로 통하는 다른 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깨달았다. 공범은 브레두, 바로 예심판사의 서기였던 것이다!

브레두가 비웃듯 웃었다.

"손가락 다칠 것 없소, 젊은 친구. 이 문 열쇠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창문이 있다!" 보트를레가 외쳤다.

"너무 늦었소." 브레두가 권총을 손에 쥔 채 창문 앞을 막아섰다.

달아날 길은 모두 끊겼다.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토록 잔인하리만치 대담하게 정체를 드러낸 적에 맞서 몸을 지키는 수밖에. 이지도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팔짱을 꼈다.

"좋아." 서기가 중얼거렸다. "이제 짧게 끝내지."

그가 시계를 꺼냈다.

"저 착한 피유 씨가 대문까지 가시겠지. 대문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테고, 검사 같은 건 내 손바닥에 없는 것처럼 거기에도 없을 거야. 그러니 그는 되돌아오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약 4분이 생기는 셈이야. 내가 이 창문으로 빠져나가, 폐허 쪽 작은 문으로 빠져 기다리고 있는 오토바이에 뛰어오르는 데는 1분이면 돼. 그러면 3분이 남지. 그 정도면 충분해."

그는 기묘한 존재였다. 왜소한 몸매에, 아주 가늘고 긴 다리 위에 거대한 상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상체는 거미 몸통처럼 둥글고, 팔은 유난히 길었다. 뼈가 드러난 얼굴과 좁고 낮은 이마는, 그 인물의 고집스럽고 다소 둔한 성격을 말해주었다.

보트를레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말하시오. 무엇을 원하시오?"

"그 문서요. 사흘째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소."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들어왔을 때, 네가 그걸 지갑에 넣는 걸 봤거든."

"그 다음은?"

"그 다음? 너는 얌전히 굴겠다고 약속해야 해. 너희 때문에 성가셔 죽겠어. 우리한테 손대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우리도 인내심이 바닥났어."

브레두는 한 발짝 다가섰다. 권총은 여전히 젊은이를 향해 겨누고 있었다.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각 음절을 찍어 누르듯 말했다. 그 말투에는 놀라울 만큼의 기세가 담겨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미소는 잔인했다.

보트를레는 오싹했다. 위험을 느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그는 무자비한 적, 맹목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힘 앞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 다음은?"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나왔다.

"그 다음? 아무 일도 없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는 잊어줄 거야…"

침묵이 흘렀다. 브레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 결정해. 어서, 친구,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더 강해… 빨리, 그 종이를 내놔."

이지도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신경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앞 20센티미터 지점에서 권총의 작고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방아쇠를 누르는 구부린 손가락에 눈에 띄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단 한 번만 더 힘을 주면 그만이었다.

"종이." 브레두가 다시 말했다. "안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보트를레가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서기에게 건넸다. 서기는 그것을 급히 낚아챘다.

"훌륭해! 이제야 제법 말이 통하는군. 확실히 너랑은 뭔가 해볼 만하겠어… 좀 겁이 많긴 해도 상식은 있군. 동무들에게 말해 두지. 자, 난 간다. 잘 있어."

그는 권총을 다시 집어넣고 창문 손잡이를 돌렸다.

복도에서 소리가 울렸다.

"잘 있어." 그가 다시 말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손짓 한 번으로 지갑을 확인했다.

"빌어먹을…." 그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종이가 없잖아… 날 속였구나."

그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두 번 울렸다. 이지도르도 이번엔 권총을 집어 들고 쏘고 있었다.

"빗나갔군, 친구." 브레두가 외쳤다. "손이 떨리는군… 무섭지…"

두 사람은 맞붙어 마룻바닥을 뒹굴었다.

문에서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도르는 금세 힘을 잃고 상대에게 제압당했다. 끝이었다. 그의 머리 위로 칼을 쥔 손이 치켜올랐다가 내리꽂혔다.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불타올랐다. 그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쳤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누군가 뒤지면서 그 문서를 빼내 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는 내리감긴 눈꺼풀의 장막 너머로, 창문 난간을 넘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이튿날 아침, 아브르메시 성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들 — 예배당의 속임수, 아르센 뤼팽과 레이몽드의 시체가 발견된 일, 그리고 예심판사의 서기 브레두에 의한 보트를레 살해 — 을 상세히 보도한 바로 그 신문들이, 동시에 다음 두 가지 새 소식도 전했다.

가니마르의 실종, 그리고 도버행 기차를 타려던 헐록 숌즈가 런던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납치당한 사건이었다.

이제 드디어 뤼팽 일당이 재기했다. 열일곱 소년의 놀라운 기지로 잠시 무너졌던 그들을, 이제 다시 공격 태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첫 공격부터 전선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뤼팽의 가장 큰 적들이 사라졌다. 숌즈와 가니마르가 제거된 것이다. 보트를레도 전장에서 벗어났다.

이제 저들 같은 적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4장

여섯 주가 지난 어느 저녁, 나는 하인에게 휴가를 주어 내보냈다. 그날은 7월 14일 전날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무더위였다. 밖으로 나갈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고 작업용 램프를 켠 채, 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아직 신문을 읽지 않았기에, 나는 신문을 펼쳐 훑어보기 시작했다.

물론 신문에는 아르센 뤼팽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가엾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암살 미수의 희생자가 된 이후로는, 하루도 아브르메시 사건이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매일 그 사건을 다루는 고정란이 따로 마련될 정도였다.

이토록 숨 가쁘게 이어지는 사건들과 뜻밖의 반전, 당혹스러운 전개들이 대중의 신경을 이렇게까지 자극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결국 피유 씨는 갸륵할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부차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고는, 그 잊지 못할 사흘 동안 젊은 조언자 보트를레가 펼친 활약을 기자들에게 털어놓았다. 덕분에 사람들은 더없이 과감한 추측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범죄 전문가와 기술자들, 소설가와 극작가들, 법관들과 전직 치안국장들, 은퇴한 레코크 씨들, 그리고 풋내기 헐록 숌즈들까지, 저마다 자기 이론을 세우고 장황한 기사로 풀어냈다. 저마다 수사를 다시 짚어 보고 보충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아이, 즉 장송 드 사이리 고등학교 수사학반 학생인 이지도르 보트를레의 말에 기반하고 있었다.

사실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진실의 요소들이 이미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미스터리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르센 뤼팽이 숨어들어 죽음의 고통을 겪은 은신처가 어디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의사 델라트르는 늘 직업상의 비밀을 내세워 어떤 증언도 거부했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결국 털어놓고 말았다 — 그리고 그 지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떠벌렸다. 그가 끌려간 곳은 분명 어느 지하 납골당이었고, 그곳에는 공범들이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소개한 부상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납골당에서 에티엔 드 오드레즈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수사 결과 이 에티엔 드 오드레즈가 틀림없는 아르센 뤼팽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부상자가 곧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한층 더 뒷받침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뤼팽이 죽고, 손목에 차고 있던 이름 팔찌(gourmette) 덕분에 생베랑 양의 시체까지 확인되자, 비극은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끝나지 않았다. 보트를레가 그 반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젊은이의 말 한마디에 미스터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현실의 증언도 보트를레의 단언을 이기지 못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를 그가 멋지게 설명해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디에프의 의사들이 발표하는 건강 상태 보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백작이 환자를 맡긴 의사들이었다. 처음 며칠간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졌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해했던가! 그러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신문들이 알린 아침에는 또 얼마나 환호했던가!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도 군중을 열광시켰다. 전보로 급히 불려온 늙은 아버지가 그를 간호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가슴 뭉클해했고, 부

상자의 머리맡에서 여러 밤을 지새운 수잔느 드 제브르 양의 헌신에 감탄했다.

그 뒤로는 빠르고 기쁜 회복기가 이어졌다. 드디어 모든 것을 알게 될 참이었다! 보트를레가 피유 씨에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리고 범인의 칼이 미처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막아 버린 그 결정적인 말들을 말이다!

그리고 사건 그 자체를 넘어, 사법 당국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파헤칠 수 없었던 것들까지 모두 밝혀질 터였다.

보트를레가 풀려나 상처도 다 나으면, 여전히 상테 형무소에 갇혀 있는 아르센 뤼팽의 수수께끼 같은 공범, 하링턴 씨에 대해서도 무언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터였다.

또한 그 대담함이 실로 경악스러웠던 또 다른 공범, 서기 브레두가 범행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었다.

보트를레가 풀려난 지금이야말로, 가니마르의 실종과 숌즈 납치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볼 절호의 기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두 번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영국 탐정들이든 프랑스 동료들이든, 이 문제에 관해 단서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오순절 날인 그 일요일, 가니마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월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섯 주가 지나도록, 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런던. 오순절 연휴 월요일 오후 네 시. 헐록 숌즈가 역으로 가기 위해 마차(cab)에 올라탔다.

그런데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다시 내리려 했다. 아마도 위험을 미리 알아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두 사내가 마차 좌우로 기어올라 그를 쓰러뜨리고는 둘 사이에, 아니 차 안이 워낙 좁아 둘 밑에 깔아 눌렀다. 그것도 미처 끼어들 틈조차 없던 열 명의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였다.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그 이후는?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보트를레를 통해서라면, 그 신비한 종이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서기 브레두가 칼로 찔러가며 되찾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종이 말이다.

기암성. 수많은 오이디푸스들이 숫자와 기호에 몸을 숙이고 그 의미를 찾으려 애썼던 바로 그 문제 말이다.

기암성! 두 단어의 놀라운 조합이었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종이가 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

기암성! 이것이 하찮은 표현이었을까, 잉크로 종이를 더럽히는 학생의 수수께끼였을까? 아니면 모험가 뤼팽의 대모험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두 마법의 단어였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곧 알게 될 참이었다. 며칠 전부터 신문들은 보트를레가 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싸움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복수에 불타는 그 젊은이 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참이었다.

마침 큰 글씨로 적힌 그의 이름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랑 주르날>지는 머리기사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싣고 있었다.

"본지는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로부터 그의 폭로를 가장 먼저 실을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내일 수요일, 사법 당국이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랑 주르날>은 암브뤼메지 비극에 관한 진실 전부를 공개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친애하는 친구?"

나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 흠칫 놀랐다. 바로 옆 의자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으로 무기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전혀 해롭지 않아 보였다. 나는 자신을 가다듬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젊은 남자였다. 단단한 인상의 얼굴에 긴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수염은 약간 붉은빛이 돌며 두 개의 짧은 끝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영국 신부의 소박한 복장을 연상시켰다. 전체적으로 그의 모습은 엄숙하고 진지해서 존경을 자아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르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정말 이상하군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중 한 명… 아주 특별한 종류의 친구요…”

나는 그의 팔을 다급히 붙잡았다.

"거짓말이오!… 거짓말이오!… 아니,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럴 리 없소…"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 그 사람을 떠올리시는 거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웃음소리! 그 젊고 맑은, 유쾌한 빈정거림으로 나를 그토록 자주 즐겁게 해주던 웃음소리! 나는 오싹 전율했다.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아니오." 나는 일종의 공포에 사로잡혀 항변했다. "그럴 리가 없소…"

"내가 죽었으니 나일 리 없다, 게다가 당신은 죽었다 돌아온 유령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것도 등 뒤에서 날아온 총알에, 그것도 한 어린 아가씨의 손에 죽다니! 정말이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군요. 내가 그런 최후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당신이었군요!"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으면서도 잔뜩 감격한 채 더듬거렸다. "정말 당신이었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겠소…"

그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안심이군요. 제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단 한 사람이 오늘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모습의 저를 본 사람은 누구든 훗날 제 본모습을 마주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하기야 제게 본모습이란 게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가 더는 목소리를 꾸미지 않자,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알아챘다. 눈빛도, 얼굴 표정도, 몸가짐도, 그리고 그가 뒤집어쓴 겉모습 너머의 그 사람 자체까지 모두 되찾았다.

"아르센 뤼팽."

나는 중얼거렸다.

“네,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늘의 나라에서 돌아온, 단 한 명뿐인 뤼팽이죠. 묘지 구석에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온전한 생으로, 온전한 의지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호의와 특권만을 베푼 이 세상에서, 그 행복한 독립을 누릴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나도 함께 웃었다.

“그래, 정말 당신이야.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경쾌하군요. 축하합니다.”

나는 그의 지난번 방문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 방문은 저 유명한 왕관 사건, 깨진 약혼, 소냐 크리슈노프와의 도주, 그리고 그 젊은 러시아 여인의 끔찍한 죽음에 뒤이은 것이었다. 그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아르센 뤼팽을 보았다. 그는 나약하고 풀이 죽은 채, 울어서 지친 눈으로 약간의 연민과 다정함을 구하고 있었다…

"그 얘긴 그만둡시다." 그가 말했다. "지난 일은 이미 멀어졌소."

"그건 일 년 전 일이오." 내가 짚었다.

"십 년 전 일이오." 그가 잘라 말했다. "아르센 뤼팽의 세월은 남들의 열 배로 치니까."

나는 더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요?"

"이런, 다들 그러듯 문으로 들어왔지. 그러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응접실을 가로질러 발코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요."

"좋소. 그런데 문 열쇠는?"

“나한테는 문이 없잖아요. 알다시피요. 당신 집이 필요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물러날까요?”

“아니요, 전혀요. 당신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은 흥미진진할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네, 열 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열 시입니다. 전보가 도착했다면, 상대는 곧 올 겁니다.”

현관 종소리가 울렸다.

“뭐라고 했나요? 아,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도대체 뤼팽은 누구와 만나기로 한 걸까? 나는 어떤 드라마틱하거나 코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 뤼팽 자신조차 흥미진진하다고 여길 만큼, 그 상황은 분명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키가 크고 마른 얼굴이 창백한 젊은이를 앞에 내세우며 물러섰다.

뤼팽은 말없이, 그리고 나를 어리둥절하게 할 만큼 진지한 몸짓으로 모든 전등을 켰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자 두 남자는 서로를 깊이 응시했다. 타오르는 눈빛으로 온 힘을 다해 서로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무겁고 침묵이 흐르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 새로 온 이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방금 전, 최근 발표된 사진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정체를 눈치채려던 찰나, 뤼팽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이지도르 보트를레 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다.

"보트를레 씨, 먼저 제 편지를 받고 이 만남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폭로를 미뤄주신 데 대해, 그리고 이렇게 흔쾌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트를레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토록 흔쾌히 응한 것은 무엇보다 당신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편지에 담긴 위협은 더욱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위협이 저 자신이 아니라 제 아버지를 겨눈 것이었으니까요."

"글쎄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고, 가진 수단은 써먹어야 하는 법이죠." 뤼팽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브레두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은 걸 보고, 저는 당신이 자신의 안전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당신의 아버지였죠… 당신이 끔찍이 아끼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줄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보트를레가 수긍했다.

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들이 응하자, 뤼팽은 그 특유의 알 듯 말듯한 빈정거림이 밴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보트를레 씨, 제 감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도 사과만큼은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사과라니요? 대체 무슨 일로요?"

"브레두가 당신에게 저지른 난폭한 짓에 대해서요."

“사실 그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소. 뤼팽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칼날을 휘두르다니…”

“그건 제 뜻이 아니었소. 브레두라는 자는 새로 영입한 인물이오. 제 동료들은 우리 일을 맡은 동안, 수사를 주도하던 판사의 서기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소.”

“당신 동료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소.”

“맞소. 브레두는 특별히 당신 곁에 배치된 인물이었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소. 하지만 초보자가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 탓에, 그는 지나친 열정으로 제 계획을 어기며 제멋대로 당신을 칼로 찌르는 실수를 저질렀소.”

“아, 그것은 작은 불행일 뿐이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도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위해 한마디 하자면, 그는 당신의 예상치 못한 신속한 수사에 허를 찔린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몇 시간만 더 말미를 주셨던들, 이 용서받지 못할 습격은 면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마도 가니마르 형사와 헐록 숌즈와 똑같은 운명을 겪는 영광을 누렸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뤼팽이 더욱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면 저는 당신의 부상이 제게 안긴 잔혹한 고통을 겪지 않았겠죠. 맹세컨대 저는 그때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도 당신의 창백한 얼굴은 제게 쓰라린 가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를 원망하지는 않으시죠?"

"당신이 조건 없이 저에게 몸을 맡기신 것, 그 자체가 신뢰의 증거입니다." 보트를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만약 제가 가니마르 형사의 친구들을 몇 명 데려왔다면, 그건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뢰의 표시가 모든 것을 상쇄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한 걸까?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두 남자 사이의 대립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뤼팽과 숌즈가 북역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두 싸움꾼의 위압감 넘치는 태도, 예의 바른 태도 뒤에 숨겨진 자존심의 충돌, 그리고 서로에게 가했던 날카로운 일격과 위장 공격,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떠올랐다.

여기서는 사정이 달랐다. 뤼팽은 변함이 없었다. 전과 똑같은 전술, 그리고 비웃는 듯한 친절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가 부딪친 상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로 적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적수다운 말투나 외모가 전혀 아니었다.

아주 차분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인위적인 침착이 아니라, 진정한 평정심이었다. 매우 정중했지만 과장되지 않았고, 미소 지었지만 비아냥거림이 없었다.

그는 아르센 뤼팽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 대비가 너무도 선명해서, 뤼팽 역시 나만큼이나 당황해 보이는 듯했다.

아니, 분명히 뤼팽은 눈앞의 이 여린 소년을 마주하고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있었다. 장미빛 볼을 가진 소녀 같은 외모,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눈매를 지닌 그 아이 말이다. 여러 차례 나는 뤼팽에게 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망설였고,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했다. 달콤한 말과 과한 애정 표현으로 시간을 끌며 우왕좌왕했다.

그는 또한 무언가 빠진 듯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무엇일까? 어떤 도움일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스스로, 그리고 재빠르게 일어나 문을 열러 갔다.

그는 편지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실례합니다, 선생님들." 그가 물었다.

그는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전보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그는 순식간에 변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이마의 정맥이 핏기 넘치게 부풀어 올랐다. 내가 다시 본 것은 그 운동선수였다. 자신감 넘치는 지배자, 상황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 남자였다.

뤼팽은 전보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고 주먹으로 툭 치며 외쳤다.

"이제, 보트를레 씨. 우리 둘이서 해봅시다."

보트를레는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뤼팽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가면을 벗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예의는 이제 그만둡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적입니다. 적으로서 서로 행동해야 마땅하고, 따라서 적으로서 서로 대해야 합니다."

"거래?" 보트를레가 놀란 어조로 물었다.

"맞아, 거래야. 그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야. 비록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 말을 반복할 거야. 정말 고통스럽지. 상대에게 '거래'라는 말을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하지만 지금 바로 말해두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기회를 놓치지 마. 너의 약속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아니면, 전쟁이야."

보트를레는 점점 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당신 말투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네, 전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상상했어요… 왜 화를 내는 거죠? 왜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대립하게 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적이 되어야 하나요? 적이요… 왜요?"

뤼팽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웃듯 웃었다.

"자네, 표현을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지. 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지난 십 년간, 자네처럼 강력한 상대를 만나 본 적이 없어. 가니마르나 헐록 숌즈와는 아이들을 상대하듯 장난쳤지. 하지만 자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어해야 해. 더 나아가 후퇴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

"그래, 지금 이 순간 자네와 나는 서로 잘 알고 있어. 내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아르센 뤼팽을 이긴 거야. 내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그림자 속에 숨기려던 것을, 자네는 환한 빛 속에 드러냈지. 자네는 내 발목을 잡고, 내 앞길을 막고 있어."

"그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브레두가 자네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해 두는 거야. 자네가 그 말을 꼭 명심했으면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보트를레가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요?"

"평화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그건 즉, 당신은 마음껏 절도질을 하고, 나는 내 공부를 하라는 뜻이군요."

"공부든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그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뤼팽이 그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죠!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비밀을 추측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알릴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저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고, 조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지켜봤습니다. 브레두가 당신을 때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려로, 당신은 그 진실을 미룬 거죠. 하지만 오늘, 그것은 이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한 시간 뒤면 조판이 끝납니다. 내일 아침, 세상에 공개되죠."

"맞습니다."

뤼팽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휘저으며 공기를 가르듯 말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보트를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실릴 겁니다."

드디어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몸싸움을 하듯 부딪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보트를레에게서 갑작스런 에너지가 끓어올랐다. 마치 어떤 불꽃이 그 안에 새로운 감정, 즉 대담함, 자존심, 싸움의 쾌감, 그리고 위기에 대한 흥분을 불태운 듯했다.

뤼팽을 보니, 그의 시선에서 나는 한 결투가가 마침내 원수 같은 상대의 검을 마주했을 때의 희열을 읽을 수 있었다.

"기사 넘겼나?"

"아직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있나? 몸에?"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빼앗겨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럼?"

"기자 한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봉투에 넣어서요. 자정까지 제가 신문사에 가지 않으면, 그가 그걸 조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 이 자식. 모든 걸 다 준비해 뒀군."

뤼팽의 분노가 거품처럼 일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일 만큼 또렷했고, 무서웠다.

보트를레는 비웃듯 웃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승리의 도취에 취해 있었다.

"입 다물어, 꼬마야!" 뤼팽이 고함쳤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냐? 내가 원한다면……."

"세상에, 그가 웃다니!"

그들 사이에 거대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뤼팽이 한 걸음 다가섰다.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보트를레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너는 그랑 저널로 달려가서……"

"기사 한 장을 찢어버려라."

"편집장을 만나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전하라."

"그리고 새로운 기사를 써라. 암브루메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모두가 받아들인 그 버전을 실어야 해."

뤼팽은 내 책상 위에 놓인 쇠자를 집어 들더니, 힘도 들이지 않고 단번에 부러뜨렸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았다.

한 번도 자신의 의지에 맞서는 저항을 겪어 본 적 없는 그였기에, 이 아이의 고집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뤼팽은 두 손으로 보트를레의 어깨를 짓누르며 또박또박 말했다.

"너는 이 모든 걸 하게 될 거야, 보트를레. 네 마지막 발견들로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거기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할 거야. 내가 그러길 원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하니까 너는 그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네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지 않으면요?"

"네 아버지가 오늘 밤 납치될 거야. 가니마르와 헐록 숌즈가 그랬던 것처럼."

보트를레는 미소 지었다.

"웃지 마라… 대답해."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저로서도 무척 괴롭습니다만, 저는 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말하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진실을 향해 말하겠습니다!" 보트를레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기쁨, 아니 그보다 그 절실한 필요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여기, 그것을 직관하고 발견해 낸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발가벗은 채 떨리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 글은 제가 쓴 그대로 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뤼팽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믿게 하려 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납치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금 입을 다물었다.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경계하며 살폈다. 검날은 칼자루까지 깊숙이 맞물려 있었다. 죽음을 부르는 일격이 떨어지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과연 누가 그 일격을 가할 것인가?

뤼팽이 속삭였다.

"오늘 밤 새벽 세 시. 내가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내 친구 두 명이 네 아버지 방에 들어간다. 좋든 싫든 네 아버지를 끌고 나와 가니마르, 그리고 헐록 숌즈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에게 돌아왔다.

"도둑놈아, 내가 대비를 해 뒀다는 걸 모르겠어?" 보트를레가 외쳤다. "내가 그렇게 순진해서,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아버지를 허허벌판 외딴 시골집으로 혼자 돌려보냈을 거라고 생각해?"

젊은이의 얼굴을 일깨운 그 냉소적인 웃음이야말로 정말 멋졌다. 입가에 맺힌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뤼팽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스며든 웃음이었다.

그리고 한 번에 상대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그 대범한 반말투라니!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보라, 뤼팽. 네 가장 큰 결점은 네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야. 넌 패배를 인정했지? 장난이냐? 넌 끝내 항상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름의 작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잊었나 보군. 내 계획은 아주 간단해, 좋은 친구."

그가 말하는 모습은 정말 듣기 좋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방 안을 오갔다. 사슬에 묶인 맹수를 약 올리는 개구쟁이처럼 당당하고도 천연덕스러운 태도였다.

정말이지 이 순간 그는 위대한 모험가의 모든 희생자를 대신해 가장 처절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맺었다.

"뤼팽, 내 아버지는 사부아에 없어. 프랑스 반대편 끝, 큰 도시 한복판에 있지. 우리 동지 스무 명이 지키고 있어. 우리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거든. 자세히 알고 싶어? 아버지는 셰르부르에 있어. 병기창 직원 한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지. 잊지

마, 그 병기창은 밤이면 문이 잠기고, 낮에도 허가증을 받아 안내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는 뤼팽 정면에 멈춰 섰다. 그러고는 친구에게 익살맞게 얼굴을 찡그려 보이는 아이처럼 그를 약 올렸다.

"어때, 선생?"

몇 분 전부터 뤼팽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행동에 나서려 했을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사납고 격렬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결말은 단 하나뿐임을 알았을 것이다. 적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붕괴. 그의 손가락이 움찔 굳었다. 나는 한순간 그가 보트를레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때, 선생?" 보트를레가 다시 물었다.

뤼팽은 탁자 위에 놓인 전보를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내밀며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자, 애송이, 이거 읽어 봐."

보트를레는 그 부드러운 동작에 문득 마음이 흔들려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그는 종이를 펼쳤고, 곧장 고개를 들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넌 첫 단어는 늘 잘 알아보더군." 뤼팽이 말했다. "전보의 첫 단어, 그러니까 발송지 이름 말이야. 봐… 셰르부르."

"그래… 그래…" 보트를레가 더듬거렸다. "그래… 알겠어… 셰르부르… 그래서?"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해. '소포 탈취 완료. 동지들은 그를 데리고 떠났으며 아침 여덟 시까지 지시 대기.'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어. 대체 뭐가 그렇게 알쏭달쏭하다는 거야? '소포'라는 단어? 흥! 설마 '보트를레 부친'이라고 쓸 수야 없잖아. 그럼 또 뭐가 문제지? 작전이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스무 명의 호위병에도 아랑곳없이 네 아버지를 셰르부르 병기창에서 빼낸 그 기적 말이냐? 흥, 그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아무튼 소포는 무사히 발송됐어. 어떻게 생각하니, 애송이?"

이지도르는 온몸의 힘을 다해, 격해진 노력으로 간신히 체면을 꾸려 보려 했다. 하지만 입술의 떨림, 수축하는 턱,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눈빛에서 그의 긴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몇 마디 더듬거리다 말을 멈췄다. 그러다 갑자기 힘을 잃고 주저앉더니,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통곡했다.

"아빠…… 아빠……"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다. 뤼팽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줄 무너짐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무한히 감동적이고, 무한히 순진한 것이었다.

뤼팽은 짜증 섞인 제스처를 취하고 모자를 집었다. 갑작스러운 감성 과잉에 지친 듯했다. 하지만 문턱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흐느낌 소리가 슬픔에 짓눌린 어린아이의 애처로운 하소연처럼 가만히 피어올랐다. 어깨가 비통한 리듬으로 들썩였다. 맞잡은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배어 나왔다.

뤼팽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보트를레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조롱하는 기색은 물론 승자 특유의 그 모욕적인 연민조차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라, 얘야. 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싸움에 뛰어들면 이런 타격은 각오해야 하는 법이야. 최악의 재앙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지… 싸우는 자의 운명이 본디 그런 거란다. 용감하게 견뎌 내야 해."

그러고는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네 말이 옳았어. 봐, 우리는 적이 아니야. 난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처음 본 순간부터 너 같은 영리한 인간에게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갔어… 감탄마저 들었지… 그래서 이 말을 해 주고 싶은 거야… 부디 기분 상해하지 마… 널 상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도 꼭 말해야겠어… 자, 나와 싸우는 건 그만둬…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널 깔봐서 하는 말도 아니야… 하지만 봐… 이 싸움은 너무 기

울어 있어… 넌 몰라… 내가 가진 수단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

자, 네가 그토록 헛되이 풀어 보려 애쓰는 그 기암성의 비밀, 그게 어마어마하고 마르지 않는 보물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이롭고 환상적인 은신처라고… 어쩌면 그 둘 다일 수도 있지… 내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생각해 봐!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깃든 온갖 역량도 몰라… 내 의지와 상상력이 무엇을 시도하고 또 이뤄 내게 하는지를 말이야. 생각해 봐, 내 평생이—태어난 순간부터라고 해도 좋아—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는 걸.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난 죄수처럼 일했고,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리고 끝내 만들어 낸 그 인간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려 애썼지. 그러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건 손에서 빠져나갈 거야… 네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아주 사소한 것… 내가 너 모르게 알맞은 자리에 놓아둔 모래알 한 톨 말이야… 부탁이야, 그만둬… 안 그러면 널 해칠 수밖에 없고, 그건 날 너무 슬프게 해…”

뤼팽이 보트를레의 이마에 손을 얹고 거듭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야, 그만둬. 안 그러면 널 해치게 될 거야. 네가 끝내 빠지고 말 함정이 이미 네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지 누가 알겠니?”

보트를레는 얼굴을 들었다. 더는 울지 않았다. 뤼팽의 말을 듣기는 했을까? 멍한 표정을 보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두세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내릴 결정을 저울질하는 듯, 장단점을 따지고 유리한 가능성과 불리한 가능성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뤼팽에게 말했다.

"제가 기사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이 죽었다는 쪽으로 확인해 주고, 제가 퍼뜨릴 그 거짓 내용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제 아버지를 풀어 주겠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맹세하지. 내 친구들이 네 아버지를 데리고 자동차로 다른 지방 도시로 갔어. 내일 아침 일곱 시, 그랑 주르날의 기사가 내가 요구한 대로 실린다면, 내가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은 네 아버지를 풀어 줄 거야."

보트를레가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인 이상 더 대화를 끌 필요가 없다고 여긴 듯,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를 집어 들고 내게 인사한 뒤, 뤼팽에게도 인사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뤼팽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중얼거렸다.

"가엾은 녀석……"

다음 날 아침 여덟 시, 나는 하인을 시켜 그랑 주르날을 사 오게 했다. 하인은 스무 분이 지나서야 신문을 가져왔다. 이미 대부분의 가판대에서 매진된 뒤였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맨 위에는 보트를레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전 세계 신문들이 그대로 재현했던 그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 몇 줄의 글은, 내가 암브뤼메시 사건, 아니 사실은 두 번의 비극을 어떻게 재구성해 냈는지 그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내 생각에 이런 종류의 작업과 그에 따르는 해설, 즉 추론과 귀납, 분석 따위는 그리 흥미롭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매우 평범하기만 하다.

나는 내 노력의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들의 순서 그대로를 따라가며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해 나갈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 중 일부 사실이 증빙되지 않았고, 내가 가설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눈치챌지도 모른다. 맞다. 하지만 내 가설은 수많은 확실함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 비록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엄격하고 거스름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느껴진다.

샘물은 종종 자갈밭 아래로 사라지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같은 샘이다. 하늘의 푸른빛이 비치는 지점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첫 번째 수수께끼를 꺼내놓는다.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다. 나를 사로잡은 그 수수께끼는 이렇다. 어떻게 뤼팽은, 죽을 만큼 중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돌봄도 약도 음식도 없이 어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사십 일이나 살아남았을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4월 16일 목요일, 새벽 네 시. 아르센 뤼팽은 가장 과감한 절도 행각 한복판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폐허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도망쳤고, 총알 한 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힘겹게 기어 갔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죽을힘을 다해 예배당까지 도달하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곳에는 우연히 알게 된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숨어들 수만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의지로 지하실에 다가갔습니다. 겨우 몇 미터 남은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졌고, 적수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레몽드 드 생베랑 양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서막, 아니 첫 장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어지는 사건들이 모든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추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소녀 발치에는 상처 입은 남자가 엎드려 있다. 고통에 지친 그는 2분 뒤면 잡히게 될 것이다.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다치게 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 남자를 또다시 넘길 것인가?

만약 그 남자가 장 다발의 살인범이라면, 그녀는 운명이 흐르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삼촌인 제브르 백작이 저지른 정당한 살인에 대한 진실을 짧은 말로 전한다.

그녀는 그 말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다. 하인 빅토르는 작은 문을 지키고 있고, 다른 하인 알베르는 거실 창가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다치게 한 그 남자를 넘길 것인가?

거부할 수 없는 연민이 그녀를 움직였다. 모든 여성이 이해할 그 감정이었다.

뤼팽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몇 가지 동작으로 상처를 돌봤다. 피가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가 건네는 열쇠로 예배당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물러났다. 알베르가 도착했다.

만약 그 순간, 혹은 그 직후 몇 분 동안 예배당을 조사했다면 어땠을까? 뤼팽은 힘을 회복할 시간도, 돌판을 들어 올리고 지하실 계단으로 사라질 시간도 없었다. 그는 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사는 여섯 시간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것도 매우 피상적으로였다.

뤼팽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했을까? 바로 그를 죽일 뻔했던 그 여자가.

이제 생베랑 양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공범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경찰에 넘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숨기는 데 일조한 그 은신처에서 부상자가 죽지 않도록 계속 그를 보살펴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의 여성적 직감이 그녀에게 그 일을 의무로 지운다면, 동시에 그 일을 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녀는 세심한 기교를 모두 갖추고 있고,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

예심판사에게 아르센 뤼팽의 가짜 인상착의를 준 것도 바로 그녀다. (이 부분에서 두 사촌 여자의 의견이 달랐던 점은 기억나리라.)

분명히 그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마부로 분장한 뤼팽의 동료를 알아챘다. 그에게 경고를 보낸 것도, 긴급한 작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도 그녀다.

아마도 모자를 바꿔치기한 것도 그녀일 것이다. 자신을 지목하며 협박하는 그 유명한 쪽지를 쓰게 한 것도 그녀다.

그런데 어찌 그 여자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녀가, 제가 예심판사에게 첫인상을 털어놓으려던 순간에, 전날 덤불숲에서 저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필뢰유 판사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죠.

물론 이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제 주의를 일깨워, 거짓임을 제가 아는 그 비난을 제게 퍼붓는 바로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벌고 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녀가 사십 일 동안 뤼팽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고 약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빌의 약사에게 물어보면, 생베랑 양을 위해 조제한 처방전을 보여 줄 것입니다. 끝으로 그녀가 환자를 보살피고, 상처를 싸매고, 밤새 지켜보며, 그를 완치시켰습니다."

드디어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가 해결되었다. 동시에 그 비극의 전모도 드러났다.

아르센 뤼팽은 성 안에서, 바로 곁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었다. 그 도움은 그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그는 살아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한다. 이 문제를 파고드는 과정이 나의 행로를 이끈 실마리가 되었고, 이는 암브르메지에서의 두 번째 비극에 해당한다.

왜일까? 뤼팽은 살아 있고, 자유로우며, 다시금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전처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죽었다는 인상을 법과 대중에게 강요하기 위해 절박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그 노력은 날로 거세지고, 나는 그 벽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생트베랑 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녀가 실종된 뒤 신문들이 실었던 사진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뤼팽은 사십 일 동안 이 아름다운 여인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없을 때는 그녀의 존재를 갈구했고, 있을 때는 그녀의 매력과 우아함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자신에게 몸을 기울일 때면 신선한 숨결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하여 뤼팽은 자신을 간호하던 그녀에게 반해 버렸다. 감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했고, 존경은 열정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구원이자

눈의 즐거움이었고, 외로운 시간의 꿈이자 빛이자 희망이었으며,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를 존중한 나머지, 뤼팽은 그녀의 헌신을 이용하지도, 동료들을 지휘하는 데 그녀를 부리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 무리의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흔들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누그러졌다.

생베랑 양은 자신을 모욕하는 그 사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방문이 점점 덜 필요해지자 발길을 뜸하게 하더니, 그가 완치된 날 끝내 방문을 끊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고통에 미칠 듯 괴로워하며 끔찍한 결단을 내린다.

그는 은신처를 빠져나와 계획을 세우고, 6월 6일 토요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소녀를 납치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납치 사건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 수사도, 추측도, 심지어 희망마저 잘라 버려야 해. 생트베랑 양은 죽은 것으로 처리될 거야. 살해 사건을 위장하고 수사당국에 증거를 제시하는 거지. 범죄는 명백해.

게다가 미리 예견된 범죄, 동료들이 예고했던 범죄, 우두머리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저지른 범죄야. 그리고 바로 그 점이 — 이런 발상이

얼마나 기발한지 보라고 — 바로 그 점이, 뭐랄까, 그 죽음을 믿게 만드는 미끼가 되는 거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확신을 강요해야 해. 뤼팽은 내 개입을 예상하고 있어. 내가 예배당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지하실을 발견하리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지하실이 비어 있으면, 그 모든 장치가 무너져 내릴 테니까."

"그 지하실은 비어 있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트베랑 양의 죽음은 바다가 그 시신을 되돌려 줄 때에만 비로소 확정된다."

"바다는 생트베랑 양의 시신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 어려움이 엄청나다고? 넘을 수 없는 이중의 장벽이라고?"

"그렇다. 뤼팽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나 그렇다. 하지만 뤼팽에게는 아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나는 예배당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지하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뤼팽이 숨어든 그 굴속으로 내려갔다. 그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

뤼팽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황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가능성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직감 때문이었고, 이후에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제 그 속임수는 무의미해졌고, 모든 계책은 헛수고가 되었다. 나는 곧장 깨달았다. 피크로 흔들린 거대한 돌덩이는 매우 기묘할 정도로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사소한 충격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떨어지면 거짓 아르센 뤼팽의 머리를 으깨어 놓아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30분 뒤, 생트베랑 양의 시체가 디에프의 바위 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생트베랑 양의 시체로 추정되는 주검이었다. 팔에 찬 팔찌가 그 소녀의 팔찌 가운데 하나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이 신원을 확인해 주는 유일한 단서였다. 시체는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 내고 이해했다. 며칠 전, 디에프의 『비지 드 디에프』 지를 읽다가 한 가지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엔베르메에 잠시 머물던 젊은 미국 부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밤 그들의 시체는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장 엔베르메로 달려갔다. 현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체 소실 부분만은 예외였다. 두 희생자의 친형제들이 직접 와서 시체를 인수해 갔고, 공식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그들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르센 뤼팽과 그 일당들이었다.

"결국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르센 뤼팽이 그 소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죠.

그가 비밀을 지키려다 보니,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생트베랑 양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두 시체를 훔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가 억누르고 싶은 진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구도요? 아닙니다. 세 명의 적이라면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곧 도착할 가니마르 형사, 해협을 건너 올 헐록 숌즈,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저 자신 말입니다. 여기엔 세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위험을 제거합니다. 가니마르를 납치하고, 헐록 숌즈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브레두를 시켜 저에게 칼로 일격을 가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뤼팽은 왜 기암성의 문서를 빼앗는 데 그토록 집요했을까요? 설마 그 문서를 되찾는다고 해서, 다섯 줄로 이루어진 그 글이 제 기억에서 지워지리라 여겼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일까요? 종이 자체의 성질이나 다른 어떤 단서가 제게 무언가 정보를 줄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어쨌든 이것이 암브뤼메지 사건의 진실이다. 내가 제시하는 설명에서 가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가설이 큰 역할을 했으니까.

하지만 뤼팽과 맞서기 위해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기다린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고, 뤼팽이 미리 준비해 둔 증거를 발견해 오히려 목표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내 가설이 모든 면에서 옳았음이 입증되리라 믿는다.

결국 보트를레는 아르센 뤼팽의 손아귀에 잠시 잡혔고, 아버지의 납치로 혼란스러웠으며 패배를 받아들인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너무도 아름답고 기이했다. 그가 제시할 증거는 너무도 논리적이고 결정적이었다. 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다. 온 세상이 그의 폭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기사를 발표한 날 저녁, 신문들은 보트를레 부친의 납치를 보도했다. 이지도르는 오후 세 시에 셰르부르에서 도착한 전보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5장

강타에 보트를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기사를 실어 보냈지만, 그것은 모든 신중함을 내던지게 만드는 거역할 수 없는 충동에 불과했다.

그는 납치가 가능할 리 없다고 믿었다. 그의 방비는 너무도 완벽했다.

셰르부르의 친구들은 단지 보트를레 부친을 지키라는 지시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동선을 주시하고, 결코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하며, 편지조차 미리 개봉해 본 뒤에야 전달해야 했다.

위험은 없었다. 뤼팽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을 벌려는 뤼팽이 상대를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그 충격은 거의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 타격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오직 한 가지 생

각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떠나라, 그곳으로 가라,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공세에 나서라.

그는 셰르부르에 전보를 보냈다. 저녁 여덟 시쯤, 그는 생라자르 역에 도착했다. 몇 분 후, 급행 열차가 그를 태워 떠났다.

그가 유명한 편지를 알게 된 것은 한 시간 뒤였다. 그는 플랫폼에서 산 저녁 신문을 무의식적으로 펼쳤고, 그 안에서 뤼팽이 자신의 아침 기사를 간접적으로 반박한 그 편지를 발견했다.

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인물됨이—분명 더 영웅적인 시대였다면 완전히 눈에 띄지 않았을 이 인물이—비겁함과 평범함이 만연한 우리 시대에 이르러 조금이나마 두드러진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병적인 호기심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그것은 파렴치한 사생활 침해가 된다.

만약 사생활의 벽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을 지켜줄 것은 무엇일까?

진실의 이익을 운운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 헛된 구실일 뿐이다. 이미 진실은 밝혀졌고, 나는 공식적인 시인서를 쓰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네, 생트베랑 양은 살아 있다. 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네, 그녀에게서 사랑받지 못해 슬프다. 네, 어린 보트를레의 조사는 정밀하고 정확하기 그지없다. 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더 이상 수수께끼도 없다. 더 이상 신비도 없다.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인가?…

마음 깊은 곳까지 찔린 채, 가장 잔인한 정신적 상처에서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는 내가 간절히 호소한다. 제발, 내 가장 사적인 감정과 가장 은밀한 희망을 더 이상 세상의 악의에 내던지지 말아 달라.

나는 평화를 원한다. 생트베랑 양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리고 가난한 친척이라는 처지 탓에 그녀가 삼촌과 사촌에게서 받아야 했던 천 가지 사소한 모욕—사실 이 점은 아직 언급된 바 없지만—그 기억을 그녀에게서 지워 주기 위해, 나는 그 평화가 필요하다.

생트베랑 양은 이 끔찍한 과거를 잊을 것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든 가장 손에 넣기 어려운 보물이든, 나는 그녀의 발치에 바치겠다. 그녀는 행복할 것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나는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무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의 적들에게 올리브 가지를 건넨다.

물론 그들에게 선의로 경고도 잊지 않는다. 그들의 거절이 자신들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하링턴 씨에 대해 한 마디 더 덧붙이자.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인물은 미국 억만장자 쿨리의 비서로, 유럽 전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라는 임무를 받은 착한 청년이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내 친구, 에티엔 드 오드르와, 즉 아르센 뤼팽,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하링턴은 그즈음 지브르 후작이 원본과 바꿀 복사본을 준비한 채로 네 장의 루벤스 작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내 친구 오드르와가 지브르 후작을 설득해 샤플디외 성을 팔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장담했다.

오드르와 측은 성심성의껏, 하링턴 측은 사랑스러운 순진함으로 협상이 이어졌다. 드디어 샤플디외 성의 루벤스 그림과 조각 석재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고, 하링턴은 감옥에 갇히는 날이 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단 세 가지다. 속임수에 넘어간 불쌍한 미국인을 석방하고, 자신의 비서가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해 항의조차 하지 않은 쿨리 억만장자를 비난하며, 미리 받은 50만 프랑을 '무척 매력적이지 못한' 쿨리로부터 받아 공적인 도덕을 지키고 있는 내 친구 에티엔 드 오드르와, 즉 나를 축하해야 한다.

"이 편지가 길어 죄송합니다, 친애하는 편집장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이 편지 내용을, 그가 기암성의 문서를 연구할 때만큼이나 꼼꼼하게 살폈을 것이다. 그는 아주 명확한 한 원칙에 입각

했다. 뤼팽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거나, 언젠가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될 명백한 동기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의 재밌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편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로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실패를 고백했을까?

그 답을 거기서 찾아야 할까, 아니면 하링턴 씨와 관련된 설명 속에서 찾아야 할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 행간 너머, 이 모든 단어들 뒤에서 찾아야 할까? 그 단어들의 겉보기 의미는 어쩌면 작고 짓궂으며 교활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생각을 슬쩍 심어 놓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객차 안에 틀어박힌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그를 짓눌렀다. 그 편지는 불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 편지가 그를 위해 쓰인 것처럼, 그리고 그를 오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이라는 매우 선명한 감각을 느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모호하고 정의할 수 없는 투쟁의 수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수로 인해 사라진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처럼 불균형한 결투를 계속하는 것이 광기 아닌지, 불안에 떨며 자문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었는가? 미리부터 뤼팽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가?

잠시 흔들렸을 뿐이다.

아침 여섯 시, 몇 시간의 잠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객차에서 내려선 그에게는 다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승강장에서는, 보트를레 부친에게 숙소를 제공해 준 군항 직원 프로베르발이 딸 샬로트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두 살에서 열세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어떻게 된 거야?" 보트를레가 외쳤다.

이 선량한 남자가 신음하기 시작하자, 그는 곧바로 말을 끊고 그를 옆의 작은 술집으로 데려갔다. 커피를 시키고는, 상대가 한마디도 곁가지로 새지 못하게 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납치당한 건 아니지? 그럴 순 없는 일이잖아?"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사라지셨습니다."

"언제부터?"

"모릅니다."

"뭐라고?"

"아니요. 어제 아침 여섯 시, 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문을 열었어요. 그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저께만 해도 거기 계셨단 말이지?"

"네. 그저께 그는 방을 한 번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 하셔서, 샬로트가 낮 열두 시에 점심상을, 저녁 일곱 시에 저녁상을 방으로 가져다주었죠."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 일곱 시부터 어제 아침 여섯 시 사이에 사라지셨다는 거군?"

"네. 바로 그 전날 밤이었죠. 다만……"

"다만?"

"글쎄요, 그게…… 밤에는 병기창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료들과 제가 군항 전체를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럼 나갔다는 뜻이지."

"말도 안 돼요. 모든 곳이 경계 중입니다."

보트를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다음은?"

"그 뒤로 저는 마조리티로 달려가서 경찰서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나요?"

"네, 그리고 검찰청의 한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온종일 수색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자 비로소 당신께 전보를 쳤습니다."

"방 안의 이불은 젖혀져 있었나요?"

"방 안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의 물담배통도 제자리에 있었고, 담배도, 그가 읽던 책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책 한가운데에는 당신을 찍은 작은 사진이 끼어 있어 페이지를 열고 있었죠."

"한번 보여 주세요."

프로베르발이 사진을 건넸다. 보트를레는 깜짝 놀라는 듯 손짓했다. 사진 속에는 그가 두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주변에는 나무와 폐허가 우뚝 선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프로베르발이 덧붙였다.

"이 사진이 당신이 아버님께 보낸 마지막 사진일 겁니다. 뒤를 보시면요. 날짜가 적혀 있죠… 4월 3일. 사진작가 이름은 R. 드 발, 그리고 도시 이름은 리옹… 리옹쉬르메르일까요?"

이지도르는 실제로 사진 뒷면을 돌려보며 자신의 필체로 적힌 작은 메모를 읽고 있었다.

R. 드 발 — 3.4 — 리옹.

그는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 사진을 아직 보여 주지 않으셨나요?"

"네, 전혀요… 어제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너무도 자주 하셨거든요!"

다시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프로베르발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는 작업실에 볼일이 있어서요…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군요…"

보트를레는 말을 멈췄다. 그는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못한 채,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고 나서야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시외에서 한 리쯤 떨어진 곳에 '황금 사자' 여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리쯤 떨어진 곳에요."

"발로네스 방면 도로에 있죠?"

"맞습니다. 발로네스 도로에 있죠."

"그렇다면 저는 그 여관이 뤼팽 일당의 본거지였을 거라고 추측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그들이 제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을 테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아버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간 매개자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사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사진 아닙니까?"

"제 사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진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암브뤼메시 폐허에서 찍힌 거죠. 아마 예심판사의 서기가 찍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서기는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 사진이 바로 통행증이자 부적이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그들이 제 아버지의 신뢰를 얻어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누가? 누가 제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함정에 빠지셨어요. 제가 근처에 있고,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며, '황금 사자' 여관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말에 아버지는 그대로 믿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죠?"

"매우 간단합니다. 카드 뒷면에 제 필적을 흉내 내고 약속 장소를 정확히 적은 거죠… 발로네스 도로, 3킬로미터 400미터 지점, 사자 여관. 아버지가 그곳에 오셨고, 그들이 아버지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군요." 프로베르발은 어리둥절한 채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버지가 밤중에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대낮에 빠져나가신 거죠. 약속 장소로 가려고 밤을 기다렸을 뿐이고요."

"하지만, 제기랄, 그저께는 하루 종일 방을 떠나지 않으셨다니까요!"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항구로 달려가세요, 프로베르발. 그저께 오후에 경비를 섰던 사람들 중 한 명을 찾아내십시오… 다만, 여기서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럼 떠나시는 건가요?"

"네. 기차를 다시 타려고요."

"뭐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의 수사는…"

"수사는 끝났소. 알고 싶던 건 거의 다 알아냈으니. 한 시간 후면 세르부르를 떠날 거요."

프로베르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얼이 빠진 얼굴로 보트를레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뒤 모자를 집어 들었다.

"가자, 샤를로트?"

"아니요." 보트를레가 말했다. "저는 아직 몇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소. 그 아이는 제게 맡겨 주시오. 우리끼리 이야기 좀 나누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거든요."

프로베르발은 자리를 떠났다. 보트를레와 어린 소녀는 술집 홀에 단둘이 남았다.

몇 분이 흘렀다. 종업원 하나가 들어와 잔들을 치우고 사라졌다.

젊은이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고, 보트를레는 아주 다정하게 소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소녀는 두세 초 동안 넋이 나간 듯, 숨이 막힌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두 팔로 얼굴을 감싸 안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보트를레는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전부 네가 한 일이지? 중개 역할도 네가 했고, 사진을 가져다준 것도 너 맞지? 시인할 거지, 응?

그리고 그저께 아버지가 방에 계신다고 말했을 때, 사실이 아니란 걸 너는 잘 알고 있었잖아. 아버지가 빠져나가는 걸 도운 게 바로 너였으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누가 돈을 줬겠지… 리본이나 드레스를 사라고 말이야."

그는 샬로트의 팔을 풀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엾은 얼굴이 보였다. 사랑스럽지만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온갖 유혹과 타락에 빠질 운명을 타고난 그런 소녀들의 얼굴이었다.

"됐어, 보트를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그만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않겠다. 다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다오. 그들 중 누군가가 한 말이라도 엿들었는가? 어떻게 납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녀는 즉답했다.

"자동차로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어떤 길을 따라갔나?"

"아,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앞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주고받지 않았나?"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내일 아침 여덟 시에 보스가 저쪽에서 전화할 거야.'"

"저쪽이 어디란 말인가?"

"그게… 제가…"

"생각해 보라. 기억해 내라. 도시 이름이었지, 아닌가?"

"네. 이름이었어요. 성(城) 같은…"

"샤또브리앙?… 샤또티에리?"

"아니요… 아니요…"

"샤또로?"

"그거예요… 샤또로요…"

보트를레는 그녀가 마지막 음절을 다 말하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프로베르발도 아이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아이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문을 열고 역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샤또로요, 부인! 샤또로 가는 표 한 장!"

"르망과 투르를 경유하는 열차로요?" 매표소 직원이 물었다.

"물론이죠… 가장 빠른 길로요… 점심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 아니요…"

"저녁때는요? 밤에 자기 전엔요?…"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파리를 경유해야 해요. 파리행 특급은 여덟 시에 있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보트를레는 그 열차를 잡을 수 있었다.

"자." 보트를레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셰르부르에는 단 한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어."

그는 샬로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리고 갈피를 못 잡으며 가장 추한 배신마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여린 본성의 아이들은, 동시에 진심 어린 충동에도 똑같이 휩쓸리는 법이다. 보트를레는 그녀의 겁먹은 눈빛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치심과 그것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려는 기쁨을 읽어 냈다. 그래서 그는 뤼팽이 암시했던 그 다른 도시가 샤또로가 맞으며, 그곳이 바로 공범들이 뤼팽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던 도시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파리에 도착한 보트를레는 미행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옛 동창 중 한 명을 방문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영국인이었다. 그는

큰 체크무늬 갈색 정장, 반바지, 양모 양말, 여행용 모자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붉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화가의 도구들을 모두 챙겨서 오스테를리츠 역으로 향했다.

저녁에는 이수됭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아침 일곱 시, 그는 샤토루의 우체국에 나타나 파리와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다.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자, 그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저께 같은 시각, 자동차 운전사 복장을 한 한 남자도 파리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이지도르는 반박할 수 없는 증언들을 통해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투르로 가는 길을 따라 리무진 한 대가 부장세 마을을 지나 샤토루 시를 통과한 뒤, 그 너머 숲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었다.

열 시쯤, 한 남자가 모는 캐브리오레가 리무진 옆에 정차했다가, 부잔 강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멀어져 갔다. 이때 운전석 옆에는 다른 한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다.

한편 자동차는 반대 방향을 택해 북쪽, 이수됭 쪽으로 향했다.

이지도르는 캐브리오레의 주인을 쉽게 찾아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마차와 말을 어떤 남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남자가 이튿날 직접 돌려놓았던 것이다.

그날 밤, 이지도르는 자동차가 이수뒹을 그대로 지나쳐 오를레앙, 다시 말해 파리 쪽으로 계속 길을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 보트를레 노인이 근처에 있다는 결론이 더 없이 분명하게 내려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프랑스를 가로질러 오백 킬로미터 가까이 달려와 샤토루에서 전화를 걸고는, 다시 예각으로 꺾어 파리로 가는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엄청난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보트를레 노인을 정해진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곳이 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이지도르는 희망에 몸을 떨며 혼잣말을 했다. '여기서 십 리, 십오 리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가 내가 구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바로 거기 계신다.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계신다.'

그는 곧장 수색에 나섰다. 참모용 지도 한 장을 꺼내 작은 정사각형들로 나눈 뒤, 그 구획을 하나하나 차례로 돌아보았다. 농가에 들어가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교사와 시장, 신부들을 찾아갔으며, 아낙네들과도 수다를 떨었다.

곧 목표에 다다를 것만 같았고, 꿈은 점점 부풀어 갔다. 이제 그가 구해 내고 싶은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뤼팽에게 사로잡힌 모든 이들, 레이몽드 드 생베랑, 가니마르, 어쩌면 헐록 숌즈까지,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다르면, 동시에 뤼팽의 요새 한복판, 곧 그의 소굴에, 그가 온 세상에서 훔쳐 낸 보물들을 쌓아 둔 그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은신처에까지 이르게 될 터였다.

하지만 보름 동안의 헛된 수색 끝에, 그의 열정은 결국 시들기 시작했고, 이내 자신감마저 잃고 말았다.

성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그는 거의 하루아침에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비록 조사 계획은 계속 밀고 나갔지만, 그의 노력이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찾아냈다면 그는 정말로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단조롭고 맥 빠지는 나날이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제브르 백작과 그의 딸이 앰브뤼메시를 떠나 니스 근처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르센 뤼팽이 일러 준 대로 할링턴 씨의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었다는 소식도 접했다.

그는 본거지를 옮겨, 이틀은 라샤트르에서, 이틀은 아르장통에서 지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다. 아버지를 태우고 간 마차는 분명 한 구간만 맡았을 테고, 그 다음 구간은 또 다른 마차가 이어받았을 터였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미 먼 곳에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그는 파리에서 되돌려받은 우표 미부착 편지 봉투에서 필적을 보고 말았다. 그 글씨는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몇 분 동안 그는 너무 동요한 나머지 편지를 뜯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손이 떨렸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혹시 저 지긋지긋한 적이 쳐 놓은 함정은 아닐까?

그는 단숨에 봉투를 뜯었다. 틀림없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다. 필적은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글씨의 온갖 특징과 버릇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글이 네게 닿을까? 나는 그것을 믿기가 두렵구나.

납치되던 날은 밤새도록 자동차로 이동했고, 아침에는 마차로 갈아탔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에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었으니까. 나를 가두어 둔 성은 그 건축 양식과 정원의 초목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 중부에 있는 듯하다. 내가 쓰는 방은 3층에 있는데, 창문이 두

개 달렸고 그중 하나는 등나무 덩굴 발에 거의 가려져 있다. 오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이 정원을 자유로이 거닐 수 있지만, 감시는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는다.

혹시 몰라 이 편지를 써서 돌에 묶어 둔다. 언젠가 담장 너머로 던질 수 있다면, 어느 농부가 주워 줄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선 나를 아주 깍듯이 대해 준단다.

너를 무척 사랑하고, 너에게 끼칠 근심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너의 늙은 아빠가.

이지도르는 즉시 우편 소인을 살폈다. 거기에는 '앵드르 주, 쿠종'이라고 찍혀 있었다.

앵드르?

그가 몇 주째 기를 쓰며 샅샅이 뒤지던 바로 그 지역이 아닌가!

그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휴대용 안내서를 펼쳤다. '쿠종, 에 귀종 군(canton)'.

그곳 역시 그가 지나친 적이 있었다.

신중을 기하려고 그는 이미 그 고장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영국인 행세를 버리고, 노동자로 변장한 뒤 쿠종으로 향했다. 작은 마을이라 편지를 부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았다.

게다가 곧바로 운이 따라 주었다.

"지난 수요일에 우체통에 넣은 편지 말입니까?"

시장이 외쳤다. 그는 정직한 시민으로, 이지도르가 사정을 털어놓자 기꺼이 발 벗고 나서 주었다.

"잠깐만요, 제가 귀한 단서를 하나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내의 모든 장을 돌아다니는 늙은 칼갈이 샤렐 영감을 마을 끝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내게 묻더군요. '시장님, 우표가 붙지 않은 편지도 그래도 부쳐집니까?'"

"그럼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은 합니까?"

"물론이죠. 다만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샤렐 영감은 어디에 삽니까?"

"저기 언덕 위에서 혼자 외따로 삽니다… 묘지 바로 다음의 그 오두막이지요…

같이 가 드릴까요?"

그것은 외딴 오두막이었다. 높은 나무들이 둘러싼 과수원 한가운데에 외따로 서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까치 세 마리가 바로 그

개집에서 날아올랐다. 개집에는 경비견이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개는 그들이 다가가도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보트를레는 매우 놀라 앞으로 다가갔다. 개는 옆으로 누운 채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이미 죽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습하고 천장이 낮은 방 안쪽, 바닥에 아무렇게나 깔린 낡은 짚자리 위에 한 남자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샤렐 영감!" 시장이 외쳤다. "이 사람도 죽은 건가?"

노인의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섬뜩할 만큼 창백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약하고 느린 박동으로 뛰고 있었고, 어디에도 상처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그를 깨우려 애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보트를레는 의사를 데려오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의사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노인은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인위적인 잠에 빠진 듯했다. 마취나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다음 날 밤중, 그를 지키고 있던 이지도르가 이상한 변화를 발견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온몸이 마비시키던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는 듯했다.

새벽이 되자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평소처럼 활동을 시작했다. 먹고 마시며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는 이지도르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머리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노인이 보트를레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낯선 사람이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에 처음 의아함을 느꼈다.

차츰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말을 건넸다.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보트를레가 그의 잠들기 전 일들을 묻자,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일상적인 흐름 속에 갑자기 깊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는 금요일 오전과 오후의 일을 이야기했다. 시장에서의 거래, 여관에서 먹은 식사.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줄 알았다.

보트를레에게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진실은 눈앞에 있었다. 그의 눈은 아버지가 기다리던 공원의 담장을 보았고, 그의 손은 편지를

주워 올렸으며, 그의 혼란스러운 두뇌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배경, 그리고 드라마가 펼쳐진 이 세상의 작은 구석을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그 눈과 손, 두뇌에서조차 그 가까이에 있던 진실을 조금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아, 그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장애물. 그의 모든 노력이 부딪힌 그 장벽은 침묵과 망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말 뤼팽의 수법이 맞다.

오직 뤼팽만이 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 보트를레 노인이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전해 듣고서, 오직 뤼팽만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을 반쯤 죽여 입을 막을 수 있었다.

물론 보트를레는 자신이 정체를 들킨 줄 모른다. 뤼팽이 자신의 은밀한 공격을 알고 있고, 자신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뤼팽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겨냥했을 리 없다.

하지만 그 행방불명의 행인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비난을 차단해 버린 것. 이것이 얼마나 선견지명과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는 일인가.

이제 그 공원의 벽 안쪽에 도움을 호소하는 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니, 보트를레가 있었다. 샤렐 영감이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 좋다. 하지만 적어도 그 영감이 찾아갔던 장터와, 거기서 돌아올 때 택했을 합리적인 경로는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지도르는 샤렐 영감의 오두막을 드나들 때도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왔던 터라, 더 이상 그곳에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알아본 바로는, 금요일은 몇 리 떨어진 큰 마을 프레셀린에서 장이 서는 날이었다. 그곳으로는 꽤 구불구불한 큰길로 가거나, 지름길로 갈 수 있었다.

금요일, 그는 큰길을 택해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도, 낡은 성의 실루엣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프레셀린의 여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샤렐 영감이 작은 연마차를 밀며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곧장 아주 멀찍이서 그 뒤를 따랐다.

영감은 두 번이나 길게 멈춰 섰고, 그 사이 수십 자루의 칼을 갈았다. 그러고는 마침내 크로잔과 에구존 마을 쪽으로 향하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

보트를레는 그 뒤를 따라 그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5분도 채 걷지 않았을 때, 그는 혼자만 그 영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 사이를 걷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샤렐 영감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다시 걸으면 함께 걸었다. 게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딱히 조심하는 기색도 없었다.

'감시하는군.' 보트를레는 생각했다. '아마 그가 담장 앞에서 멈추는지 확인하려는 거겠지.'

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줄지어 이 지역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렸고, 마침내 크로잔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샤렐 영감은 한 시간 동안 멈춰 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강 쪽으로 내려가 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그때 보트를레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그 남자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는 영감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밭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들어섰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트를레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갑자기 결심했다. 그는 그 남자를 쫓아 나섰다.

'샤렐 영감이 곧장 지나갔다는 걸 확인했을 거야. 이제 안심하고 떠나는 거겠지. 어디로? 성으로?'

그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기쁨이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 남자는 강을 내려다보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솔길 끝의 밝은 곳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트를레가 다시 숲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그 남자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는 눈으로 그 남자를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을 삼키며 뒤로 펄쩍 물러나, 방금 빠져나온 숲의 나무들 사이로 되돌아갔다. 그의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육중한 부벽으로 떠받쳐진 높은 성벽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바로 여기였다. 바로 여기였어! 이 성벽 안에 그의 아버지가 갇혀 있었다. 그는 뤼팽이 희생자들을 가두어 두는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숲의 무성한 나뭇잎이 만들어 주는 은신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거의 배를 붙이고 누운 채, 그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밀어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근처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솟은 작은 언덕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성벽은 더 높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의 지붕을 분명히 식별해낼 수 있었다. 루이 13세 양식의 낡은 지붕이었다. 그 위에는 날카롭고 높은 첨탑을 중심으로, 얇고 가느다란 첨탑들이 바구니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보트를레는 그날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은 공격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

다. 이제 뤼팽을 손에 쥔 이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다리 근처에서 그는 우유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든 두 아낙네와 마주쳤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저기 나무 뒤에 있는 저 성은 이름이 뭡니까?"

"아, 그건 아귀 성이에요, 선생님."

그는 별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귀 성이라니…… 아!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앵드르 주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앵드르는 강 건너편이에요. 여기는 크뢰즈 주죠."

이지도르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귀 성! 크뢰즈(Creuse) 주! 빈 바늘(Aiguille Creuse)! 바로 그 문서의 핵심 열쇠였다. 승리는 확실하고, 결정적이며, 완전했다.

그는 두 여인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제6장

보트를레의 결심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경찰에 알리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는 사법 절차의 느린 속도와 피할 수 없는 누설을 우려했다. 사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뤼팽은 필연적으로 경고를 받게 되고, 여유를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퇴각할 시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여덟 시가 되자 그는 팔 아래에 꾸러미를 끼고 숙소를 나섰다. 쿠존 인근의 여관이었다. 그는 곧장 근처의 수풀로 들어가 작업복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다시 전의 영국인 젊은 화가로 변장한 뒤, 에규존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았다. 에규존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이었다.

그는 이 고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알맞은 집을 찾게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기꺼이 정착하고 싶다고도 했다.

공증인은 여러 영지를 소개했다. 보트를레는 누군가 크뢰즈 강변에 있는 아귀 성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 주었다고 넌지시 흘렸다.

"그렇긴 하오만, 아귀 성은 5년째 내 의뢰인 소유라 팔 물건이 아니오."

"그럼 그가 거기 살고 있소?"

"살았었죠. 정확히는 그의 어머니가요. 한데 어머니가 성이 좀 음산하다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소. 그래서 작년에 그곳을 떠났지."

"그럼 지금은 아무도 안 사오?"

"아니, 이탈리아 사람 하나가 여름 한철 빌려 살고 있소. 의뢰인이 그에게 성을 임대했지. 안프레디 남작이라는 사람이오."

"아, 안프레디 남작. 아직 젊은 나이에, 어딘가 뻣뻣해 보이는 사람 말이군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 의뢰인이 그 사람과 직접 거래했거든요. 임대 계약서도 없이, 그저 간단한 편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작을 아시기는 하죠?"

"아닙니다. 그는 성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만 있을 뿐이죠. 식료품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늙은 식모가 도맡아 댑니다. 참 별난 사람들이에요."

"의뢰인이 성을 팔 의향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성은 더없이 순수한 루이 13세 양식의, 역사적 가치가 큰 건물이에요. 의뢰인이 무척 아끼던 곳이라,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분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루이 발메라스, 몽타보르 거리 34번지요."

보트를레는 가장 가까운 역에서 파리행 열차를 탔다. 이틀 뒤, 세 번의 헛걸음 끝에 그는 마침내 루이 발메라스를 만났다.

발메라스는 서른 살쯤 된, 얼굴이 환하고 호감 가는 사내였다. 보트를레는 에둘러 말해 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자기 정체를 밝힌 뒤 그동안의 노력과 찾아온 목적을 털어놓았다.

"제 생각엔," 그가 결론지었다. "제 아버지가 아귀 성에 갇혀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세입자인 안프레디 남작에 대해 알고 계신 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지난겨울 몬테카를로에서 안프레디 남작을 만났죠. 우연히 제가 성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프랑스에서 여름을 보내고 싶다며 제게 임대를 청해 왔습니다."

"아직 젊은 남자요."

"네, 눈매가 매우 강인하고 머리카락은 금발이오."

"수염이 있소?"

"네. 턱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뒤에서 채우는 가짜 칼라 아래로 늘어져 있소. 성직자의 칼라와 비슷하죠. 실제로 영국 성직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오." 보트를레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오. 내가 본 그대로요. 정확한 인상착의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정말 그러시오?"

"그렇소. 당신의 임차인이 바로 아르센 뤼팽임에 틀림없소."

루이 발메라스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어했다. 그는 뤼팽의 모든 모험과 보트를레와의 치열한 쫓고 쫓기는 싸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즐거워했다.

"자, 기암성이 유명해지겠군요. 나한테도 싫은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 성을 떠난 뒤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처분하려고 늘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살 사람도 쉽게 나타나겠죠. 다만…"

"다만, 뭐죠?"

"제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경찰에 알릴 때도 완전히 확신이 설 때만 하세요. 만약 그 임차인이 뤼팽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보트를레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밤중에 혼자 성벽을 넘어 공원에 숨어들 생각이었다.

그러자 루이 발메라스가 곧바로 그를 막았다.

"그렇게 높은 성벽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겁니다. 설령 넘는다 해도, 어머니가 기르던 두 마리의 거대한 맹견이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그 개들을 성에 남겨두었거든요."

"흥! 먹이 경단 하나면 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개들을 따돌린다고 칩시다. 그다음엔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문은 육중하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구나 일단 들어간들 누가 당신을 안내해 주겠습니까? 방이 여든 개나 되는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2층에 창문이 두 개 있는 그 방은요?"

"그 방은 압니다. 우리는 '등꽃 방'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방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계단이 세 개나 있고 복도는 미로 같습니다. 제가 실을 쥐여 주고 갈 길을 설명해 줘도 당신은 결국 길을 잃을 겁니다."

"제가 같이 가죠." 보트를레는 웃으며 말했다.

"안 됩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남부로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보트를레는 자신을 맞아준 친구의 집으로 돌아가 곧장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가 저물 무렵, 그가 떠나려던 찰나에 발메라스가 찾아왔다.

"저를 여전히 필요로 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이 모험이 솔깃하군요. 지루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에 얽혀드는 게 재미있어요. 게다가 제 도움이 전혀 쓸모없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벌써 협력의 첫 단초를 보여드리죠."

그는 녹이 잔뜩 슬어 거칠고 오래되어 보이는 큰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열쇠가 여는 문은 무엇입니까?" 보트를레가 물었다.

"두 부벽 사이에 숨겨진 작은 쪽문입니다. 수 세기 동안 방치된 곳이라, 저는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 문은 바로 들판으로 통합니다. 정확히는 숲 가장자리로 이어지죠…"

보트를레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출구는 그자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쫓던 남자가 공원으로 들어간 곳도 분명 거기입니다. 자, 판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제기랄, 빈틈없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틀 뒤, 비쩍 마른 말 한 마리가 끄는 보헤미안들의 포장마차 한 대가 크로잔에 도착했다. 마부는 마을 끝, 버려진 낡은 헛간 아래에 마차를 들여놓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마부는 다름 아닌 발메라스였다. 그 외에도 세 명의 젊은이가 고리버들 가지로 안락의자를 엮고 있었다. 바로 보트를레와 장송 시절의 동료 두 명이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며 알맞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저마다 따로따로 공원 주변을 배회했다.

어느 날 보트를레는 그 쪽문을 발견했다. 두 부벽 사이에 낸 그 문은, 앞을 가린 가시덤불 장막 뒤에서 성벽 돌들이 이루는 무늬와 거의 분간되지 않을 만큼 섞여 있었다.

드디어 나흘째 되는 밤,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발메라스는 정찰을 가기로 했다. 형편이 나쁘면 도중에 돌아서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네 사람은 작은 숲을 가로질렀다. 이어 보트를레는 히스 덤불 사이를 기어갔다. 가시덤불 울타리에 손이 긁혀 찢겼지만,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천천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그리고 가만히 돌렸다. 문이 힘을 받아 열릴까? 안쪽에서 빗장이 잠겨 있지는 않을까? 그가 밀자 문은 삐걱대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열렸다. 그는 공원 안에 들어섰다.

"보트를레, 거기 있소?" 발메라스가 물었다. "나를 기다리시오. 두 사람은 우리 퇴로가 끊기지 않도록 문을 지켜 주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호각을 한 번 부시오."

보트를레의 손을 잡은 그는 두꺼운 수풀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중앙 잔디밭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공간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때 달빛 한 줄기가 틈새를 비췄다. 그들은 성을 볼 수 있었다. 뾰족한 첨탑들이 가느다란 중앙 첨탑을 둘러싸고 있었으니, 아마도 그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 듯했다.

창문에서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발메라스가 동행자의 팔을 꽉 잡았다.

"조용히."

"왜요?"

"저기 개들이… 보이시죠?"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발메라스가 아주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흰색 실루엣 두 마리가 날뛰더니, 네 번의 도약으로 주인 발밑에 떨어졌다.

"자, 조용히 아이들… 눕거라… 잘했어… 더 이상 움직이지 마."

그리고 그는 보트를레에게 말했다.

"이제 갑시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길은 확실합니까?"

"네. 테라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억나는군요. 왼쪽에, 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가 1층 창문 높이까지 올라오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잘 닫히지 않아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덧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힘을 주자 덧문이 열렸다. 발메라스는 다이아몬드 끌로 유리창 한 장을 잘라냈다. 그리고 창고리를 돌렸다. 그들은 하나씩 발코니를 넘어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성 안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이 방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발메라스가 말했다. "그리고 조각상들로 장식된 거대한 현관이 있고, 그 현관 끝에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오르면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보트를레, 오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안 오시는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가 보트를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청년이 마룻바닥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

"무섭습니다…"

"무섭다고요?"

"네." 보트를레가 순순히 고백했다. "신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엔 제 의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고요함, 이 격한 감정 때문에. 게다가 그 서기에게 칼을 맞은 뒤로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보세요, 이제 가라앉네요…"

실제로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고, 발메라스는 그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은 손으로 더듬으며 복도를 따라갔는데, 어찌나 조용히 움직였던지 서로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들이 향하던 현관 쪽으로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는 듯했다. 발메라스가 고개를 내밀었다.

계단 아래, 야자나무의 가느다란 가지 사이로 보이는 작은 원탁 위에 놓인 야간등이었다.

"멈춰!" 발메라스가 숨죽여 말했다.

야간등 옆에는 총을 든 한 남자가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을 보았을까? 아마도. 적어도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는지, 그는 총을 들어 겨누었다.

보트를레는 관목 화분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의 정적과 미동도 없는 정경이 보초를 안심시켰다. 그는 총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관목 화분 쪽을 향한 채였다.

두려운 시간이 흘렀다. 십 분, 십오 분.

달빛 한 줄기가 계단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보트를레는 그 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십오 분, 아니 십 분만 지나면 그 빛이 자신에게 닿아 얼굴을 정면으로 비출 것이었다.

땀방울이 그의 얼굴에서 떨리는 손 위로 떨어졌다. 공포가 어찌나 컸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발메라스가 거기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눈으로 그를 찾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관목과 조각상에 몸을 숨긴 채 기어가는 발메라스를,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움직임을 어렴풋이 알아챘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계단 아래, 그 남자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높이까지 다다라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래도 그냥 지나칠까? 혼자서 죄수를 구하러 올라갈까? 하지만 정말 지나갈 수 있을까?

보트를레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무언가 벌어지려 한다는 예감이 들었고, 한층 무겁고 끔찍해진 침묵 역시 그 일을 미리 감지한 듯했다.

그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남자에게 덮쳤고, 야간등이 꺼졌으며, 격투 소리가 들렸다… 보트를레가 달려갔다. 두 몸뚱이가 돌바닥 위로 뒹굴고 있었다. 그가 몸을 숙이려는 찰나, 거친 신음과 한숨이 들리더니, 곧 한 사람이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다.

"빨리… 갑시다."

발메라스였다.

그들은 두 층을 올라가 카펫이 깔린 복도 입구에 다다랐다.

"오른쪽으로," 발메라스가 속삭였다. "…왼쪽에서 네 번째 방입니다."

곧 그들은 그 방의 문을 찾아냈다.

예상대로, 갇힌 사람은 열쇠로 잠긴 방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반 시간 동안이나 숨을 죽이고, 소리를 죽여 가며 자물쇠를 부수려 애썼다. 드디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손으로 더듬어 침대를 찾은 보트를레.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살며시 깨웠다.

"나야, 이지도르… 그리고 친구도 한 명 있어… 걱정 마… 일어나… 말은 하지 마…"

아버지는 옷을 입었지만, 나가기 직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성에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 누군데? 가니마르? 숌즈?"

"아니… 적어도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어."

"그럼?"

"젊은 여자 한 명."

"생트베랑 양이 틀림없지?"

"모르겠어요… 공원에서 멀리서 몇 번 본 적 있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자 그녀의 방 창문도 보였죠. 그녀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녀 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알아요. 이 복도 오른쪽 세 번째예요."

"파란색 방이군요." 발메라스가 속삭였다.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구조라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과연 문짝 하나가 금세 열렸다. 젊은 처녀에게 알리는 일은 보트를레의 아버지가 맡았다.

십 분 뒤, 그는 처녀와 함께 방을 나와 아들에게 말했다.

"네 말이 맞았다… 생트베랑 양이야."

네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서 발메라스가 멈춰 서서 쓰러진 사내 위로 몸을 굽혔다가, 그들을 테라스 쪽 방으로 이끌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 겁니다."

"아!" 보트를레가 안도하며 말했다.

"다행히도 내 칼날이 휘어졌지. 치명상은 아니야. 그리고 뭐, 이런 놈들은 애석할 가치도 없어."

바깥에서는 두 마리의 개가 그들을 맞아주며 성문까지 동행했다. 보트를레는 그곳에서 두 친구를 다시 만났다. 작은 일행은 공원을 빠져나갔다.

그때는 새벽 세 시였다.

이 첫 승리만으로는 보트를레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처녀를 거처에 자리잡게 하자마자 곧바로 성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르센 뤼팽의 습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뤼팽이 사흘이나 나흘에 한 번씩만 성에 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뤼팽은 저녁에 자동차로 도착해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났다.

방문할 때마다 그는 두 포로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모두 그의 정중함과 더없이 다정한 태도를 칭찬했다. 다만 지금은 그가 성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 외에 그들이 본 사람이라곤 부엌과 집안일을 맡은 노파 한 명과, 교대로 그들을 감시하던 두 남자뿐이었다. 두 남자는 말을 걸지 않았는데, 그 태도와 인상으로 보아 분명 하급 졸개들이었다.

"그래도 공범이 둘이군요." 보트를레가 결론지었다. "아니, 노파까지 치면 셋이지.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냥감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전거에 올라 에귀존 마을까지 내달렸다. 헌병대를 깨우고 모두를 동원해 출동 나팔을 울리게 한 뒤, 여덟 시에 헌병 반장과 헌병 여섯 명을 거느리고 크로장으로 되돌아왔다.

헌병 두 명은 포장마차 옆에서 보초를 섰다. 다른 두 명은 성의 쪽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네 명은 반장의 지휘 아래 보트를레, 발메라스와 함께 성의 정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한 농부가 한 시간 전에 자동차 한 대가 성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 무리가 임시로 진을 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들은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몇 가지 가재도구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그뿐이었다.

보트를레와 발메라스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부상자의 행방이었다. 그들은 싸움의 흔적을 단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현관 바닥 돌판 위에는 피 한 방울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뤼팽이 기암성에 머물렀다는 물증은 하나도 없었던 셈이어서, 만약 끝내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보트를레와 그의 아버지, 발메라스, 그리고 생트베랑 양의 증언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처녀가 머물던 방 바로 옆방에서,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 핀으로 꽂힌 여섯 다발쯤 되는 훌륭한 꽃다발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시들고 잊힌 꽃다발이었다.

그중 한 다발에는 명함 외에 편지도 한 통 꽂혀 있었는데, 레이몽드는 그 편지를 보지 못했다.

오후에 예심판사가 그 편지를 개봉하자, 열 페이지에 달하는 간청과 호소, 약속과 협박, 절망이, 경멸과 혐오만 받아 온 사랑이 빚어낸 온갖 광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화요일 밤에 오겠소, 레이몽드.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소. 모든 것을 각오했소."

화요일 밤, 그것은 바로 보트를레가 생트베랑 양을 구해 낸 그날 밤이었다.

이 뜻밖의 결말이 알려지자 온 세상이 놀라움과 열광으로 들끓었던 것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생트베랑 양이 풀려난 것이다!

뤼팽이 탐냈던 처녀, 그가 가장 교묘하고 마키아벨리적인 술책을 다 동원했던 그 여인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보트를레의 아버지 또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뤼팽이, 그 격정이 요구하는 휴전을 지나칠 만큼 바라며 인질로 택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두 포로 모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도무지 풀 수 없으리라 여겨졌던 '기암'의 비밀이 밝혀져, 세상에 공표되고 온 천지로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났다. 패배한 모험가를 두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뤼팽의 사랑!" "아르센의 흐느낌!" "연애하는 도둑!" "지갑 털이의 애가!"

이런 구호들이 거리 곳곳에서 외쳐졌다. 공방 안에서도 이런 노래가 허물없이 흥얼거려졌다.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인터뷰어들의 쫓아다니는 바람에, 레이몽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편지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꽃다발도 있었고, 처참한 사연도 모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뤼팽은 그 높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보트를레는 이제 모든 이의 우상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예언했으며, 모든 것을 밝혀냈다.

생트베랑 양이 자신의 납치 사건에 관해 예심판사 앞에서 한 진술은, 이 청년이 세운 가설을 사소한 부분까지 그대로 뒷받침했다.

모든 점에서 현실은 그가 미리 정해 둔 대로 따르는 듯했다.

뤼팽은 임자를 만난 것이었다.

보트를레는 아버지가 사보아 산골로 돌아가기 전에 햇살 아래서 몇 달간 쉬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아버지와 생트베랑 양을 직접 데리고 니스 근처로 갔는데, 그곳에는 젬브르 백작과 그의 딸 수잔느가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이틀 뒤, 발메라스가 어머니를 데리고 새 친구들을 찾아왔다. 이들은 젬브르 저택을 중심으로 작은 무리를 이루었고, 백작이 고용한 여섯 명 남짓한 사내들이 밤낮으로 그들을 지켰다.

10월 초, 수사학반 학생인 보트를레는 학업을 이어 가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평온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쟁은 이미 끝나지 않았던가?

뤼팽도 제 나름대로 그 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이제 그로서는 이미 벌어진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또 다른 두 희생자인 가니마르와 헐록 숌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이 세상으로 돌아온 모습은 조금도 위엄이 없었다. 그들을 주워 온 것은 다름 아닌 넝마주이였다. 경찰청 맞은편 오르페브르 강변로에서, 둘 다 잠든 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일주일 내내 완전히 얼이 빠져 있던 그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확히는 가니마르가 이야기했다. 숌즈는 완강한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트 '이롱델'호를 타고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도는 항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 항해는 즐겁고 유익했으며, 그들 스스로 자유로운 몸

이라 여길 수 있었다. 다만 선원들이 이국적인 항구에 내릴 때면 몇 시간 동안 선창 밑바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었다.

오르페브르 강변로에 다다른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 며칠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석방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뤼팽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음으로써 그 패배를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 가지 사건이 그 패배를 한층 더 뚜렷이 드러냈다. 루이 발메라스와 생트베랑 양의 약혼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의 처지가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 준 가까운 사이 속에서, 두 젊은이는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발메라스는 레이몽드의 우수에 찬 매력을 사랑했고, 삶에 상처 입어 보호를 갈구하던 레이몽드는 자신을 구하는 데 그토록 용감히 힘써 준 그 남자의 힘과 기개에 끌려들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어딘가 불안했다. 뤼팽이 다시 공세에 나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인을 영영 잃은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두세 번, 빌라 주변에서 수상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목격되었고, 어느 날 밤에는 발메라스가 자칭 주정뱅이의 권총에 맞서야 했다. 그자가 쏜 총알은 발메라스의 모자를 꿰뚫고 지나갔다. 하지

만 결국 결혼식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무사히 치러졌고, 레이몽드 드 생베랑은 루이 발메라스 부인이 되었다.

사실상 운명 자체가 보트를레 편을 들어주며 승리의 공문을 확인해 준 듯했다. 군중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느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기리고 뤼팽을 짓밟기 위한 대연회를 열자는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튀어 올랐다.

이 놀라운 제안은 곧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단 보름 만에 삼백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파리 각지의 고등학교에는 수사학반 학급당 두 명의 학생을 초대하라는 통지가 날아갔다. 언론은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 연회는 당연히 그랬듯이, 더없이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단순하고 아름다웠다. 보트를레가 바로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보트를레는 평소처럼 겸손했다. 지나친 박수에는 약간 당황했고, 자신을 가장 유명한 형사들보다 우월하다고 극찬하는 말에는 조금 어색해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뒤에는 깊은 감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몇 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그 말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주목받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아이처럼 수줍어했다. 그는 기쁨을 말했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자제력이 있었든, 그 순간 그는 잊을 수 없는 황홀함을 경험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장송 동창들에게, 특별히 박수 치러 온 발메라스에게, 드 젝브르 씨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소 지었다.

말을 마치려던 그때, 그는 아직 잔을 손에 쥔 채였다.

그때 문득 방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신문을 흔들며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침묵을 찾았지만, 그 '간섭자'는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테이블 주변에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신문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손에 든 신문을 보는 순간,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탄성을 지르며 외쳤다.

"읽어 봐! 읽어!"

반대편에서 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영예의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트를레 부친이 신문을 가져와 아들인 보트를레에게 건넸다.

"읽어! 읽어!"

소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들어 봐! 그가 읽을 거야… 들어!”

보트를레는 일어나서 군중을 향해 섰다. 아버지가 건네준 저녁 신문을 훑으며, 그토록 큰 파문을 일으킨 기사가 어디 있는지 눈을 빛내었다.

그때 푸른 연필로 밑줄 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들고 침묵을 요구하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감정에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가며, 놀라운 진실을 읽어 나갔다.

그것은 보트를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기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송두리째 뒤집었으며, 아르센 뤼팽과의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학술원 회원 마시반의 공개 서한

「1679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아주 작은 책이 한 권 나왔다.

『처음으로 폭로되는 모든 진실. 궁정을 깨우치기 위해 내가 직접 백 부를 인쇄하다.』

3월 17일 아침 9시, 이 글을 쓴 이는 매우 젊은 남성이었다. 차려입은 차림새는 좋았으나,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책을 왕실 주요 인물들에게 하나씩 배달하기 시작했다.

10시가 되자, 그는 이미 네 권을 배달한 상태였다. 그때 근위대 대위 한 명이 그를 붙잡았다. 대위는 그를 국왕의 서재로 데려갔고, 곧장 나머지 네 권의 책을 찾아 나서기 위해 재빨리 떠났다.

전부 100권이 모이자, 국왕은 그 책들을 꼼꼼히 세고 넘겨보며 확인했다. 그리고 국왕은 그 책들 중 한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불태워 버렸다. 그 한 권은 국왕이 스스로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국왕은 근위대 대위에게 책의 저자를 생마르 씨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생마르는 그 죄수를 먼저 피네롤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생마르그리트 섬의 요새로 이감했다. 이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유명한 '철가면'의 사나이였다.

면담 자리에 있던 그 근위대 대위가 왕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불길이 닿기 전에 벽난로에서 다른 한 권을 몰래 빼낼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진상은—적어도 진상의 일부는—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6개월 후, 그 대위는 가용에서 망트까지 이어지는 큰길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살인자들은 그의 옷을 모두 벗겨 갔다. 하지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보석은 까맣게 잊고 지나갔다.

후일 그 주머니에서 보석이 발견되었다. 물색이 가장 맑고 가치가 상당한 다이아몬드였다.

그의 서류 속에서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다.

그 메모에는 불길에서 빼낸 그 책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책 첫머리 장(章)들의 요약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영국 왕들이 알고 있던 비밀로, 가련한 실성왕 헨리 6세의 왕관이 요크 공작의 머리 위로 넘어가던 순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비밀은 잔 다르크에 의해 프랑스 왕 샤를 7세에게 밝혀졌다. 이후 국가 기밀이 되어, 그때마다 다시 봉인된 한 통의 서한을 통해 군주에서 군주로 전해졌다.

그 서한은 늘 선왕의 임종 침상에서 '프랑스 왕께'라는 글귀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 비밀은 위대한 보물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었다. 왕들이 소유한 그 보물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갔다.

114년 후, 루이 16세가 템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 그는 왕족을 감시하던 장교 중 한 명을 따로 불러 말했다.

“당신 가문에, 대왕이라 불리던 나의 선조 시대에 근위대 대위를 지낸 조상이 있지 않소?”

“있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당신은 …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오 …"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교가 그 말을 받아 마무리했다.

"저더러 폐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냐는 말씀이십니까? 오, 폐하!"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 중 한 장을 찢어내려 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었다.

"아니, 내가 직접 베껴 쓰는 게 낫겠군."

그는 큰 종이를 한 장 꺼내어 찢었다. 작은 사각형 공간 하나만 남긴 채였다. 그는 그 작은 공간에 인쇄된 페이지에 적힌 점, 선, 숫자 다섯 줄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인쇄된 페이지를 불태웠다. 손으로 쓴 종이는 네 번 접어 붉은 밀랍으로 봉인한 뒤 나에게 건넸다.

"선생님. 제가 죽은 뒤, 이걸 왕비님께 건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하십시오. 〈왕의 말씀입니다, 마담. 폐하와 왕자님을 위해.〉"

그가 잠시 멈췄다.

"만약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암의 비밀… 기암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이세요. 왕비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책을 벽난로 안에서 빨갛게 타오르는 잉걸불 속에 던져 넣었다.

1월 21일, 그는 단두대에 올랐다.

그 장교는 왕비가 콩시에르제리로 이감되는 바람에,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두 달이나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밀한 술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마리 앙투아네트와 마주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가 간신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선왕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마마. 폐하와 왕자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봉인된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감시인들이 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살핀 뒤 봉인을 뜯었다.

난해한 글자를 보고는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이해한 듯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고, 장교는 그녀가 내뱉은 이 말을 알아들었다.

"어찌 이리 늦었단 말이오?"

그녀는 망설였다. 이 위험한 문서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결국 그녀는 시간 기도서를 열었다. 표지 가죽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양피지 사이에 숨겨진 듯한 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 종이를 쑤셔 넣었다.

"왜 이렇게 늦었나요?"

그녀가 했던 말이다.

실제로 이 문서는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듬해 10월,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도 차례로 단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교는 가족들의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증조할아버지의 손글씨 노트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이상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가를 바치는 것이었다.

그는 라틴어 작가들의 책을 모두 읽었고, 프랑스와 이웃 나라들의 연대기를 샅샅이 뒤졌다. 수도원에까지 들어가 회계 장부와 고문서, 옛 문서들을 해독했다. 그 결과 그는 세대를 거쳐 흩어져 있던 몇 가지 인용구를 다시 찾아낼 수 있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 제3권에 따르면, 비리도빅스가 가이우스 티툴리우스 사비누스에게 패배한 후, 칼레족의 지도자는 카이사르 앞에 끌려갔다. 몸값으로 그는 기암의 비밀을 폭로했다.

상트클레르쉬르엡트 조약은 단순왕 샤를과 북방 야만족의 우두머리 롤 사이에 맺어졌다. 이 조약에서 롤의 이름 뒤에는 여러 칭호가 따르는데, 그중 '기암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깁슨 판 색슨 연대기(134쪽)에는 '강력한 윌리엄', 즉 정복왕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깃대 끝은 날카롭게 뾰족했고, 바늘처럼 가는 틈이 뚫려 있었다고 한다.

잔 다르크의 심문 기록에는 다소 모호한 문장이 하나 있다. 그녀는 프랑스 왕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다고 고백했다. 재판관들은 이렇게 답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잔, 너는 죽으리라.'

선량왕 앙리 4세는 종종 '기암의 힘으로'라고 맹세하곤 했다.

“그전에, 프랑수아 1세는 1520년 르아브르의 유력자들을 향해 연설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옹플뢰르의 한 시민이 남긴 일기에 그 내용이 전해져 옵니다.

‘프랑스 왕들은 사물의 흐름과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밀을 품고 다닌다.’

‘단장님, 이 모든 인용구와, 철가면과 경호대장 그리고 그의 증손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저는 바로 그 증손자가 쓴 한 소책자에서 오늘 다

시 찾아냈습니다. 그 소책자는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 전날 혹은 다음 날에 출간되었는데, 다시 말해 거기 담긴 폭로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묻혀버릴 만큼 격변의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소책자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별것 아니라고, 전혀 믿을 게 못 된다고 당신은 말하겠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를 펼쳐 지목된 장을 확인했을 때, 소책자에 인용된 바로 그 문장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생클레르쉬르엡트 조약, 작센 연대기, 잔 다르크의 심문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러했다.

그런데 1815년에 나온 이 소책자의 저자는 한층 더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전한다. 프랑스 원정 당시 나폴레옹의 장교였던 그는, 어느 날 저녁 타고 가던 말이 쓰러져 죽는 바람에 한 성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생루이 훈장을 받은 한 노기사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연이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성은 크레즈 강 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기암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은 루이 14세 때 지어졌고, 그 왕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었다. 더구나 '위대한 왕'의 명으로, 성에는 작은 첨탑들과 바늘 모양을 닮은 첨탑이 장식되었다.

성에는 1680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 아마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680년! 책이 나오고 철가면이 투옥된 지 꼭 일 년 뒤였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루이 14세는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음을 미리 내다보고, 이 성을 지어 그런 이름을 붙였다. 호기심 많은 자들에게 그 오랜 수수께끼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답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기암성'이라? 크뢰즈 강가에 자리 잡고 뾰족한 첨탑이 솟은, 그것도 왕의 소유였던 성. 그래서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파고드는 이가 없었던 것이다."

계산은 정확했다. 두 세기도 더 지난 지금, 보트를레가 그 함정에 빠졌으니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단장님, 제가 이 편지를 쓰며 이르고자 한 바입니다.

뤼팽이 안프레디라는 가명으로 발메라스 씨에게서 크뢰즈 강변의 기암성을 빌리고, 그곳에 자신의 두 포로를 가두었다면, 그것은 보트를레의 필연적인 수사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요구했던 평화를 얻기 위해, 바로 그 보트를레에게 이른바 루이 14세의 '역사적 함정'을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뤼팽이, 자신의 통찰력만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정말로 놀라운 재능의 마법처럼 해독 불가능한 문서를 해독해냈다

는 것입니다. 즉, 뤼팽은 프랑스 왕들의 마지막 후계자로서 기암성의 왕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로 끝이 났다. 하지만 몇 분 전부터, 기암성 성에 관한 구절부터는 보트를레가 이 기사를 읽고 있지 않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겪은 굴욕의 무게에 짓눌려 신문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숨이 턱 막힌 채, 감정에 휩싸여 몸이 떨리던 군중은 천천히 다가와 이제는 그의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반박을 펼칠지, 사람들은 떨리는 불안감 속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메라스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풀어주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울고 있었다.

제7장

새벽 네 시. 이지도르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뤼팽에게 선포한 무자비한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 기진맥진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를 차에 태워 데려가는 동안,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맹세했다.

터무니없는 맹세! 어처구니없고 비논리적인 전쟁! 무장도 없이 홀로 남은 한 소년이, 저 정력과 권능의 화신 같은 존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디로 그를 공격한단 말인가? 그는 공격할 수 없는 상대다. 어디를 찔러 상처 입힌단 말인가? 그는 불사신이다. 어디서 그에게 닿는단 말인가? 그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새벽 네 시…… 이지도르는 다시 장송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 그 집에 묵고 있다. 자기 방 벽난로 앞에 서서, 대리석 선반에 두 팔꿈치를 곧게 괴고 두 주먹으로 턱을 받친 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제 그는 울지 않는다.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다. 두 시간째 이어져 온 침대 위에서의 몸부림도, 절망도 멈췄다. 그는 이제 생각하려 한다. 깊이 생각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 한다.

그의 눈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생각에 잠긴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자신의 생각에 힘을 두 배로 불려내고 싶은 듯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못한 그 해답을, 이 다른 '나'의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여섯 시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점차, 복잡한 세부 사항들과 흐릿함에서 벗어난 채,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드러났다. 논리적 방정식처럼, 단정적이고도 고요하게.

그렇다, 그는 틀렸다. 그렇다, 그 문서에 대한 그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기암'이라는 말은 크뢰즈 강변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데모젤'이라는 말도 생트베랑의 레이몽드와 그 사촌을 가리킬 수 없다. 그 문서의 본문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근거는 단 하나, 루이 14세 시대에 간행된 그 책뿐이었다. 그런데 훗날 철가면이 될 인물이 인쇄한 백 부 가운데 단 두 부만이 불길을 피했다.

한 부는 왕의 호위대 대위가 훔쳤다가 결국 분실되고 말았다. 나머지 한 부는 루이 14세가 보관했다가 루이 15세에게 물려주었고, 결국 루이 16세 때 불태워졌다.

하지만 그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페이지, 즉 문제의 해답, 적어도 암호 해독의 열쇠가 담긴 페이지의 사본 하나는 남아 있다. 그 사본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그것을 자기 기도서 표지 안쪽에 끼워 두었다.

그 종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보트를레가 손에 쥐고 있다가, 뤼팽이 법원 서기 브레두를 시켜 도로 빼앗아 간 그 종이일까? 아니면 아직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도서 속에 들어 있을까?

그리고 질문은 다시 이것으로 돌아왔다.

'여왕의 기도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잠시 숨을 고른 보트를레는 친구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명망 높은 수집가였고, 종종 비공식 전문가로 초빙되곤 했으며, 최근에도 우리 박물관 한 곳의 관장이 소장품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의 자문을 구한 인물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도서 말이냐?" 그가 외쳤다. "그건 여왕이 자기 시녀에게 물려준 것이야. 페르젠 백작에게 전해 주라는 은밀한 임무와 함께 말이지. 백작 가문에서 정성껏 보관해 왔는데, 5년 전부터는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단다……."

"진열장이라니요?"

"다름 아닌 카르나발레 박물관이지."

"그 박물관은 문을 열었을까요?"

"이십 분 뒤면 열린다. 매일 아침 그렇듯이."

세비녜 부인의 오래된 저택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이지도르는 친구와 함께 차에서 뛰어내렸다.

"어, 보트를레 씨!"

열 개의 목소리가 그의 도착을 반겼다. 그는 '기암성 사건'을 쫓던 기자 무리 전체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중 한 명이 외쳤다.

"재미있지, 그렇지?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다니까. 조심해, 아르센 뤼팽이 우리 중에 끼어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곧바로 연락을 받은 관장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하며, 진열장 앞으로 안내해 한 권의 초라한 책을 보여 주었다. 장식이라곤 전혀 없는, 왕실의 것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책이었다.

그래도 그 책을 보고 있자니 그들은 가벼운 감동에 휩싸였다. 비극적인 나날에 왕비가 직접 손으로 만졌고,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들여다보았던 책이었다……. 그들은 마치 신성모독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기분에, 감히 그 책을 집어 들어 뒤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 보트를레 씨, 이건 당신이 맡아야 할 일이오."

보트를레는 불안한 손길로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의 외관은 소책자 저자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먼저 양피지 표지가 있었는데, 더럽고 거뭇해졌으며 군데군데 닳아 있었다. 그 아래로는 단단한 가죽으로 된 본래의 제본이 드러났다.

보트를레는 얼마나 전율하며 숨겨진 주머니를 더듬어 찾았던가! 그것은 한낱 꾸며낸 이야기일까? 아니면 루이 16세가 직접 쓴 그 문서, 여왕이 자신의 열렬한 벗에게 물려준 그 문서를 정말로 다시 찾아내게 될까?

첫 페이지 위쪽을 살폈다. 숨겨진 곳은 없었다.

"없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없어." 그들이 함께 속삭였다. 숨이 가쁠 지경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책을 살짝 벌리자, 양피지가 제본 부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손가락을 쑤셔 넣었다. 무언가 있었다. 그래, 무언가가 만져졌다. 종이의 감촉이었다.

"오!" 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거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빨리! 빨리!" 누군가 그를 재촉했다. "왜 기다리고 있소?"

그가 접힌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자, 읽어 봐!… 붉은 잉크로 적힌 글이 있군… 봐, 피 같아… 희미한 색의 피… 얼른 읽어 봐!"

그가 읽었다.

"당신에게, 페르젠. 내 아들을 위해, 1793년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

보트를레가 갑자기 경악의 탄성을 질렀다. 왕비의 서명 아래, 검은 먹으로 밑줄이 그어진 두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단어는 바로 '아르센 뤼팽'이었다.

모두가 차례로 그 종이를 붙잡아 들었다. 그리고 같은 비명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마리 앙투아네트…… 아르센 뤼팽."

거대한 침묵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두 개의 서명, 그리고 함께 발견된 두 개의 이름. 시간의 책 깊숙이 잠들어 있던, 비운의 왕비가 남긴 한 세기 이상의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던 이 유물. 그리고 왕의 머리가 떨어졌던 끔찍한 날짜, 1793년 10월 16일. 그 모든 것이 음울하고 당혹스러운 비극이었다.

"아르센 뤼팽……"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성스러운 문서 하단에 그 악마 같은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의 충격을 강조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네, 아르센 뤼팽." 보트를레가 되뇌었다. "왕비의 친구는 죽어가는 여인의 절박한 호소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보내준 기억의 조각과 함께 살았지만, 그 조각이 지닌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뤼팽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갔다."

"무엇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 문서지! 루이 16세가 직접 쓴 문서라고. 내가 바로 그걸 손에 쥐고 있었다는 말이야. 겉모습도 같고, 구조도 같고, 붉은 밀랍 도장까지 똑같았어. 이제야 알겠어. 뤼팽이 왜 그 문서를 내게 주지 않았는지. 내가 종이나 도장 같은 외형적인 단서만 살펴봐도 그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문서에 적힌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붉은 인장의 자국도 직접 목격했소. 마리 앙투아네트 자신도 친필로 이 소책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보증했으니, 마시방 씨가 복제한 그 글은 틀림없이 진본이오. 그러니 '기암성'이라는 역사적 수수께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죠.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문서가 진본이든 위작이든, 당신이 그 암호를 풀지 못한다면 소용없어요. 그 해답을 알려준 책이 루이 16세에 의해 불태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 부는 살아남았소. 루이 14세의 근위대장이 불길에서 건져낸 그 책이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아시오?"

"반대로 그게 소멸했음을 증명해 보세요."

보트를레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곤 천천히,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한층 또렷이 정리하고 요약하려는 듯이 말했다.

"비밀을 손에 쥔 경호대장은, 먼저 그 일부를 훗날 증손자가 찾아낸 신문에 흘려보냅니다. 그다음엔 침묵이 찾아옵니다. 수수께끼의 해답은 주지 않죠. 왜일까요? 비밀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서서히 그를 파고들고, 결국 그는 그 유혹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의 살해 사건이죠.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화려한 보석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특정 왕실 보물창고에서 이 보석을 꺼냈습니다. 그 보물창고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고, 바로 그 비밀이 '기암성'의 미스터리입니다. 뤼팽이 저에게 그렇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뤼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트를레 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는 가능한 한 많은 홍보를 해야 해. 모든 신문으로 우리가 '바늘의 논고'라는 제목의 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야. 아마 지방의 어느 도서관 구석에서 이 책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보트를레는 그 내용을 즉시 작성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단서가 하나 보였다. 살해 현장은 꼬용 근처였다. 그날 그는 곧장 그 도시로 향했다.

물론 그는 200년 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 흉악한 사건들은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전통에 흔적을 남기곤 한다.

그런 일들은 지역 연대기에 기록되기도 한다. 어느 날, 지방의 학자나 오래된 전설을 좋아하는 사람, 과거의 소소한 사건들을 되살리는 사람이 그 내용을 기사로 쓰거나 지방 아카데미에서 발표하곤 한다.

그는 그런 학자들을 몇 명 만나 봤다. 특히 한 노년 공증인과 함께 그는 감옥의 기록, 그리고 옛 지방법원과 교구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17세기에 경호대장이 살해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건 심문이 파리에서 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가서도 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그러던 중, 그는 또 다른 단서를 떠올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손자가 망명 생활을 했고, 증손자가 공화국 군대에 복무했으며, 왕족이 투옥된 동안 템플 감옥에서 그들을 감시했던 그 경호대장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그는 적어도 두 명의 인물이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루이 14세 시대의 드 라르베리 씨, 그리고 공포 정치 시대의 라브리에 시민 말이다.

이미 중요한 단서였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사에 짧은 기사를 보내, 라르베리 가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답장은 브로슈어에 등장했던, 바로 그 마시방에게서 왔다. 그는 프랑스 학술원의 회원이었다.

"볼테르의 원고에서 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제25장, 왕정의 특이사항과 일화)에 실린 내용이지요. 하지만 이 구절은 이후 간행된 여러 판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재정 총감이자 샤미야르 장관의 친구였던 고(故) 드 코마르탱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드 라르베리 씨가 살해당하고 값비싼 보석들을 모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이 마차를 타고 급히 떠났다고 하더군요. 국왕은 매우 큰 충격에 휩싸인 듯했고, 반복해서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듬해, 라르베리의 아들과, 벨린 후작과 결혼한 딸은 각각 프로방스와 브르타뉴의 영지로 추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정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어 말했다. "볼테르에 따르면, 샤미야르 장관은 철가면의 기묘한 비밀을 마지막으로 간직한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두 사건 사이에 명확하게 연결되는 고리를요. 저로서는 이 상황에서 루이 14세가 취한 행동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은 주저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라르베리 씨가 아마도 시민 계급 장교 라브리에의 할아버지였을 아들과 딸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르베리가 남긴 문서 중 일부가 딸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서들 가운데 경비대장이 불길에서 구해 낸 그 유명한 사본이 들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성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렌 근처에 벨린 남작이 있더군요. 혹시 후작의 후손일까요?"

"만약을 위해 어제 그 남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늘(Aiguille)'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오래된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번거롭지 않다면, 찾아와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귀하 등."

"참고로, 이런 작은 발견들을 신문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표에 다다랐으니,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트를레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날 아침 그를 쫓아온 두 기자에게 자신의 심정과 계획에 대해 가장 엉터리인 정보를 던져주었다.

오후가 되자 보트를레는 급히 발을 옮겨 볼테르 강변로 17번지, 마시방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마시방이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이다. 대신 보트를레가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쪽지를 남기고 간 것이다.

보트를레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었다.

"예상치 못한 전보를 받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장 렌으로 가 그곳에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당신도 저녁 기차를 타고 렌에서 내리지 말고, 바로 작은 역인 벨린까지 계속 가주십시오. 우리는 그 역에서 네 킬로미터 떨어진 성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보트를레는 이 일정에 만족했다. 특히 마시방과 동시에 성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미숙한 마시방이 실수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루의 나머지를 친구와 함께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브르타뉴행 급행열차를 탔다.

여섯 시, 그는 베라인에 도착했다.

그는 울창한 숲 사이를 걸어, 4킬로미터 거리를 걸었다. 멀리서 그는 언덕 위에 긴 저택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저택은 르네상스 양식과 루이 필리프 양식이 섞인 다소 이질적인 건축물이었지만, 네 개의 작은 탑과 덩굴로 뒤덮인 인양교 덕분에 여전히 당당해 보였다.

이지도르는 다가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는가?

그 성에는 이 모든 신비의 열쇠가 숨겨져 있는가?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자문했다. 이번에도 뤼팽이 꾸민 지옥 같은 함정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마시방은 예를 들어 적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니, 내가 너무 과잉 반응하는군. 마치 뤼팽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실수 없는 신사, 어쩔 수 없는 전지전능한 신인 양 생각하네. 하지만 뤼팽도 실수하네. 뤼팽도 상황에 휘둘리고, 뤼팽도 실수를 저지르네. 바로 그 문서 분실이라는 실수 덕분에 내가 그를 제압하기 시작한 거야.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됐지. 결국 그의 모든 노력은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데 불과해."

기쁨에 차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보트를레는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입니까?” 문턱에서 나타난 하인이 물었다.

“벨랭 남작을 뵐 수 있습니까?”

보트를레는 명함을 내밀었다.

“남작은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지만, 기다리시면 모시겠습니다.”

“이미 누군가 찾아온 분은 없습니까? 하얀 수염에 약간 굽은 등, 그런 분 말이죠.” 보트를레는 신문을 통해 본 마시방의 사진에 익숙한 터였다.

“네, 그분이 열 분 전에 오셨습니다. 거실로 모셨죠. 만약 원하시면 따라오시겠습니다.”

마시반과 보트를레의 만남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보트를레는 노인에게서 얻은 귀중한 정보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마시반은 뜨거운 감동으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그들은 문서와 책 발견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시반은 베리남 남자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했다.

베리남 남자는 60세의 나이로, 오랫동안 과부 신세였던 그는 딸 가브리엘 드 빌모뉴와 함께 은둔하듯 살았다. 가브리엘은 최근 자동차 사고로 남편과 장남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남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종업원이 그들을 1층으로 안내했다. 벽이 맨채로 남은 넓은 방이었다. 책상과 사물함, 서류와 장부로 어지럽게 쌓인 탁자들만이 간신히 가구를 채우고 있었다.

남작은 매우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인지, 말하고 싶은 욕구가 남달랐다. 그들은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데 제법 애를 먹어야 했다.

"아, 그렇군요. 마스반 씨, 그 일로 편지를 보내셨죠. 바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요.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과 나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때는 참 이상한 생각들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 시대에 맞는 사람입니다. 과거와는 단절했습니다."

"아니요." 보트를레는 성급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책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전보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시방을 향해 외쳤다.

마시방은 성이 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창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요! 아니면 적어도 제 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에서 그 제목을 본 적 있다고요."

"저는요,各位들, 읽는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글도 읽지 않습니다. 제 딸이 가끔 읽기는 하지만, 그것도 오직 작은 조르주, 내 남은 아들 조르주가 건강하기를 바랄 때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 수입을 챙기고,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기를 바랄 때뿐이죠."

"여기 장부들을 보세요.各位들. 저는 이 장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선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시방 씨, 편지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그 떠드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책은……"

"제가 딸이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찾고 있었죠."

"그렇다면?"

"찾아냈습니다. 한두 시간 전쯤요.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쯤이었죠."

"그럼 그건 어디에?"

"어디 있냐고요? 바로 이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여기요, 저기."

보트를레가 벌떡 일어났다. 책상 끝, 지저분한 서류 더미 위에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붉은 마로컨 가죽으로 된 책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그 책 위에 힘껏 내리쳤다. 마치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책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내려는 듯했다. 동시에, 자신도 그 책을 들어 올릴 엄두가 나지 않는 듯했다.

"자, 보시오." 마시방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됐군요."

"그런데 제목이요. 정말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보세요."

그가 마로퀸 표지 위에 새겨진 금자를 가리켰다.

「기암성의 비밀」

"설마 믿으십니까? 드디어 그 비밀의 주인이 된 걸까요?"

"첫 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요. '모든 진실을 처음으로 폭로함. — 법원의 교훈을 위해 제가 직접 인쇄한 백 부.'"

"맞아요, 맞아요." 마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불길에서 건져낸 그 부수요. 바로 그 책이죠. 루이 14세가 금지령을 내렸던 바로 그 책."

그들은 책을 넘겨들었다. 첫 절반에는 라르베리 대위가 일기에 남긴 해명이 적혀 있었다.

"지나갑시다." 보트를레가 서두르며 말했다. 그는 해답에 닿고 싶었다.

"그렇다면,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미 철가면이 왜 감금되었는지 알고 있어. 프랑스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을까? 또 왜 폭로하려 했을까? 마지막으로, 그 기묘한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볼테르가 주장한 대로 루이 14세의 이복형제인가, 아니면 현대 비평이 주장하는 이탈리아 장관 마티올리인가? 천만에, 이 모든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야!"

"나중에! 나중에!" 보트를레가 항의했다. 책이 자신의 손에서 날아가 버릴까 봐, 그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라도 책을 놓칠까 봐 두려운 듯했다.

"하지만," 역사적 디테일에 열광했던 마시방이 반박했다.

"우린 시간이 있어. 그 후에 보자. 일단 설명부터 살펴볼까."

그때 보트를레가 말을 멈췄다. 문서였다.

한 페이지 한가운데, 왼쪽으로, 그의 눈은 점과 숫자로 이루어진 다섯 줄의 신비로운 문자를 확인했다. 그는 한눈에 그 글자가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호들의 배

열도 같았다. 간격도 같았다. 그 간격은 'demoiselles(미망인들)'이라는 단어를 분리해 내고, '기암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각각 따로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아래 작은 주석이 붙어 있었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루이 13세 왕이 작은 표로 압축해 놓았다고 한다. 아래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그리고 표가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문서의 해설이 나왔다.

보트를레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숫자를 모음으로 바꿨다고 해서 별다른 단서를 주지 못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은 미지의 길을 아는 자들에게만 겨우 실마리 하나를 던져줄 뿐입니다.

'그 실마리를 잡고 나아가 봅시다.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죠.'

'먼저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는 측정 방법과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고 기록된 측정을 수행하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즉 '빈 바늘'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한, 필연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의는 앞선 세 줄에

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적혀 있죠. '왕에게 복수한다.' 제가 미리 경고했었다는 말입니다……'"

보트를레가 말을 멈췄다. 그는 어이없어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마시방이 물었다.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 맞네." 마시방이 다시 말했다. "첫 번째 글귀는 이렇게 되어 있군. '왕을 복수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세상에나!" 보트가레가 고함을 지르며 외쳤다.

"그래서?"

"찢겨졌어! 두 장이! 그다음 페이지들도 말이야… 자국들을 봐!"

그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실망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시방이 몸을 굽혀 살펴보았다.

"맞는 말이야… 두 페이지의 자국이 남아 있군. 책갈피처럼 말이지. 자국이 꽤 선명해. 자른 게 아니라 찢은 것 같아… 아주 세게 찢었지. 봐,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구겨진 자국이 다 있어."

"하지만 누가? 누가 그랬을까?" 이지도르가 주먹을 쥐고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하인? 공범?"

"그건 몇 달 전 일일 수도 있어." 마시방이 지적했다.

"그래도 말이야… 정말로… 누군가는 그 책을 찾아내서 가져간 게 분명해……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요." 보트를레가 남작을 향해 외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의심 가는 사람도 없으십니까?"

"제 딸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군요."

"그래… 그래… 그거예요… 어쩌면 따님이 알지도 모르죠."

벨린 남작은 시종을 불렀다. 몇 분 뒤, 빌모몽 부인이 들어왔다. 얼굴에 고통과 체념이 서린 젊은 여성이었다. 보트를레는 곧장 그녀에게 물었다.

"부인, 그 책을 위층 서고에서 찾으셨다고요?"

"네, 아직 끈을 풀지 않은 책 꾸러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셨고요?"

"네, 어젯밤에요."

"읽으셨을 때, 저기 있는 두 페이지가 빠져 있던가요?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숫자와 점들이 늘어선 표 다음에 이어지는 두 페이지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빠진 페이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찢어 갔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밤사이 한 번도 제 방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요?"

"오늘 아침에는 마시방 씨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이 책을 여기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아니, 그럴 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조르주…… 제 아들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조르주가 이 책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보트를레와 마시방, 남작이 그녀를 급히 따라 나섰다. 아이는 방에 없었다. 온갖 곳을 뒤졌다. 마침내 성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너무 초조해 보였고, 위압적으로 다그쳤기에 아이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인들을 다그쳐 물었다. 형언할 수 없는 소동이었다.

보트를레는 진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끔찍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빌모몽 부인의 팔을 잡고, 남작과 마시방이 뒤따르는 가운데 그녀를 다시 살롱으로 데려간 뒤 이렇게 말했다.

"책이 불완전하군요. 두 페이지가 찢겨 나갔지만, 당신은 그 내용을 읽었죠, 마담?"

"그 두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매우 호기심 있게 다 읽어보았어요. 하지만 특히 그 두 페이지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어 저를 크게 놀라게 했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암성……"

"아, 아주 간단합니다. 기암성이란 바로……"

그때 하인이 들어왔다.

"마담께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음? 그런데 우체부는 이미 지나갔는데."

"아이에게 건네받은 편지입니다."

빌모몽 부인이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더니,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곧 쓰러질 듯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보트를레가 그것을 주워 들고는, 사과할 겨를도 없이 그 역시 편지를 읽었다.

"입을 다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네 아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녀가 더듬거렸다. 기운이 너무 없어, 위협받는 아들을 구하러 갈 수조차 없었다.

보트를레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라면," 마시방이 슬며시 끼어들었다. "아르센 뤼팽일지도 모르죠."

보트를레는 손짓으로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적이 다시 그곳에, 빈틈없이 경계하며 무슨 짓이든 할 각오로 와 있다는 것을. 바로 그렇기에 그는 빌모몽 부인에게서 그토록 오래 기다려 온 결정적인 말을, 그것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빼내려 한 것이다.

"부디, 부인,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아무 위험도 없어요……"

그녀가 입을 열 것인가?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바랐다. 그녀가 몇 마디를 더듬거렸다. 그러나 문이 또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하녀가 들어왔다.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조르주 도련님이…… 부인…… 조르주 도련님이."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힘을 되찾았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결코 빗나가지 않는 본능에 이끌려 그녀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현관을 가로질러 테라스로 달려갔다. 그곳 안락의자 위에 어린 조르주가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아니, 뭐야! 자고 있잖아!……"

"갑자기 잠들었어요, 마님." 하녀가 말했다. "못 자게 하려고 방으로 안아 옮기려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잠들어 있었고, 손이…… 손이 차가웠어요."

"차가웠다고!"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맞아…… 아! 하느님, 하느님…… 제발 깨어나기만 한다면!"

보트를레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고, 검지로 방아쇠를 건 채 느닷없이 총을 꺼내 마시방을 향해 쏘았다.

말하자면 미리, 마치 이 젊은이의 동작을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마시방은 그 일격을 피했다. 하지만 보트를레는 이미 그에게 달려들며 하인들을 향해 외쳤다.

"날 도와줘! 저자는 뤼팽이야!……"

그 충격에 마시방은 등나무 의자 중 하나에 나동그라졌다.

칠팔 초쯤 지나 그가 몸을 일으켰다. 보트를레는 멍하니 숨을 헐떡이는 채로 남았고, 뤼팽은 젊은이의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좋아…… 완벽해…… 움직이지 마…… 한 이삼 분은 그러고 있을 거야…… 그 이상은 아니고…… 그나저나 정말, 날 알아보는 데 시간 꽤 걸렸군. 내가 마시방으로 그럴듯하게 변장하긴 했나 보지?……"

그는 몸을 곧추세웠고, 이제 두 다리로 든든히 버티고 선 채 단단한 상체에 위압적인 태도로, 돌처럼 굳어 버린 세 하인과 어리둥절한 남작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이지도르, 너 실수했어. 내가 뤼팽이라고 저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나한테 덤벼들었을 거야. 게다가 저런 건장한 놈들이라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됐겠어! 일 대 사라니!"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 얘들아, 겁내지 마라…… 너희를 해치진 않을 테니까…… 자, 보리 사탕 한 조각 줄까? 기운이 날 거다. 아, 너 말이야, 너는 내 백 프랑짜리 지폐를 돌려줘야겠다. 그래, 그래, 너 알아봤어. 방금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네 여주인께 편지를 전하게 한 게 너잖아…… 자, 어서, 못된 하인 놈아……"

그는 하인이 내미는 파란 지폐를 받아 잘게 찢어 버렸다.

"배신의 대가라…… 손이 다 타는군."

그는 모자를 벗고 빌모몽 부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부인? 인생의 우연이란, 특히 제 인생의 우연이란 종종 저 자신부터가 부끄러워할 잔인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염려 마십시오. 심문이 벌어지는 동안 팔에 주삿바늘을 살짝, 아주 작게 한 번 찌른 것뿐입니다. 길어야 한 시간이면 흔적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부인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벨린 남작의 친절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 뒤, 지팡이를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여 한 개비를 남작에게 권하고는, 좌중을 향해 모자를 빙 둘러 까딱여 보였다. 그리고 보트를레에게 짐짓 어른 행세를 하는 말투로 외쳤다.

"잘 있어라, 아기야!"

그러고는 하인들의 코앞에 담배 연기를 뿜어 대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보트를레는 몇 분간 기다렸다. 한결 진정된 빌모몽 부인은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보트를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해 보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가 결코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기서도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기암성의 비밀은 과거의 어둠 속만큼이나 깊이 묻혀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단념하고 떠났다.

열 시 삼십 분이었다. 열한 시 오십 분에 기차가 있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공원 오솔길을 따라가다 역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래, 이번 건 어땠어?"

길가에 붙은 숲에서 불쑥 나타난 것은 마시방, 아니 정확히는 뤼팽이었다.

"제대로 잘 꾸민 수였지? 네 옛 친구가 줄타기 솜씨가 제법이지? 너 분명 어안이 벙벙하지? '금석문·순문학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마시방이라는 자가 정말로 존재하기는 했나?' 하고 자문하고 있겠지? 그럼, 존재하고말고. 네가 얌전히 굴면 직접 보여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우선, 네 권총부터 돌려주마…… 장전됐는지 보는 거냐? 그래, 맞아, 친구. 다섯 발이 남아 있고, 그중 한 발이면 나를 저승으로 보내기에 충분하지…… 자, 주머니에 넣겠어?…… 그래, 됐어…… 네가 저기서 한 짓보다는 이게 낫군…… 아까 그 행동은 고약했어! 하지만 뭐, 젊으니까. 문득, 번쩍! 또 한 번 그 빌어먹을 뤼팽한테 당했다는 걸 깨닫고, 그자가 바로 세 걸음 앞에 서 있으니…… 탕, 쏴 버린 거지…… 원망 안 해, 정말로…… 그 증거로, 내 백 마력짜리 차에 너를 태워 주겠다는 거 아니냐. 어때, 좋지?"

그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불었다.

위엄 있어 보이는 늙은 마시방의 외모와, 뤼팽이 짐짓 부리는 장난기 어린 몸짓과 말투 사이의 대비가 어찌나 우스웠던지, 보트를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웃었어! 웃었어!" 뤼팽이 기뻐서 펄쩍 뛰며 외쳤다. "봐라, 아기야, 너한테 부족한 건 바로 미소야…… 너는 나이에 비해 좀 너무 진지해…… 아주 호감 가는 녀석이야, 순진하고 소박한 매력이 넘쳐…… 하지만 솔직히, 넌 웃을 줄을 몰라."

그는 보트를레 앞에 떡 버티고 섰다.

"하하, 네가 울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네 수사를 따라잡았는지 알아? 마시방이 너에게 쓴 편지, 그리고 그가 오늘 아침 벨린 성에서 잡은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야. 다 네 친구, 너랑 같이 사는 그 멍청이 덕분에 들었지. 너는 그 녀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그 녀석은 부리나케 자기 애인한테 죄다 털어놨지. 그리고 그 애인은 뤼팽한테는 비밀이 없거든. 내가 뭐랬어? 너 영 안색이 안 좋네… 눈물까지 글썽이고… 우정에 배신당했으니, 응? 속상하지…

너 참 사랑스럽다, 꼬마야… 자칫하면 껴안아 주고 싶을 지경이야… 너의 그 놀란 눈빛은 늘 내 가슴에 곧장 와닿거든… 며칠 전 저녁, 가이옹에서 네가 나한테 상담했던 거,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 맞아, 그 늙은 공증인이 바로 나였지… 자, 웃어 봐, 꼬마야… 진짜, 다시 말하지만, 넌 도통 웃질 않아. 넌 좀… 뭐랄까? '발랄함'이 부족해. 나? 나한텐 그 '발랄함'이 있지."

가까운 곳에서 엔진이 헐떡이듯 고동치는 소리가 들렸다.

뤼팽은 보트를레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그리고 차가운 어조로,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이제 좀 조용히 있어, 알았지? 봐서 알잖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그러니 괜히 기운 빼고 시간 낭비해서 뭐 하겠어? 세상엔 도둑놈이 널렸어… 그놈들이나 쫓아가고, 날 좀 내버려둬… 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다, 알겠지?"

그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보트를레를 흔들었다. 그러더니 비웃듯 픽 웃었다.

"내가 바보지! 네가 날 가만히 놔둘 거라고? 넌 쉽게 물러설 녀석이 아닌데… 아, 뭐가 날 말리는지 모르겠군… 눈 깜짝할 새에 너를 꽁꽁 묶고 재갈을 물려서… 두 시간 뒤엔 몇 달 동안 감옥에 처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손가락이나 까딱거리며, 내 조상들, 프랑스 왕들이 마련해 준 평화로운 은신처로 물러나, 그분들이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 쌓아둔 보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 하지만 안 되지, 난 끝까지 헛발질을 할 운명인가 봐… 어쩌겠어? 누구나 약점은 있는 법… 그리고 난 너한테 약점이 하나 있지… 게다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네가 기암의 빈 구멍에 손가락을 갖다 대기까지는 다리 밑으로 강물이 한참 흘러갈 거야… 젠장! 나, 뤼팽도 열흘이 걸렸어. 너는 십 년은 족히 걸릴걸. 그래도 우리 둘 사이엔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지."

자동차가 다가왔다. 차체가 완전히 막힌 거대한 리무진이었다.

뤼팽이 문을 열자, 보트를레는 비명을 질렀다.

리무진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뤼팽, 아니 차라리 마시방이었다.

보트를레는 문득 모든 것을 깨닫고 웃음을 터뜨렸다. 뤼팽이 그에게 말했다.

"참지 마, 푹 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사정이 이해가 가지? 자정 무렵에 난 너희가 성에서 만나기로 한 걸 알고 있었어. 아침 일곱 시엔 벌써 거기 가 있었고. 마시방이 지나갈 때 그냥 낚아채기만 하면 됐지… 그리고 주사 한 대… 그걸로 끝! 잘 자게, 친구… 이제 자넬 비탈에 내려놓을 거야… 춥지 않게 햇볕 잘 드는 데로… 자, 가자… 좋아… 완벽해… 더할 나위 없군… 모자는 손에 들고!… 한 푼 줍쇼, 나리들…

아! 마시방 영감, 자네가 뤼팽을 상대하시겠다?"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두 마시반이 마주 보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은 잠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중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가엾은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게나… 자, 마시방, 여기 동전 두 닢과 내 명함이네… 이제 얘들아, 전속력으로 튀자… 들리나, 운전수? 시속 120킬로로 달려. 타게, 이지도르… 오늘 학사원 전체 회의가 있거든. 마시방은 세 시 반에 뭔지 모를 짧은 논문을 낭독해야 해. 그래, 그 논

문은 내가 대신 읽어주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완벽한 마시방을 그들 앞에 선보일 거야. 호상(湖上) 명문에 대한 내 나름의 견해까지 곁들여서 말이지. 모처럼 학사원 회원이 됐으니까. 더 밟아, 운전수, 겨우 115킬로밖에 안 나오잖아… 겁나나? 자네가 뤼팽이랑 같이 있다는 걸 잊었군… 아, 이지도르, 인생이 단조롭다고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사랑스러운 거야, 꼬마야. 다만 즐길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난 그걸 알지… 아까 성에서 네가 노 벨린 영감과 수다를 떨 때, 내가 창문에 딱 붙어서 그 역사책 페이지를 찢고 있었으니, 어찌 기뻐 죽을 지경이 아니었겠어! 그러고 나서 네가 빌몽 부인에게 기암성에 대해 캐물을 때는 또 어땠고! 그녀가 말할까? 그래, 말하겠지… 아니, 안 할 거야… 한다… 안 한다… 소름이 다 돋더군… 그녀가 입을 열면 내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 하인이 제때 와줄까? 온다… 안 온다… 저기 온다… 그런데 보트를레가 내 가면을 벗겨버리면? 천만에! 너무 맹해서 못 해! 한다… 아니… 자, 됐다… 아니, 아직이야… 한다… 날 빤히 쳐다보네… 됐다… 권총을 꺼내려나… 아, 얼마나 짜릿한지!… 이지도르, 너 말이 너무 많아… 자자, 응? 나 졸려 죽겠어… 잘 자게…”

보트를레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잠들기 직전처럼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잠들어 있었다.

자동차는 공간을 향해 질주했고, 지평선은 계속 다가오면서도 항상 도망치듯 멀어졌다. 더 이상 도시도, 마을도, 들판도, 숲도 없었다. 오직 공간뿐이었다. 삼켜지고, 삼켜지는 공간.

오랜 시간 보트를레는 열렬한 호기심으로 여행 동반자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을 가린 가면 너머, 진정한 표정을 읽어내고 싶었다. 그는 이 순간, 이 좁은 자동차 안에서 둘이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된 사연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아침의 격정과 실망으로 지친 보트를레는 결국 잠들고 말았다.

보트를레가 깨어났을 때, 뤼팽은 책을 읽고 있었다. 보트를레는 책 제목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철학자 세네카의 작품이었다.

제8장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 뤼팽도 열흘이 걸렸는데, 넌 십 년은 족히 걸릴 거야!"

이 말은 뤼팽이 벨린 성을 나서며 던진 것이었다. 이 한마디가 보트를레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자신을 다스리던 뤼팽이었지만, 때로는 격앙된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약간 낭만적이면서도 연극적이고, 동시에 천진한 태도로 자신을 드러냈고, 그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백이나 말을 흘렸는데, 보트를레 같은 소년이라면 그 말에서 유용한 단서를 건져낼 수 있었다.

보트를레는 이 문장을 무의식적인 자백의 하나로 보았다. 옳게 본 것인지 잘못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결론지을 만했다.

만약 뤼팽이 '기암성'의 진실을 쫓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보트를레의 노력을 나란히 견준 것이라면, 그것은 둘이 목적에 이르는 동일한 수단을 가졌다는 뜻이었다. 즉 뤼팽 자신도 상대가 가진 것과 다른 성공 요소를 가졌던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승산은 같았다. 그리고 그 같은 승산, 같은 성공 요소를 가지고도 뤼팽에게는 열흘이면 충분했다.

그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수단과 기회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결론은 간단했다. 1815년에 간행된 소책자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뤼팽은 마시방처럼 우연히 그 소책자를 손에 넣었을 것이고, 그 덕분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사경본에서 필수적인 문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따라서 소책자와 문서, 이 두 가지만이 뤼팽이 의지한 유일한 토대였다. 그는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재구성해 냈다. 외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소책자를 연구하고 문서를 연구하는 것, 그게 다였다.

보트를레는 굳이 같은 자리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불가능한 싸움을 왜 하겠는가?

그가 발걸음마다 겹겹이 놓인 함정을 피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결과뿐이었다. 이런 헛된 수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의 결단은 분명하고 즉각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르는 동안,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행복한 직감을 느꼈다.

우선 그는 장송 드 사이 동창에게 쓸데없는 불평 없이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이리저리 길을 돌고 돌아 파리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그는 며칠씩이나 그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기껏해야 공동 식탁에서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의 커튼을 빈틈없이 친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열흘." 아르센 뤼팽은 그렇게 말했다.

보트를레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잊고 오직 소책자와 문서의 요소들만 떠올리려 애쓰며, 그 열흘이라는 기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열흘째 날이 지나갔고, 열하루째도, 열이틀째도 흘렀다.

그러다 열사흘째 되던 날, 그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리고 마치 우리 안에서 기적의 식물처럼 자라나는 생각들이 그러하듯, 당혹스러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실이 솟아오르고, 활짝 피어나고, 단단해졌다.

그 열사흘째 날 저녁, 그는 문제의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곧 뤼팽이 틀림없이 사용했을 그 효과적인 방법만큼은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소책자가 기암성의 신비를 결부시킨, 크고 작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건이 너무 다양해서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보트를레가 깊이 파고들어 조사한 끝에, 모든 사건에 공통된 한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예외 없이 모든 사건은 옛 뉴스트리아 영토 안에서 벌어졌다. 그 영역은 오늘날의 노르망디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이 기묘한 모험의 주인공들은 모두 노르만인이거나, 노르만인이 되거나, 노르망디 땅에서 활동하는 자들이었다.

세기를 가로지르는 그 격렬한 질주,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출발해 이 세상 한구석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 모든 남작들과 공작들, 그리고 왕들이 펼치는 그 감동적인 광경은 또 어떠한가!

보트를레는 닥치는 대로 역사를 뒤적였다.

생클레르쉬르엡트 조약 이후, 기암성의 비밀을 손에 쥔 이는 바로 롤, 혹은 롤론이었다. 그는 노르망디의 첫 공작이었다.

노르망디 공작이자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정복왕 빌렘도 있었다. 그의 깃발에는 바늘처럼 뚫린 자국이 있었다.

영국인들이 비밀의 주인인 잔 다르크를 화형에 처한 곳도 바로 루앙이었다.

그리고 이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카이사르에게 몸값을 치르기 위해 기암성의 비밀을 바친 칼레족의 지도자. 그는 노르망디 한복판에 자리한 코 지방, 즉 코 땅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아니었던가?

가설이 구체화된다. 범위가 좁혀진다. 루앙, 센 강변, 코 지방…… 정말 모든 길이 이쪽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특히 프랑스 왕 두 사람이 거론된다. 노르망디 공작들과 그 후손인 잉글랜드 왕들에게는 이미 사라져 버린 이 비밀이, 이제 프랑스 왕실만의 비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한 사람은 앙리 4세, 루앙을 포위하고 디에프 입구의 아르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앙리 4세다. 또 한 사람은 르아브르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프랑수아 1세다.

"프랑스 왕들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밀을 품고 있다."

루앙, 디에프, 르아브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이다. 이 세 대도시가 삼각형의 세 끝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코 지방이 자리 잡고 있다.

17세기가 된다. 루이 14세는 어느 미지의 인물이 진실을 폭로한 책을 불태운다.

라르베리 대위는 그 책 한 부를 손에 넣었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비밀을 이용해 보석 몇 점을 훔쳤고, 노상강도들에게 습격받아 살해당했다.

그런데 그 습격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을까?

가용(Gaillon)이다. 르아브르, 루앙, 디에프에서 파리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도시다.

1년 뒤, 루이 14세는 한 영지를 사들여 기암성을 짓는다. 그는 어디에 성을 세웠을까? 프랑스의 한가운데였다.

그렇게 하면 호기심 많은 자들은 길을 잃는다. 노르망디에서는 결코 찾지 않을 테니까.

루앙… 디에프… 르아브르… 코 지방의 삼각지대……

모든 것이 여기 모여 있다.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센 강이 흐른다. 그리고 루앙에서 디에프로 이어지는 두 계곡이 있다.

보트를레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다.

센 강 절벽에서 만슈 해협 절벽까지 이어지는 고지대의 이 넓은 땅. 그곳은 거의 언제나 뤼팽이 활동하던 무대였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을 철저하게 수탈해 왔다. 마치 '기암성' 전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땅 한가운데에 자신의 은신처를 둔 것처럼 말이다.

카혼 남작 사건은? 루앙과 르아브르 사이, 센 강변에서 일어났다.

티베르메니 사건은? 고지대의 다른 끝, 루앙과 디에프 사이에서 벌어졌다.

그뤼셰, 몽티니, 크라스빌의 절도 사건은? 바로 코 지방 한복판에서 자행되었다.

뤼팽은 어디로 향하던 중 라퐁텐 거리 살인범 피에르 온프리에게 객실 안에서 습격받고 묶였을까? 루앙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뤼팽에게 사로잡혔던 헐록 숌즈는 어디로 실려 갔을까? 르아브르 근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무대는 어디였는가? 르아브르에서 디에프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앵브뤼메지였다.

루앙, 디에프, 르아브르. 늘 같은 '코 지방 삼각지대'였다.

그렇다면 몇 년 전, 그 소책자를 손에 쥐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문서를 숨긴 곳을 알고 있던 아르센 뤼팽은 마침내 그 유명한 시간기도서를 손에 넣었다. 문서를 확보한 그는 곧바로 원정을 떠나 비밀을 찾아냈고, 정복한 땅에 자리를 잡았다.

보트를레도 원정을 떠났다.

그는 진심 어린 감정을 안고 떠났다. 뤼팽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그 여정을 떠올리며. 뤼팽이 그 비밀을 찾아 나서던 날,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바로 그 기대와 희망을 그는 공유하고 있었다.

그가 찾아내려던 것은 위대한 힘으로 그를 무장시켜 줄 놀라운 비밀이었다.

보트를레의 노력 역시 같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는 일찍 루앙을 나섰다. 걸어서였다. 얼굴은 철저히 가장했고, 지팡이 끝에는 가방을 매어 등에 업었다. 마치 프랑스 전역을 누비는 견습공처럼.

그는 곧장 뒤클레르로 향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은 뒤 센 강을 따라 걸었고, 사실상 센 강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여러 추측으로 한층 굳건해진 그의 직감은 늘 그를 아름다운 강의 굽이진 기슭으로 되돌려보냈다. 카혼 성이 털리면 그 수집품들은 센 강을 타고 빠져나간다. 라 샤펠디외가 약탈당하면 조각된 오래된 돌들은 센 강 쪽으로 운반된다. 그는 루앙에서 르아브르까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거룻배 선단이 이 지역의 예술품과 부를 끌어모아, 그곳에서 다시 억만장자들의 나라로 실어 보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실이 잇따른 큰 충격으로 그를 내리치는 동안, 젊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떨면서 중얼거렸다.

첫날의 실패가 그를 낙담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을 이끄는 가설이 정확하다는 데에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과감하고 지나치기까지 했지만, 상관없었다. 이 가설은 쫓고 있는 적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 가설은 '뤼팽'이라는 놀라운 실존 인물에 걸맞은 것이었다.

그런 남자를 상대하는 마당에, 거대하고 과장되고 초인적인 것을 벗어난 곳에서 단서를 찾을 까닭이 있겠는가?

쥬미예즈, 라 마이예라이, 생완드리유, 코드벡, 탱카르빌, 킬레보프. 이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가 그곳들의 고딕 첨탑이 뽐내는 영광이나 광활한 유적의 장엄함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았을 것인가.

하지만 르아브르와 그 주변은 등대 불빛처럼 이지도르를 끌어당겼다.

"프랑스 왕들은 도시의 운명을 종종 좌우하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보트를레에게 갑자기 어둡기만 하던 말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프랑수아 1세가 그곳에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한 정확한 이유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르아브르의 운명이 기암성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가?

"맞아요… 맞아요…" 보트를레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르망디의 옛 하구. 그것은 프랑스 국민성이 형성된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이자, 근원적인 핵이었다. 이 옛 하구는 두 가지 힘으로 완성된다.

하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살아 있고 알려진 힘이다. 새로운 항구로, 대양을 지배하며 세계로 열린 곳이다.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알려지지 않은 힘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더욱 불안하다.

프랑스의 역사와 왕가의 역사는 '기암' 하나만 알면 설명된다. 뤼팽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왕가의 부를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와 권력의 원천은, 바로 모험가 뤼팽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보트를레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강에서 바다로 이리저리 헤매며 코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사물 자체에게서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려 애썼다.

저 언덕을 캐물어야 할까? 아니면 저 숲일까? 저 마을의 집들일까? 저 농부의 하찮은 말들 속에서 실마리가 될 한마디를 거둘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그는 강어귀의 옛 도시 옹플뢰르가 내려다보이는 여관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노르망디의 말 장수 하나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붉은 얼굴에 육중한 몸집의 그는 손에 채찍을 들고 등에 긴 작업복을 걸친 채, 그 지역 장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보트를레는 그 남자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아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 내가 착각했군. 나는 저 말 장수를 본 적이 없고, 저자도 나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실제로 그 남자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기색이었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커피와 코냑을 주문한 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식사를 마친 보트를레는 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는 말 장수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에 몇 초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는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을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보트를레 씨."

이지도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말했다.

"네, 접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신문에서 당신 사진밖에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너무…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더라?… 변장이 너무 서투르시더군요."

그는 아주 뚜렷한 외국 억양을 지니고 있었다. 보트를레는 그를 살펴보니, 자신도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외국인은 미소 지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당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십니까? 저 역시 신문에 내 사진이 실리곤 합니다. 자꾸 자꾸요. 어때요, 맞나요?"

"헐록 숌즈."

이 만남은 특이했다. 동시에 의미심장했다. 젊은 남자는 그 의미를 즉각 파악했다. 서로 예의를 다한 후, 그는 숌즈에게 물었다.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은…… 그를 위해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군요. 우리도 그쪽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있군요."

"저는 확신합니다."

보트를레는 숌즈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전하지 않았다.

영국인이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승리는 반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가 자신보다 먼저 도착하지는 않을지 알 수 없었다.

"당신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단서가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영국인이 그의 불안감을 이해한 듯 비웃었다. "당신의 발자국을 밟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문서나 소책자 같은 것에 의존하죠. 그런 것들은 저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요?"

"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실례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왕관 사건, 샤머래스 공작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뤼팽의 옛 젖비양인 빅투아르, 그리고 가니마르 형사가 잘못 만든 구금차 안에서 놓쳐버린 그 노파를 잊지 않았습니까?"

"비크투아르의 흔적을 다시 찾았소. 그녀는 국도 25번선 근처 농장에서 살고 있단다. 국도 25번선은 르아브르에서 릴로 이어지는 길이지. 비크투아르를 통해 뤼팽에게 쉽게 다다를 수 있을 거야."

"오래 걸릴 걸세."

"상관없어. 나는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았소. 이제 남은 건 이 일뿐이니까. 뤼팽과 나는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야. 죽음에 이르는 싸움이지."

그는 그 말들을 마치 야수처럼 내뱉었다. 그 목소리에는 수치심을 겪으며 쌓아온 모든 원한과, 자신을 잔인하게 속인 큰 적에 대한 맹렬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가시오.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어… 위험하오.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하시오. 뤼팽과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이 오면, 그건… 그건 비극이 될 것이오."

보트를레는 헐록 숌즈를 안심하고 떠났다. 영국인이 자신을 앞질러 갈 일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 만남은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를 안겨주었다. 르아브르에서 릴로 가는 길은 디아프를 지난다. 바로 카우 지방의 주요 해안 도로가 바로 그곳이다. 만주의 절벽을 조망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

그리고 바로 그 도로 근처 농가에 비크투아르가 숨어 있었다. 비크투아르, 다시 말해 뤼팽이 그곳에 있었다. 주인과 하녀는 항상 함께였으니까. 주인이 없는 곳에 하녀가 있을 수 없듯, 항상 주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비크투아르와 뤼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타오른다… 타오른다…" 젊은이가 중얼거렸다.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 때마다 그의 추측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세느강변에서는 절대적인 확신이, 국도에서는 또 다른 확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길은 르아브르에서 만난다. 프랑수아 1세의 도시, 비밀의 도시.

추궁의 범위가 좁혀져 간다.

코 지역은 그리 넓지 않다. 게다가 지금 내가 뒤져야 할 곳은 코 지역의 서쪽 부분에 불과하다.

보트를레는 다시 분주히 일을 시작했다.

'뤼팽이 찾아낸 것을 내가 못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되뇌었다. 물론 뤼팽은 자신에게 몇 가지 큰 우위가 있었다. 아마도 이 지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겠지. 지역 전설에 관한 정확한 자료도 가지고 있을 테고.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 즉 기억력일지도 모른다. 기억력은 정말로 귀중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보트를레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땅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암브루메지 절도 사건 당시 처음 이 곳을 들렀을 때에도, 잠깐 들러 지나갈 뿐 오래 머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수사에 십 년을 바쳐야 한들,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뤼팽이 있었다. 그는 그를 보았다. 그는 그를 직감했다. 그는 그 길목의 꺾임에서, 이 숲 가장자리에서, 이 마을을 벗어나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번 실망했지만, 오히려 그 실망마다 그는 더 강렬한 집념을 얻은 듯했다.

자주 그는 길가 언덕에 털썩 주저앉아, 항상 소지하고 있던 문서 사본을 열정적으로 분석했다. 모음자를 숫자로 바꾼 그 사본을 말이다.

또한 평소 습관대로, 그는 키 큰 풀밭에 엎드려 몇 시간이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에게는 시간이 충분했다. 미래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놀랄 만한 인내심으로 세네 강과 바다를 오갔다.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그는 조금씩 거리를 벌렸가도 다시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단서 하나라도 건질 이론적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모티빌리에, 생로맹, 오텍빌, 고뇌빌, 크리케토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저녁마다 농가들을 찾아들어가 묵소를 청했다.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함께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다. 그는 그들에게 겨울철 긴 밤에 서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항상 그 구질구질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아귀유? 아귀유 속공의 전설…… 그거 아시나요?"

"음, 모르겠네요……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잘 찾아봐요. 옛날 유모가 들려주던 동화 같은 이야기요. 바늘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쩌면 마법의 바늘일지도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없었다. 전설도, 기억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신나게 출발했다.

어느 날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마을 생주앙을 지나, 절벽에서 무너져 내린 암석들이 어지럽게 널린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고원으로 올라가 브뇌발의 계곡, 안티페 곶, 그리고 작은 만인 벨플라쥬 쪽으로 향했다.

그는 경쾌하고 가볍게 걸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삶이 너무도 행복했다. 그 행복이 너무 커서 그는 뤼팽과 기암성의 미스터리, 비크 투아르, 그리고 숌즈까지 모두 잊어버렸다. 오직 주변의 경치, 푸른 하늘, 햇살에 눈부신 에메랄드빛 큰 바다에만 관심을 쏟았다.

곧 직선으로 뻗은 흙둑과 벽돌로 쌓인 벽 잔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곳이 로마 군영의 유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한 채의 작은 성채가 보였다. 오래된 요새를 본떠 지은 것이었다. 균열이 간 작은 탑들과 높은 고딕식 창문들이 특징이었다. 성채는 절벽 위에 우뚝 선,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은 반도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절벽에서 거의 떨어져 나온 듯한 곳이었다.

좁은 진입로는 철제 울타리와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수비대로 막혀 있었다.

보트를레는 힘겹게 그 틈을 빠져나왔다.

그는 첨두형 문 위에 붙은 낡고 녹슨 자물쇠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 위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프레포세 요새'.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작은 경사면을 내려갔다. 그러자 나무 난간이 설치된 토대 위를 달리는 작은 길이 나타났다.

길 끝에는 아주 작은 동굴이 있었다. 절벽 끝자락에 파인 그 동굴은 마치 작은 초소처럼 보였다. 그곳은 바다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굴 한가운데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다. 벽면에는 수많은 글씨가 뒤섞여 새겨져 있었다. 바위 한복판에 뚫린 네모반듯한 구멍은 땅쪽을 향해 작은 창처럼 열려 있었고, 정확히 그 앞에는 프레포세 요새가 있었다. 서른에서 마흔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요새의 톱니 모양 성벽이 보였다.

보트를레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하루 종일 더웠고 지쳤다. 그는 잠시 잠들었다.

동굴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그를 깨웠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그는 생각하려 애썼다. 아직 흐릿했던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그리고 점차 의식이 선명해져 일어나려던 찰나,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고정된 눈, 커진 눈동자가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한을 느꼈다. 손이 꽉 쥐어졌고, 땀방울이 머리끝에서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아니… 이건 꿈이야. 환각일 뿐이야… 세상에, 정말일 수가 있어?"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몸을 숙였다.

바닥의 화강암 위에 두 개의 거대한 글자가 돌출되어 새겨져 있었다. 아마 각각 한 자 길이쯤 되었을까.

세월의 마모로 모서리는 둥글게 닳고 표면은 윤이 났지만, 분명하고 또렷하게 조각된 두 글자. 그것은 D와 F였다.

D와 F!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정확히 두 글자, 문서에 적힌 두 글자뿐이었다.

보트를레는 그 글자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네 번째 줄, 길이와 지시사항이 적힌 줄의 글자들이었다.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 글자들은 그의 눈동자 깊숙이 새겨져 있었으며,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가파른 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옛 요새 옆을 따라 다시 올라가, 난간의 가시 같은 철사에 몸을 기대어 건너뛰었다. 그리고 평

원의 물결처럼 일렁이는 언덕 위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 동굴이요, 저기…… 그 동굴……"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망설였다.

목동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래, 그 동굴 말이야. 거기, 요새 오른쪽에 있는 거. 이름이 뭐지?”

“음, 아마 있을걸. 에트레타 사람들은 다들 ‘데모아젤’이라고 부르거든.”

“뭐? 뭐라고? 뭘 말하는 거야?”

“에이, ‘데모아젤의 방’이요.”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치 모든 진실이 이 남자에게 깃들어 있어, 그에게서 진실을 단번에 빼앗아 낚아챌 수 있기라도 한 듯 목을 조르고 싶었다.

데모아젤!

문서에 적힌, 세상에 알려진 단 두 단어 중 하나였다.

보트를레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맹렬한 돌풍이 휘몰아쳤다. 바다에서, 땅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진실의 채찍으로 그를 내리쳤다.

그는 이해했다. 문서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그의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데모아젤의 방'…… 에트레타……

'맞아……' 그는 머릿속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것 말고는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왜 나는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지?'

그는 목동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가거라. 가도 좋아. 고마워."

목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개에게 휘파람을 불며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보트를레는 요새 쪽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요새를 거의 다 지나쳤을 무렵,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 담장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손을 비틀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미친 건가? 만약 그가 나를 본다면? 그의 공범들이 나를 본다면? 나는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이미 저물었다. 밤이 서서히 낮에 뒤섞이며 사물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어 갔다.

그는 아주 미세한 동작으로, 배를 바닥에 붙인 채 기어 올라갔다. 돌출된 곶의 끝부분을 따라, 절벽 가장자리까지 기어갔다.

그곳에 도달했다. 그는 뻗은 손끝으로 풀덤불을 치우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심연 위를 내려다보았다.

그 바로 앞, 절벽과 거의 같은 높이로,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높이가 여든 미터는 족히 넘었다. 물가에 드러난 넓은 화강암 기단 위에 똑바로 솟아, 꼭대기까지 가늘게 뻗어 올라간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바다 괴물의 이빨 같았다.

절벽처럼 희었으나 회색빛이 도는 더러운 흰색이었다. 이 끔찍한 거대 단석에는 부싯돌(규석)로 이루어진 가로줄무늬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는데, 수백 년 세월이 석회암 층과 자갈 층을 켜켜이 쌓아 올린 더딘 작업의 흔적이었다.

곳곳에 균열과 틈이 패여 있고, 바로 그 자리에 흙이 조금 쌓여 풀과 잎이 돋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위력적이고, 단단하며, 장엄했다. 파도와 폭풍의 격렬한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불멸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절벽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우뚝 솟아 있어도, 그 위용은 더할 나위 없이 장대했다. 끝없이 펼쳐진 공간 한가운데에 우뚝 섰음에도, 그 규모는 더욱 거대해 보였다.

보트를레의 손톱이 땅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냥감을 향해 덤벼들 준비를 한 짐승의 발톱 같았다. 그의 눈은 바위의 거친 표면, 마치 피부 같고 살 같아 보이는 그 표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바위를 더듬

었고, 만졌으며, 그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바위를 자신의 일부로 삼았다…

해가 지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하늘에 걸린 긴 구름들은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불타는 듯한 경치를 만들어냈다. 이상한 습지대처럼 보이는 곳, 불길에 휩싸인 평원, 황금빛 숲, 그리고 피처럼 붉은 호수들. 뜨겁지만 고요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하늘의 푸르름이 짙어졌다. 금성이 놀라운 빛으로 빛나더니, 이어 조심스럽게 별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보트를레는 갑자기 눈을 감았다. 팔을 굽혀 이마에 꽉 조여 쥐었다.

그곳, 저 멀리.

그는 기쁨에 죽을 것만 같았다. 마음을 옥죄는 감격이 너무도 격렬했기 때문이다. 에트레타 바늘바위 꼭대기 근처, 끝을 빙빙 도는 갈매기들 바로 아래였다.

한 줄기 연기가 틈새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굴뚝에서 새어 나오듯,

그 연기가 황혼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느린 나선을 그리며 피어올랐다.

제9장

에트레타의 바늘은 속이 비어 있다!

자연 현상일까? 지각의 격변이나 끓어오르는 바다, 스며드는 빗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파인 구멍일까? 아니면 갈리아인, 켈트인, 선사 시대 인간들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작품일까?

아마 풀 수 없는 질문들이리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중요한 것은 바늘이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아발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아치에서 마흔에서 쉰 미터쯤 떨어진 곳. 그 아치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처럼 절벽 꼭대기에서 솟아나 바닷속 암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곁에는 거대한 석회암 원뿔이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그 원뿔은 텅 빈 공간 위에 얹힌 뾰족한 껍데기 모자에 지나지 않는다.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뤼팽에 이어 보트를레가, 스무 세기(2천 년)가 넘는 세월 동안 드리워져 있던 그 거대한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이 말은 옛날, 야만족의 무리가 구세계를 누비던 먼 과거에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더없이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마법 같은 이 말은 적을 피해 도망치는 부족 전체를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 안으로 들여보낸다. 신비로운 이 말은 가장 침범하기 어려운 피난처의 문을 지켜준다.

그리고 위엄 있는 이 말은 권력을 쥐어주고 우위를 확고히 한다.

이 말을 알았던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해 노예로 삼았다. 이 말을 알았던 노르만인들은 이 땅에 자리를 잡았고, 그 뒤 이 거점을 발판 삼아 이웃 섬을 정복하고, 시칠리아를 정복하고, 동방을 정복하고, 신대륙까지 정복했다.

영국의 왕들은 비밀을 손에 쥐고 프랑스를 호령했다.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국토를 조각조각 내며, 파리에 올라와 스스로 왕관을 썼다. 그러나 그 비밀을 잃자,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반면 프랑스 왕들은 비밀을 익히자 세력이 커졌다. 좁은 영토의 한계를 넘어섰고, 점차 큰 나라를 일궈 나갔다. 영광과 권력으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밀을 잊었거나,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 결과는 죽음, 유배, 그리고 몰락이었다.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다. 물속 깊이, 땅에서 열 아홉 미터 아래에!

노틀담의 탑보다 더 높고, 광장 하나만큼 넓은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알려지지 않은 요새라니.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세느강을 따라 파리에서 바다까지. 그곳에 르아브르가 있다. 새로운 도시, 꼭 필요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일곱 리(리) 떨어진 곳에 기암성이 있다. 이보다 더 함락할 수 없는 피난처가 또 있겠는가?

그곳은 피난처이자 동시에 놀라운 숨겨진 보루다.

세기를 거듭하며 불어난 왕들의 보물, 프랑스의 모든 금,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 성직자들로부터 뜯어낸 것들, 유럽 전장의 전리품까지. 왕의 동굴에 그것들이 모두 쌓여 있다.

오래된 금화, 빛나는 은화, 더블론, 두카트, 플로린, 구이니. 그리고 보석과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과 장신구가 그곳에 있다.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영원히 풀 수 없는 바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있다. 뤼팽이다.

그렇게 뤼팽은 우리가 잘 아는, 실로 기이한 존재가 된다. 진실이 어둠 속에 가려진 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로 남는다.

그의 재능이 아무리 무한하더라도, 그가 '사회'와 벌이는 싸움에 모든 것을 바치기는 부족하다. 그는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확실한 은신처가 필요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평화가 필요하다.

기암성이 없다면, 뤼팽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신화가 되고, 소설 속 인물에 불과해진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상이 된다.

하지만 그는 비밀의 주인이다. 그야말로 놀라운 비밀의.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운명이 그에게 내려준 놀라운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 바늘은 속이 비어 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물론 바다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수가 특정 시각에 이르면, 외해 쪽으로 작은 배들이 접근할 수 있는 틈새가 어딘가 반드시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육지 쪽은 어떨까?

보트를레는 밤 열 시까지 심연 위에 몸을 내민 채, 피라미드 모양 바위가 드리운 어둠의 덩어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온 정신을 다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 뒤 그는 에트레타로 내려가 가장 소박한 호텔을 골라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가 문서를 펼쳤다.

이제 그에게는 그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는 일이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곧장 ‘에트레타’라는 단어의 세 모음이 첫 줄에, 정확한 순서와 간격으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첫 줄은 이렇게 채워졌다.

에트레타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바늘바위가 마을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일 터였다. 바늘바위는 왼쪽, 서쪽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해안에서 서풍을 ‘아발(하류) 바람’이라 부르고, 실제로 그 문도 ‘아발 문’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렇게 적었다.

에트레타 서쪽에

두 번째 줄에는 'Demoiselles(데모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단어 앞에 'la chambre des(~의 방)'를 이루는 모음들이 연달아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곧장 알아챘다. 그리고 이렇게 두 구절을 정리했다.

에트레타 하류 — 데모젤의 방

세 번째 줄은 좀 더 애를 먹었다. 더듬더듬 고민하던 그는, 문득 '데모젤의 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옛 프레포세 요새 자리에 세워진 별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는 거의 완성된 이 문서를 마침내 이렇게 복원해 냈다.

에트레타 하류 — 데모젤의 방 — 프레포세 요새 아래 — 속이 빈 바늘바위

이 네 가지가 바로 핵심 공식들이었다. 이 공식들을 따라가면 에트레타 하류로 내려가서 데모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프레포세 요새 아래를 지나서 바늘바위까지 도달하게 될 터였다.

그런데 어떻게?

네 번째 줄에 적힌 지시와 측정값을 통해서였다.

이것들은 분명히 더 구체적인 공식들이었다. 바늘바위 안으로 들어가는 출구를 찾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데 쓰이는 공식들이었다.

보트를레는 곧장 추측했다. 문서의 논리적 귀결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육지와 아귀유의 오벨리스크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가 있다면, 그 지하 터널은 데모젤의 방에서 시작해 프레포세 요새를 지나, 절벽 끝에서 100미터를 수직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 바다 바위 밑을 뚫은 터널을 통해 빈 아귀유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 터널의 입구는 어디일까? 선명하게 조각된 두 글자 'D'와 'F'가 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기교 넘치는 장치를 통해 그 입구를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내내 이지도르는 에트레타를 거닐며 여기저기서 사람들과 잡담을 나눴다. 유용한 단서를 하나라도 캐내려는 생각이었다.

오후가 되어 드디어 그는 절벽 위로 올랐다. 선원으로 변장한 그는 한층 더 앳돼 보였다. 너무 짧은 반바지에 어부의 줄무늬 셔츠 차림이어서 열두 살짜리 꼬마 같았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곧 실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글자를 두드려도, 밀어도, 온갖 방향으로 만져 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금방 깨달았다. 글자들은 정말로 움직일 수 없었고, 따라서 어떤 장치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 기호들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기호들이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노르망디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학자인 코셰 신부조차, 에트레타에 관한 그의 귀중한 저서에서 이 작은 수수께끼를 풀려다 실패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지도르는 그 학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로 문서의 지시 사항 줄에 같은 두 개의 기호가 또다시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너무도 합리적이고 단순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D와 F는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의 첫 글자가 아니었을까? 그 단어들은 바늘바위와 더불어, 따라가야 할 길의 핵심 지점들, 즉 '데모젤의 방'과 '프레포세 요새'를 가리켰다.

데모젤의 D, 프레포세의 F. 이토록 기묘한 대응은 우연의 산물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제시되었다.

DF는 데모젤의 방과 프레포세 요새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줄의 시작을 알리는 단독 문자 D는 데모젤, 즉 먼저 잠복해야 할 동굴을 뜻합니다. 줄 중간에 위치한 단독 문자 F는 프레포세, 즉 지하 통로의 입구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들 기호 사이에는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왼쪽과 아래쪽에 선이 그어진 불규칙한 직사각형 모양과 숫자 19입니다. 이 기호들은 동굴 안에 있는 자들이 요새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직사각형의 형태가 이지도르 보트를레를 혼란스럽게 했다. 벽면이나 최소한 시야가 닿는 곳에 직사각형 모양의 글귀나 물체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이제 그 단서를 포기하려던 찰나, 바위틈에 뚫린 작은 구멍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마치 방의 창문처럼 보였다.

그 구멍의 테두리는 정확히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모양이었지만, 분명히 직사각형이었다. 보트를레는 즉시 깨달았다. 바닥에 새겨진 'D'와 'F' 글자 위에 각각 발을 올리면, 두 글자 위에 놓인 막대가 문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서면, 눈높이가 바로 그 창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둘러보았다. 앞서 말했듯 창문은 육지를 향해 열려 있었다. 먼저 동굴과 육지를 잇는 길이 보였다. 두 낭떠러지 사이를 매달린 듯한 그 길 너머로, 요새가 올라선 언덕 기슭이 드러났다.

보트를레는 요새를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왼쪽으로 기울였다. 그때야 그는 문서 왼쪽 아래에 찍힌 둥근 자국, 즉 콤마(,)의 의미를 깨달았다. 창문 왼쪽 아래, 돌출된 부싯돌 조각이 있었다. 그 돌 끝이 발톱처럼 구부러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명확한 조준점처럼 보였다.

그 조준점에 눈을 대고 바라보니, 반대편 언덕 비탈에 아주 좁은 땅뙈기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거의 온통 낡은 벽돌담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담은 옛 프레포세 요새, 혹은 그 자리에 세워졌던 고대 로마 성채의 흔적이었다.

보트를레는 그 담 쪽으로 달려갔다. 길이는 아마 십 미터쯤 되었고, 표면은 풀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숫자 19는 대체 무엇일까?

그는 동굴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끈 한 뭉치와 천으로 된 줄자를 꺼냈다. 미리 챙겨 둔 것이었다. 그는 끈을 부싯돌 모서리에 매고, 열아홉 미터 지점에 돌을 묶어 땅 쪽으로 던졌다. 던진 돌은 겨우 길 끝자락에 닿을 뿐이었다.

보트를레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참으로 멍청한 놈이로구나. 그 시절에 거리를 미터로 쟀단 말이냐? 19는 19투아즈(약 37미터)를 뜻하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일 뿐이다.'

계산을 마치자 그는 끈을 따라 37미터를 재어 매듭을 짓고, 손으로 더듬으며 벽면에서 정확한—그리고 당연히 단 하나뿐인—지점을 찾았다. 데모젤의 방 창문에서 37미터 떨어진 그 매듭이 프레포세 성벽에 닿는 자리였다.

잠시 후 닿는 지점이 잡혔다. 그는 자유로운 손으로 벽 틈새에 돋아난 우단담배풀 잎을 치웠다.

그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매듭이 벽돌에 양각으로 새겨진 작은 십자가 한가운데에 정확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서에서 숫자 19 뒤에 따라붙은 기호가 바로 그 십자가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에게 밀려드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온갖 의지를 동원했다. 굳은 손가락으로 십자형을 낚아채고, 바퀴의 스포크를 돌리듯 힘을 주며 돌려보았다. 벽돌이 흔들렸다. 그는 힘을 더 보탰다. 하지만 벽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돌리지 않고, 누르는 힘만 더 세게 주었다. 벽돌이 곧바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벽돌 오른쪽, 너비 1미터 가량의 벽면이 빙글 돌아가며 지하로 통하는 구멍을 드러냈다.

보트를레는 미친 사람처럼, 벽돌이 박혀 있던 철문을 움켜쥐고 거칠게 끌어당겨 닫아 버렸다.

놀람과 기쁨, 그리고 들킬까 봐 두려운 심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제 얼굴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상 같은 광경이 아찔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 문 앞에서, 이 문을 통해, 스무 세기 동안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 거대한 비밀을 전수받아 이 통로로 들어갔던 모든 인물들이 떠올랐다.

켈트족, 갈리아인, 로마인, 노르만인, 영국인, 프랑스인, 남작과 공작과 왕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거쳐 아르센 뤼팽이 있었다.

그리고 뤼팽 다음에는 바로 그, 보트를레가 있었다.

그는 정신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비탈 아래 바로 절벽 가장자리까지 굴러 떨어졌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적어도 혼자, 가진 자원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다 마친 것이다.

저녁이 되자 그는 안보국장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고, 기암성의 비밀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 일을 완수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자신의 주소도 적었다.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룻밤 꼬박, 다음 날 밤까지 이어져 두 밤을 데모젤의 방에서 보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신경은 밤마다 울리는 소리에 의해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공포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았다. 그는 언제든 그림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것 같았다.

그가 동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곧장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미친 듯이 한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온갖 의지로 버티며, 그 시선은 벽 한쪽 구석에 매달려 있었다.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별빛과 초승달의 희미한 빛 아래서 그는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실루엣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둘, 셋, 넷, 다섯까지 세었다.

그 다섯 남자가 각각 꽤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곧장 르아브르로 가는 도로 쪽으로 향했고, 그는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큰 농가 옆을 지나가는데, 농가를 끼고 도는 길목에서 그는 가까스로 둑을 기어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길 겨를밖에 없었다. 또다시 사람들이 지나갔다. 넷…… 다섯…… 모두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2분 후, 또 다른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기운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호텔 보이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그는 즉시 봉투를 뜯었다. 가니마르의 명함이었다.

"드디어!" 보트를레가 외쳤다. 치열한 추격전 끝에 그는 이제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내밀고 달려갔다. 가니마르는 그의 손을 잡고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만만찮은 친구야, 젊은이."

"하!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와 관련된 일에 운 따위는 없습니다." 형사는 뤼팽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항상 엄숙한 어조로 그렇게 단언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놈을 잡은 셈인가?"

"이미 스무 번도 넘게 잡았던 것처럼 말이죠." 보트를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오늘은 다르지…"

"사실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의 은신처, 곧 그의 요새 같은 성을 알고 있죠. 결국 그것이야말로 뤼팽을 뤼팽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어도, 에트르타의 기암성은 그럴 수 없죠."

"왜 그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니마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가 도망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트를레가 되받았다. "지금 그가 기암성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젯밤, 그의 공범 열한 명이 그곳에서 빠져나왔죠. 그가 그 열한 명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니마르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 빈 기암성입니다. 나머지는 행운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랄 뿐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는 다시 무거운 목소리를 내고, 확신에 찬 태도를 취하며 말했다.

"친애하는 보트를레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지시죠?" 보트를레가 농담조로 물었다. "경찰청장입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입니까?"

"그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세상에!"

가니마르가 목소리를 낮췄다.

"보트를레, 저는 엘리제 궁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 기밀로,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요새의 존재를 숨겨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이유죠. 이곳은 보급 기지가 될 수도, 신형 화약이나 최근 발명된 포탄을 보관하는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프랑스의 알려지지 않은 무기고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 비밀을 어떻게 지킬 셈이오?"

"예전엔 왕 한 사람만 그걸 알고 있었소.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몇몇이 알고 있고, 뤼팽 일당도 알고 있소."

"그래도 잠깐만, 십 년이든 오 년이든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말일세. 그 오 년이 구원이 될 수도 있소."

"하지만 그 요새, 곧 미래의 군수공장을 손에 넣으려면 공격해야 하오. 뤼팽을 쫓아내야 하지. 그리고 그런 일은 소문 없이 일어나지 않소."

"당연히 뭔가 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소.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좋소.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당신은 이지도르 보트를레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르센 뤼팽에 관한 일도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에트르타의 한 소년일 뿐이고,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지하 통로에서 나오는 자들을 목격한 것이죠. 당신은 절벽을 위에서 아래까지 관통하는 계단이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해안을 따라 그런 계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가까운 곳, 베누빌 맞은편에 '신부의 계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서객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죠. 어부들을 위한 터널 서너 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제 부하 절반과 제가 당신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혼자 들어갈지, 동행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격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뤼팽이 기암성에 없다

면, 우리는 함정을 설치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가 그곳에 있다면…"

"그가 그곳에 있다면, 가니마르 씨, 그는 기암성의 뒷면, 바다를 바라보는 쪽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나머지 부하 절반에게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당신은 조수가 져서 기암성 바닥이 드러난 시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냥은 공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주변 바위들에 가득 모여 있는 홍합, 새우, 조개 채취꾼들 앞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조 때를 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뤼팽은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 하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제 부하가 한 명씩 지휘하는 어선 열두 척을 배치해 둘 테니, 그는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물코를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그 열두 척의 어선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땐 아예 침몰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런! 그럼 대포까지 갖추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지금 르아브르에 어뢰정이 한 척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지정된 시각에 기암성 주변에 도착할 것입니다."

"뤼팽이 얼마나 우쭐해할지! 어뢰정이라니!…… 자, 보아하니 가니마르 씨, 당신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군요.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제 돌격합니까?"

"내일."

"밤에요?"

"한낮에, 밀물이 차오를 때, 열 시 정각에."

"완벽하군."

밝고 경쾌한 겉모습 뒤로 보트를레는 진정한 불안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계획들을 이리저리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다.

가니마르는 그와 헤어져 에트르타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이포르로 향했다. 그는 신중을 기해 부하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고, 해안을 따라 수심을 측량한다는 명분으로 어선 열두 척을 빌렸다.

9시 45분, 건장한 사내 열두 명의 호위를 받으며 가니마르는 절벽으로 오르는 길 아래에서 이지도르를 만났다.

정확히 10시, 그들은 그 벽면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보트를레, 도대체 왜 그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잖아?" 가니마르가 조롱하듯 젊은이에게 반말을 하며 비웃었다.

"당신이야말로, 가니마르, 자기 꼴은 안 보이나 보지." 보트를레가 받아쳤다. "마치 임종이라도 다가온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고, 가니마르는 럼주를 몇 모금 들이켰다.

"겁먹은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기랄, 이 무슨 떨림인지! 그놈을 잡아야 할 때마다 이렇게 속이 뒤집힌다니까. 럼주 좀 마실래?"

"그러다 도중에 잘못되시면 어쩌죠?"

"그럼 죽은 거지."

"이런! 어쨌든 가 봅시다. 자, 이제 문을 여세요. 들킬 염려는 없죠?"

"없어. 기암성은 절벽보다 낮고, 게다가 우리는 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에 있거든."

보트를레가 벽에 다가간 뒤 벽돌을 누르자, 장치가 작동했다. 그리고 지하 통로의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켠 등불 빛에 비쳐 보니, 통로는 아치형으로 뚫려 있었다. 천장도 바닥도 온통 벽돌로 덮여 있었다.

몇 초 동안 걸어가자 곧 계단이 나타났다.

보트를레가 계단을 세어 보았다. 마흔다섯 계단. 벽돌로 만든 계단이었지만, 오랜 발걸음에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다.

"젠장!"

선두에 서서 가던 가니마르가 무언가에 부딪힌 듯 갑자기 멈춰 섰다.

"무슨 일인가?"

"문이다."

"이런." 보트를레가 그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부수기 쉽지 않겠군. 그냥 쇳덩어리잖아."

"우리는 끝장 났소. 자물쇠조차 없구려."

가니마르가 말했다.

"오히려 그게 희망이에요."

"왜요?"

"문은 열려야 하는 법이죠. 자물쇠가 없다는 건, 그 문을 열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알아내겠습니다."

"어떻게요?"

"문서에 적힌 단서를 통해서요. 네 번째 줄은 지금 막힌 길을 뚫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해법은 비교적 쉬워요. 길을 막으려 적은 게 아니라, 찾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적었으니까요."

"비교적 쉽다고요? 저는 동의 못 하겠소."

가니마르가 소리를 지르며 문서를 펼쳤다.

"숫자 44와 왼쪽에 점이 찍힌 삼각형이라니, 이건 도무지 난해하구려."

"아니, 아니요. 문을 잘 보세요. 네 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의 철판이 덧대어 있고, 그 철판은 굵은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 왼쪽 철판을 잡고, 모서리에 박힌 못을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맞힐 확률은 열에 아홉입니다."

"하필 그 나머지 하나에 걸렸군요." 가니마르가 해 보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숫자 44란 것은……"

보트를레는 생각에 잠긴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 보자. 가니마르 형사와 내가 계단 마지막 단에 함께 서 있군. 모두 45단이지. 그런데 문서에 적힌 숫자는 44야. 우연일까? 아니야. 이 사건에서 우연이란, 적어도 의도치 않은 우연이란 결코 없었어. 가니마르, 한 계단만 다시 올라가 주시겠소? 그래요, 그 44번째 단을 떠나지 마시오. 이제 내가 이 철못을 움직여 보겠소. 그러면 빗장이 떨어질 거요. 안 그러면 내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게 되는 거지."

과연 무거운 문이 경첩을 축으로 돌아가며 열렸다. 그들의 눈앞에 꽤 널찍한 동굴이 펼쳐졌다.

"우리는 정확히 프레포세 요새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보트를레가 말했다. "이제 흙층은 다 지나왔어요. 벽돌도 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석회암 덩어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 안은 어스름했다. 반대편 끝에서 뚫려 나온 빛줄기 하나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이 절벽의 균열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절벽의 돌출부 파인 틈새였는데, 마치 관측소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 정면, 오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바위덩어리, 즉 기암성이 파도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오른쪽, 아주 가까운 곳에는 '아발의 문'을 받치는 비계석이 있었고, 왼쪽, 아주 먼 곳에는 넓은 만의 곡선을 아름답게 막아선 또 다른 아치가 절벽에 새겨져 있었다. 바로 '마뉴포

르트'였다. '위대한 문'이라는 뜻의 이 아치는 너무도 거대해서, 돛대를 세우고 돛을 모두 단 채로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끝없이, 사방팔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 함대가 보이지 않는데요." 보트를레가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가니마르가 말했다. "아발 문이 에트레타와 이포르의 해안선을 모두 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기, 멀리 바다 한가운데, 수면 바로 위에 검은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요?"

"그건 우리 해군 함대입니다. 25번 어뢰정이지요. 그것만 있으면 뤼팽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중 경관을 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균열 근처, 계단 입구에는 난간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 계단으로 들어섰다. 가끔씩 벽면에 작은 창문이 하나씩 나타났고, 그때마다 그들은 기암성을 볼 수 있었다.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는 점점 더 장엄하게 느껴졌다.

수면 가까이 다다르자 창문은 사라졌고, 어둠이 찾아왔다.

이지도르는 계단 숫자를 큰 소리로 세고 있었다. 삼백 오십팔 번째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 넓은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곳에는 또 다시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판금과 못으로 단단히 보강된 문이었다.

"이건 알죠." 보트를레가 말했다. "문서에 삼백 오십칠과 오른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이 적혀 있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도 첫 번째 문처럼 쉽게 열렸다. 길고도 긴 터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에 매달린 등불이 번갈아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서는 물기가 스며나왔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판자로 만든 진짜 보도를 깔아놓았다.

"우리는 지금 바다 밑을 지나고 있어요." 보트를레가 말했다. "가니마르, 따라오시죠?"

형사는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나무 다리를 따라 걸어가다 멈춰 섰다. 그는 등불을 하나 떼어 들고는 말했다.

"도구들은 중세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조명 방식은 현대적이야. 이분들은 백열등으로 밝히고 있군."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터널 끝에는 더 넓은 동굴이 나왔다. 그곳 맞은편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의 첫 단이 보였다.

"이제부터는 기암성 등반이 시작되는 거야." 가니마르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지네."

그때 그의 부하 한 명이 그를 불렀다.

"선생님, 왼쪽에 또 다른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에서도 세 번째 계단이 발견되었다.

"젠장, 상황이 복잡해지는군." 가니마르 형사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그들은 저쪽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우리 둘로 나뉘는 게 어떻습니까?" 보트를레가 제안했다.

"아니, 안 돼. 그럼 우리 힘이 약해져. 차라리 한 명이 정찰병으로 앞서 나가는 게 좋겠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좋아, 보트를레. 나는 부하들과 함께 여기 남지. 그러면 걱정할 게 없으니까. 절벽과 기암성 사이에는 우리가 따라온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고, 기암성 안에도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절벽과 기암성을 잇는 통로는 분명 저 터널뿐이야. 그러니 누구든 반드시 이 동굴을 지나야 해. 그래서 나는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자리를 잡고 있겠어. 가게, 보트를레,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곧장 돌아오게…"

이지도르는 중앙 계단을 타고 곧장 사라졌다. 서른 번째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진짜 나무 문 하나에 막혔다. 그는 자물쇠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너무 넓어서 오히려 매우 낮아 보였다.

강한 등불이 비추고, 굵은 기둥들이 방을 떠받치고 있었다. 기둥 사이로는 깊은 통로가 이어졌다. 이 방은 거의 기암성과 같은 크기였을 것이다.

상자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구는 물론 의자, 찬장, 서랍장, 작은 함들까지 수많은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고물상 지하실에서나 볼 법한 어수선한 풍경이었다.

보트를레는 양옆으로 두 개의 계단 입구를 발견했다. 아래 동굴에서 올라온 계단과 같은 것일 터였다. 그는 다시 내려가 가니마르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면에는 또 다른 계단이 위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혼자 조사를 계속해 보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계단 30단. 다시 문이 나왔다. 보트를레가 보기엔 방이 조금 더 작아진 듯했다. 그리고 여전히 정면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 30단. 또 하나의 문. 더 작은 방이 나왔다.

보트를레는 기암성 내부에서 진행된 공사 계획을 파악했다. 방들이 한 층 위에 한 층씩 쌓여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방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방은 창고로 쓰였다.

네 번째 층에는 전등이 없었다.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만이 그를 비췄고, 보트를레는 자신의 발 아래 약 열 미터 아래에 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가니마르 형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불안이 밀려왔고, 그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신경을 다잡아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도 닥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기암성 전체가 뤼팽과 그 일당에게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다음 층에 가면 멈추자.'

계단이 서른 단. 그 끝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 앞선 문들보다 가볍고 모양새도 더 현대적이었다. 그는 도망칠 채비를 한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방은 쓰임새가 다른 방들과 달랐다. 벽에는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화려한 찬장 두 개가 마주 보고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은식기가 가득 놓여 있었다. 좁고 깊은 틈새에 낸 작은 창문들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레이스 식탁보, 과일과 케이크를 담은 접시, 유리병에 담긴 샴페인, 그리고 무더기로 쌓인 꽃이 놓여 있었다.

식탁에는 세 사람 분의 식기가 차려져 있었다.

보트를레가 다가갔다. 냅킨 위에는 손님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먼저 읽은 이름은 '아르센 뤼팽'이었다.

그 맞은편에는 '아르센 뤼팽 부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세 번째 카드를 집어 들고는 깜짝 놀라 흠칫했다. 그 카드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지도르 보트를레!

제10장

커튼이 걷혔다.

"안녕, 보트를레 친구. 좀 늦었군. 점심을 정오로 잡았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몇 분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다는 거야?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내가 이렇게 변했나 봐."

보트를레는 뤼팽과 맞서 싸우는 동안 수많은 놀라움을 겪었다. 그리고 결말을 앞두고는 또 다른 감정의 파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충격은 예상 밖이었다. 놀라움이 아니었다. 경악이었다. 공포였다.

그의 눈앞에 선 남자는 발메라스였다. 모든 사건이 그를 강제로 밀어붙여, 그를 아르센 뤼팽으로 여겨야만 했던 그 남자가 바로 발메라스였다.

발메라스! 기암성의 소유자. 발메라스! 뤼팽에 맞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던 바로 그 인물. 발메라스! 크로장 원정에 함께했던 동행

자. 발메라스! 복도 어둠 속에서 뤼팽의 동료를 때리거나, 때린 척하며 레이몽드의 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용감한 친구.

"당신……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었군요!"

"왜 안 되겠어?" 뤼팽이 외쳤다. "내가 성직자 차림이나 마시반 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다 안다고 생각했나? 아쉽지만, 내가 누리는 이런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 이상, 그만한 사교적 재주쯤은 부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이지. 만약 뤼팽이 마음만 먹어도 개혁교회 목사가 되거나 금석문·순수문학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 없다면, 뤼팽으로 사는 보람이 없지 않겠나. 자, 보트를레, 진짜 뤼팽이 바로 여기 있네.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보트를레…"

"그런데… 만약 당신이라면… 그렇다면… 아가씨는…"

"그래, 보트를레. 자네가 말한 그대로야…"

그는 다시 휘장을 걷고 손짓을 하며 알렸다.

"아르센 뤼팽 부인이시네."

"아!" 젊은이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얼떨떨해하며 중얼거렸다. "생트베랑 양."

"아닙니다, 아닙니다." 뤼팽이 반박했다. "저는 아르센 뤼팽 씨, 혹은 원하신다면 루이 발메라스 씨라고 불러 주십시오. 저는 합법적인 절

차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를 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죠, 친애하는 보트를레 씨."

그가 보트를레에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보트를레는 원한을 느끼지 않았다. 수치심도, 쓴맛도 없었다. 그는 상대방의 압도적인 우월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기에, 패배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내밀어진 손을 꼭 쥐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인이 상 위에 요리가 가득 담긴 쟁반을 내려놓았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트를레 씨. 요리사가 휴가를 떠나서, 차가운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군요."

보트를레는 식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앉았다. 뤼팽의 태도에 지대한 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고 있었을까? 가니마르와 그 부하들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뤼팽은 계속 말했다.

"네, 고마워, 내 친구. 레이몽드와 나는 첫날부터 서로를 사랑했어. 확실히, 내 친구… 레이몽드를 납치한 일, 감금된 기간, 그리고 그 모든 장난들.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도 나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연에 맡겨지는 일시적인 관계가 우리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뤼팽에게는 그 상황이 해결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루이 발메라스였거든. 그때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아귀유 성을 찾아냈으니, 네 집착을 이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도."

"하! 누구나 그 함정에 빠졌을 거야."

"결국 내 비호와 지원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군?"

"물론이지. 발메라스가 뤼팽일 거라고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 발메라스는 보트를레의 친구였고, 게다가 방금 뤼팽이 사랑하는 여자를 뤼팽에게서 빼앗아 온 참이었으니까. 정말 멋진 일이었지. 오, 아름다운 추억들이야! 크로잔 원정, 발견된 꽃다발들, 레이몽드에게 보낸다는 내 가짜 연애편지!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발메라스인 내가 뤼팽인 나 자신에 맞서 취해야 했던 조치들까지! 또 그 유명한 연회 날 밤, 네가 내 품 안에서 기절했을 때 말이야!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트를레는 레이몽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뤼팽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뭐라 정의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한 어색함과 흐릿한 슬픔 같은 것이.

하지만 뤼팽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레이몽드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보트를레, 내 작은 거처가 어떤가?" 뤼팽이 외쳤다. "멋지지 않아? 최고급 편의시설이라곤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적잖은 사람들이, 그것도 만만찮은 인물들이 이곳에 만족했지. 기암성의 주인이었던 몇몇 인물들의 명단을 봐. 다들 이곳에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는 걸 명예로 여겼으니까."

벽에는 서로 겹쳐 쓰이듯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카이사르. 샤를마뉴. 롤로. 윌리엄 정복왕. 잉글랜드의 리처드 왕. 루이 11세. 프랑수아. 앙리 4세. 루이 14세. 그리고 아르센 뤼팽.

"이제 누가 이름을 남기겠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쉽게도 이 목록은 여기서 끝이군. 카이사르에서 뤼팽까지, 그뿐이야. 곧 익명의 군중이 이 기이한 요새를 찾아오겠지. 생각해 봐, 뤼팽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영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을 거라니! 보트를레, 내가 이 버려진 땅에 첫발을 디뎠을 때 느낀 자부심을 아나? 잃어버린 비밀을 되찾고, 그 주인이 — 그것도 유일한 주인이 — 된다는

것! 그런 유산을 물려받다니! 수많은 왕들에 이어 마침내 이 기암성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의 말은 아내의 손짓으로 끊겼다. 그녀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소리가 나요. 우리 아래에서요. 들리세요?"

"바람 소리일세."

"아니에요. 파도 소리는 제가 잘 알아요. 이건 다른 소리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 웃겨요. 저는 보트를레 씨만 점심에 초대했거든요."

그는 하인에게 말을 건넸다.

"샤롤레, 문 뒤쪽 계단 문을 잠갔나?"

"네, 빗장도 채웠습니다."

뤼팽이 일어섰다.

"자, 레이몽드, 떨지 마라. 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그는 낮게 몇 마디 속삭인 뒤, 커튼을 걷어내고 둘을 밖으로 내보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또렷해졌다. 묵직한 타격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보트를레는 생각했다.

"가니마르 형사가 인내심을 잃고 문들을 부수고 있군요."

뤼팽은 매우 차분한 태도로, 정말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다시 말했다.

"예, 기암성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 있던지 모릅니다. 한 세기, 즉 루이 16세 시대와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아무도 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탓이었죠. 터널은 무너질 듯했고, 계단은 부서져 갔습니다. 안에는 물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지를 하고, 보강하고, 재건해야 했죠."

보트를레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도착했을 때, 안은 비어 있었나요?"

"거의 그랬습니다. 왕들은 기암성을 우리처럼 창고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피난처로 사용한 거죠?"

"물론이지. 침략의 시대, 내전의 시대에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 탑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할까? 프랑스 왕들의 금고였지."

타격음이 더 세차게 울려 퍼졌다. 이제 소리는 한결 덜 둔탁했다. 가니마르가 첫 번째 문을 부수고 두 번째 문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타격음이 이어졌다. 세 번째 문이었다. 아직 두 개의 문이 더 남아 있었다.

보트를레는 창문 너머로 기암성 주위를 맴도는 보트들과, 그 근처에서 큰 검은 물고기처럼 떠 있는 어뢰정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소란이야!" 뤼팽이 외쳤다. "소리가 다 들리지도 않잖아. 올라가 볼까? 기암성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로울 거야."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 층도 다른 층들과 마찬가지로 문으로 막혀 있었고, 뤼팽은 들어선 뒤 그 문을 닫았다.

"내 그림 전시실이야."

벽면은 온통 캔버스로 가득했다. 보트를레는 즉시 가장 저명한 화가들의 서명을 알아보았다. 라파엘로의 '아그누스 데이의 성모', 안드레아 델 사르토의 '루크레치아 페데 초상', 티치아노의 '살로메', 보티첼리의 '성모와 천사들'이 있었고, 틴토레토, 카르파초, 렘브란트, 벨라스케스의 작품들도 즐비했다.

"훌륭한 모사본들이군요." 보트를레가 감탄했다.

뤼팽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 모사본이라고? 너 미쳤어? 모사본이라면 마드리드, 피렌체, 베네치아, 뮌헨, 암스테르담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대체 뭐죠?"

"유럽의 모든 박물관을 정성껏 뒤져 수집한 원본들이야. 난 그 자리에 훌륭한 모사본을 정직하게 갖다 놓았지."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 위조 사실이 들통날 거라고? 걱정 마. 캔버스마다 뒷면에 내 서명이 있을 테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에 진짜 걸작들을 안겨 줬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따지고 보면 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한 일을 똑같이 했을 뿐이야. 아, 보트를레, 저기 게브르 백작의 루벤스 작품 네 점이 있군."

기암성 깊숙한 곳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는 못 버티겠군." 뤼팽이 말했다. "더 올라가자."

새로운 계단이 나타났다.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타피스리 방이야." 뤼팽이 알렸다.

그것들은 걸려 있지 않았다. 둘둘 말려 끈으로 묶이고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게다가 뤼팽이 펼쳐 보인 오래된 직물 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눈부신 브로케이드, 감탄스러운 벨벳, 빛바랜 색조의 부드러운 실크, 제의(祭衣), 금실과 은실로 짠 직물들이었다.

그들은 더 위로 올라갔고, 보트를레는 시계와 추시계의 방, 책의 방(오, 그 멋진 장정들과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책들, 큰 도서관들에서 훔쳐낸 유일본들!), 레이스의 방, 골동품의 방을 보았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방의 둘레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가니마르는 점점 뒤처지고 있었다.

"마지막이야." 뤼팽이 말했다. "보물 방이지."

그 방은 완전히 달랐다. 둥글기는 했지만 매우 높았고, 원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방은 건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닥은 바늘봉우리 끝에서 열다섯에서 스무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절벽 쪽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바다 쪽은 남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두 개의 큰 유리창이 열려 있어 풍부한 빛이 들어왔다.

바닥은 희귀한 나무로 만든 판자로 덮여 있었다. 나무결은 동심원을 이루고 있었다.

벽을 따라 유리 진열장이 있고, 몇몇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내 컬렉션의 진주들이지." 뤼팽이 말했다. "지금까지 네가 본 것들은 모두 판매용이야. 물건은 사라지고 또 들어오지. 그게 장사란 거야. 여기, 이 성소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해. 엄선된 것들, 핵심만 담겨 있지. 그중에서도 최고 중의 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뿐이야."

"봐라, 보트를레. 이 보석들을 봐. 칼데아의 부적, 이집트 목걸이, 켈트 팔찌, 아랍 사슬들까지…"

"이 작은 조각상들도 봐라, 보트를레. 이 그리스 비너스, 코린토스의 아폴론을 보라구…"

"이 타나그라 인형들도 봐라, 보트를레! 진짜 타나그라는 다 여기 있어. 이 진열장을 벗어나면 세상에 진짜라곤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보트를레, 남쪽 지방에서 교회들을 약탈한 무리 기억나지? 토마스 일당 말이야. 그건 그렇고, 그자들은 내 부하였어. 자, 여기 암바작의 성유물함이 있어. 진짜배기지, 보트를레!"

"루브르의 스캔들도 기억나지? 가짜로 판명된 그 티아라 말이야. 현대의 어느 예술가가 상상해 만들어 낸 거였지… 자, 여기 사이타파르네스의 티아라가 있어. 이게 진짜야, 보트를레!"

"봐, 잘 봐, 보트를레! 이걸 봐라. 경이 중의 경이, 최고의 걸작, 신의 사상이 담긴 작품. 바로 다 빈치의 모나리자, 진짜 모나리자야. 무릎을 꿇어라, 보트를레. 여인의 모든 것이 네 앞에 있단 말이야!"

그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아래에서는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두세 개의 문, 많아야 그 정도만이 그들과 가니마르를 갈라놓고 있었다. 멀리 바다에는 어뢰정의 검은 선체와 그 주위를 오가는 작은 배들이 보였다.

젊은이가 물었다.

"그런데 보물은요?"

"아, 자네, 역시 그게 제일 궁금하군. 인간의 예술이 남긴 이 모든 걸작도 자네 호기심에는 보물을 바라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지. 하긴 모든 사람이 자네와 똑같겠지. 좋아, 만족시켜 주지."

그가 발로 바닥을 세게 차자 마루를 이루던 원판 중 하나가 기울어졌다. 그는 그것을 상자 뚜껑처럼 들어 올려, 바위를 그대로 파내어 만든 둥근 통 모양의 구덩이를 드러냈다. 통은 비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그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또 다른 통이 나타났다. 그것 역시 비어 있었다.

세 번을 더 반복했다. 나머지 세 통도 비어 있었다.

"흥! 후후후." 뤼팽이 비웃었다. "이거 참 실망스럽군! 루이 11세, 앙리 4세, 리슐리외 시대라면 다섯 통이 모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하지만 루이 14세를 생각해 봐. 베르사유의 광기, 전쟁들, 그 치세의 크나큰 재앙들을 말이야! 또 사치스러운 왕 루이 15세, 퐁파두르 부인, 뒤바리 부인을 생각해 보라구. 그때 얼마나 퍼다 썼겠어?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 바위를 얼마나 긁어 댔겠어? 봐, 이젠 아무것도 없잖아…"

그가 말을 멈췄다.

"아니, 보트를레,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 여섯 번째 은닉처지. 손댈 수 없는 곳이었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 그건 최후의 보루였어… 말하자면 만일을 위해 남겨 둔 마지막 비상수단이랄까. 봐라, 보트를레."

그는 몸을 굽혀 뚜껑을 들어 올렸다. 통 안에는 철로 된 작은 상자가 가득 차 있었다.

뤼팽은 주머니에서 복잡하게 조각된 특수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열었다.

순간 눈이 부셨다. 보석들이 모두 빛나고 있었다. 사파이어의 푸른 빛, 루비의 붉은 불꽃, 에메랄드의 초록빛, 그리고 토파즈의 태양빛이 한꺼번에 타올랐다.

"봐, 보트를레야. 그들은 금화도 은화도, 에퀴도 두카트도 더블론도 죄다 먹어 치웠어. 하지만 이 보석 상자만은 고스란히 남아 있단다! 이 세공들을 봐라. 온갖 시대, 온갖 세기, 온갖 나라의 것이 다 있지. 왕비들의 지참금이 여기 다 모여 있어. 저마다 제 몫을 보탰지. 스코틀랜드의 마르그리트, 사부아의 샤를로트, 잉글랜드의 메리, 카트린 드 메디시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모든 대공녀들—엘레오노르, 엘리자베트, 마리 테레즈,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말이야.

이 진주들을 봐, 보트를레!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들!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라구! 하나같이 여제에게도 어울릴 만한 것들이야. 저 유명한 프랑스의 '레장' 다이아몬드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않아!"

그는 몸을 일으켜 맹세하듯 손을 내밀었다.

"보트를레, 세상에 전해 주게. 뤼팽은 왕실 금고에 있던 보석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단 하나도. 명예를 걸고 맹세하네. 내겐 그럴 권리가 없었어. 그건 프랑스의 재산이었으니까…"

아래층에서 가니마르가 서두르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타격음으로 보아,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 즉 골동품 방으로 통하는 문을 공격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금고는 열어 두자. 모든 통도, 텅 빈 이 작은 무덤들도 다 그대로 두고." 뤼팽이 말했다.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몇몇 진열장을 살펴보고 몇몇 그림을 응시하더니, 생각에 잠긴 듯 거닐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하다니, 참으로 슬프군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은 이 방에서, 이 물건들 앞에 혼자 앉아 보냈죠. 이제 제 눈은 이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테고, 제 손은 이들을 더 이상 만지지 못할 테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보트를레는 그 표정을 보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이 남자에게 고통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기쁨도, 자부심도, 수치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창가 근처에 서서, 손가락으로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보다 더 슬픈 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지. 끝없는 바다, 하늘, 그리고 좌우로 솟은 에트레타의 절벽들. 아몽의 문, 아발의 문, 마네포르의 문까지. 모두 주인을

위한 승리의 아치였어. 그리고 그 주인은 바로 나였지. 모험의 왕, 기암성의 왕. 기묘하고 초자연적인 왕국. 카이사르에서 뤼팽까지. 정말 놀라운 운명이야.”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요술 왕국 왕?” “왜요?” “일단 요트토 왕이라고 합시다. 장난이네요. 세계의 왕, 네, 그게 진실입니다! 이 바늘봉우리에서 저는 우주를 지배했어요. 먹이를 잡은 맹수처럼 그 세계를 제 발톱에 꽉 쥐고 있었죠. 보트를레님, 사이타파르네스의 왕관을 들어 보세요… 이 두 개의 전화 장치를 보셨나요? 오른쪽은 파리 전용 회선입니다. 왼쪽은 런던 전용 회선. 런던을 통해 저는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결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지점과 영업 대리인, 그리고 중개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무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예술과 고미술품 시장, 세계의 박람회입니다. 아, 보트를레님, 제 힘이 너무 커져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권력과 힘에 취해 있죠…”

아래쪽 문이 무너졌다. 가니마르 형사와 그의 부하들이 뛰어오며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뤼팽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끝이군…… 금발에 슬픈 눈매를 가진 한 소녀가 지나갔지. 그리고 정직한 영혼을 지닌 소녀가. 그래, 정직한 영혼이라고. 나도 이 거대한 성채를 무너뜨리고 있어. 나머지는 모두 터무니없고 유치해 보

이는 일일 뿐이야. 이제 남은 건 오직 그녀의 금발과, 슬픈 눈, 그리고 작은 정직함뿐이지."

남자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문이 흔들릴 만큼의 격렬한 타격이 가해졌다.

뤼팽은 갑자기 젊은이의 팔을 꽉 잡았다.

"보트를레, 이해가 되나? 몇 주 전부터 너를 짓밟을 기회가 그토록 많았는데도 내가 왜 너에게 길을 열어 주었는지.

네가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게 이해가 되나? 내가 부하들에게 저마다의 노획물 몫을 나눠 주었고, 그래서 네가 일전의 밤 절벽에서 그들과 마주쳤다는 사실까지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기암성, 그것은 곧 '모험'이야. 기암성이 내 것인 한, 나는 모험가로 남지. 하지만 기암성을 빼앗기면, 내 모든 과거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돼.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 레몽드의 눈길이 나를 바라봐도 더는 얼굴 붉히지 않을 그런 미래…"

그가 화가 난 듯 문 쪽으로 돌아섰다.

"입 좀 다물어, 가니마르, 아직 내 일장 연설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타격이 점점 빨라졌다. 마치 거대한 들보를 문에 들이받는 듯한 소리였다.

뤼팽 앞에 선 보트를레는 호기심에 어쩔 줄 모른 채, 뤼팽의 속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앞일을 기다렸다. 기암성을 내준 것은 그렇다 쳐도, 어째서 스스로까지 내맡기려는 걸까? 무슨 계획일까? 가니마르를 따돌릴 셈인가? 그리고 또, 레몽드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러는 동안 뤼팽은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정직하게… 아르센 뤼팽이 정직하게… 더는 도둑질도 않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안 될 게 뭐 있어? 내가 똑같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 날 좀 가만 놔둬, 가니마르! 이 멍청한 놈아, 넌 모르겠지. 내가 지금 역사에 남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트를레가 우리 손자들을 위해 그 말을 받아 적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만 낭비하는군. 가니마르가 내 역사적인 말의 쓸모를 알아챌 리 없지."

그는 붉은 분필 한 조각을 집어 들고, 벽 쪽으로 발판을 가져다 놓은 뒤, 큼직한 글씨로 적었다.

"아르센 뤼팽은 기암성의 모든 보물을 프랑스에 유증한다. 단, 그 보물들을 '아르센 뤼팽 관(館)'이라는 이름의 전시실에 두어 루브르 박물관에 안치한다는 조건으로."

"자." 그가 말했다. "이제 내 양심은 편안해졌어. 프랑스와 나는 셈을 끝낸 거야."

공격자들이 힘껏 문을 두드려 댔다. 판자 한 장이 부서져 나갔다. 손 하나가 비집고 들어와 자물쇠를 더듬었다.

"이런." 뤼팽이 말했다. "이번만큼은 가니마르가 목적을 이룰 수도 있겠군."

뤼팽은 자물쇠로 달려들어 열쇠를 빼냈다.

"방금 소리가 났네, 친구. 이 문은 단단해. 난 시간이 넉넉하고. 보트를레, 잘 있어! 그리고 고마워! 정말이지 넌 내 공격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넌 참 섬세한 친구야!"

그는 동방박사들을 그린 판 덴 와이덴의 큰 삼면화(트립티크) 앞으로 걸어갔다. 오른쪽 패널을 접어 그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드러내고는 손잡이를 잡았다.

"좋은 사냥 되시게, 가니마르. 그리고 자네 식구들에게도 안부 전하고!"

총성이 울렸다. 그는 뒤로 펄쩍 물러났다.

"아, 이 악당, 한복판을 맞혔군! 사격을 좀 배웠나? 동방박사가 끝장났어! 정통으로! 장터 사격장의 담뱃대처럼 박살이 났군……"

"항복해라, 뤼팽!" 깨진 판자 사이로 리볼버를 내민 가니마르가 고함쳤다. 번뜩이는 그의 두 눈이 보였다. "항복해라, 뤼팽!"

"근위대도 항복하던가?"

"움직이면 쏴 죽이겠다."

"이런, 넌 여기서는 날 잡을 수 없어!"

사실 뤼팽은 이미 비켜서 있었다. 가니마르는 문에 뚫린 구멍으로 정면을 향해 쏠 수는 있었지만, 뤼팽이 있는 쪽으로는 총을 쏘기는커녕 조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뤼팽의 처지가 덜 위태로운 것도 아니었다. 그가 노리던 탈출구, 즉 삼면화(트립티크)의 작은 문이 하필 가니마르와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뛰쳐나가려다간 경찰의 총격에 그대로 노출될 테고, 가니마르의 권총에는 아직 총알이 다섯 발 남아 있었다.

"제기랄." 뤼팽이 웃으며 말했다. "내 주가가 떨어지는군. 자업자득이야, 이 사람 뤼팽아. 마지막으로 짜릿한 맛 좀 보겠다고 욕심을 부렸어. 그렇게 떠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남자들이 힘을 쏟는 사이 판자 한쪽이 또 무너져 내렸고, 가니마르는 한결 움직이기 편해졌다.

두 적수 사이는 고작 삼 미터,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금도금한 나무 진열장이 뤼팽을 가려 주고 있었다.

"보트를레, 나 좀 도와줘!" 늙은 형사가 분에 못 이겨 이를 갈며 외쳤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만 말고 쏘란 말이다!"

과연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열렬한 구경꾼이긴 했으나, 그때까지도 어찌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움에 뛰어들어, 손아귀에 넣은 먹잇감을 쓰러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가로막았다.

가니마르의 외침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의 손이 리볼버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내가 끼어들면 뤼팽은 끝장이다. 게다가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게 내 의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뤼팽의 눈은 차분하고 주의 깊었으며, 거의 호기심마저 어려 있었다.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끔찍한 위험 속에서도 오직 젊은이를 사로잡은 도덕적 갈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듯이. 이지도르는 패배한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할 것인가?

문이 위에서 아래까지 쩍 갈라졌다.

"이리 와, 보트를레, 놈을 잡았다!" 가니마르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지도르가 권총을 들어 올렸다.

이어 벌어진 일은 너무도 순식간이어서,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을 정도였다. 그는 뤼팽이 몸을 숙여 벽을 따라

달리며, 가니마르가 허공에 헛되이 휘두르던 총 바로 아래로 문을 스치듯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바로 보트를레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가 곧바로 붙들려,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번쩍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뤼팽은 그를 살아 있는 방패처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그 뒤에 몸을 숨겼다.

"십 대 일로 내가 빠져나간다에 걸지, 가니마르! 알다시피 뤼팽한테는 언제나 빠져나갈 구석이 있거든."

그는 재빨리 삼면화 쪽으로 물러났다. 한 손으로는 보트를레를 가슴에 바짝 붙들고, 다른 손으로 탈출구를 열었다가 작은 문을 닫았다. 그는 살아났다.

곧바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계단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가자." 뤼팽이 보트를레를 앞세우며 말했다. "육군은 패했으니, 이제 프랑스 함대를 상대할 차례야. 워털루 다음엔 트라팔가르지. 본전은 톡톡히 뽑겠구나, 꼬마야! 하, 우습기도 하지. 저것들이 이제야 삼면화를 두드리고 있군. 너무 늦었어, 얘들아. 자, 어서 가, 보트를레."

계단은 바늘바위(Aiguille)의 벽, 더 정확히 말해 그 바위 껍질 자체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를 빙글빙글 감싸며 내려갔는데, 마치 미끄럼틀의 나선처럼 휘감겨 있었다.

서로 밀치듯 그들은 계단을 두 칸씩, 세 칸씩 뛰어 내려갔다. 군데군데 틈새로 빛줄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보트를레는 몇십 길 떨어진 곳에서 오가는 어선들과 검은 어뢰정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들은 계속 내려갔다. 이지도르는 말이 없었고, 뤼팽은 여전히 들떠 있었다.

"가니마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다른 계단들을 내려와 터널 입구를 막으려 할까? 아니, 그렇게 멍청하진 않지. 거기에 부하 넷을 남겨뒀을 거야. 넷이면 충분하거든."

그가 멈춰 섰다.

"들어 봐. 저 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 맞아, 창문을 열고 자기네 함대를 부르는 거야. 봐, 배들 위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지. 어뢰정이 움직이는군. 장하다, 어뢰정아! 알아보겠어, 너 르아브르에서 왔구나. 포수들, 위치로! 어이쿠, 함장이 나타났다. 안녕, 뒤게 트루앵."

그는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적 함대가 힘껏 노를 젓는군." 그가 말했다. "곧 들이닥치겠어. 아, 정말 재미있군!"

그때 그들 아래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어느새 바다 높이에 가까워졌고, 곧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등불이 오가는 널찍한 동굴로 빠져나왔다.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한 여자가 뤼팽의 목에 와락 매달렸다!

"빨리! 빨리! 얼마나 걱정했다고!…… 대체 뭘 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네?……"

뤼팽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 친구 보트를레야…… 글쎄, 이 친구 보트를레가 어찌나 점잖게 굴던지…… 하지만 그 얘긴 나중에 해 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샤롤레, 거기 있나?…… 아, 좋아…… 배는?"

샤롤레가 대답했다.

"배는 준비됐습니다."

"시동 걸어." 뤼팽이 말했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고, 어슴푸레한 어둠에 차츰 눈이 익어 가던 보트를레는 마침내 자신들이 물가의 부두 같은 곳에 있으며, 그 앞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력선이야." 뤼팽이 보트를레의 관찰을 마저 채워 주며 말했다. "어때, 이 모든 게 놀랍지, 이지도르 친구? 이해가 안 가지? 보다시피

저 물은 다름 아닌 바닷물이야. 밀물 때마다 이 굴속으로 스며들지.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작은 정박지가 하나 생긴 거야."

"하지만 막혀 있잖습니까." 보트를레가 반박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뤼팽이 말했다. "증명해 보이지."

뤼팽은 먼저 레이몽드를 데려다 놓고, 다시 보트를레를 데리러 왔다. 보트를레는 망설였다.

"무섭나?" 뤼팽이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어뢰정한테 바닥까지 격침될까 봐?"

"그래서 자네는, 뤼팽 쪽 곧 수치와 오욕과 불명예 쪽으로 가는 대신, 가니마르 쪽 곧 정의와 사회와 도덕 쪽에 남는 게 자네 의무가 아닐까 자문하는 거지?"

"바로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친구야. 네게 선택지는 없어. 당분간은 우리 둘이 죽은 줄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미래의 정당한 신사가 누려야 할 평화를 보장받아야 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게. 나중에 네 자유를 돌려주면, 네 마음대로 말하면 돼. 그때쯤이면 내가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겠지."

뤼팽이 그의 팔을 꽉 쥐는 힘에서, 보트를레는 모든 저항이 무의미함을 느꼈다. 게다가 왜 저항해야 하겠는가.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에게 느끼는 끌림에 몸을 맡길 권리가 있었다.

그 감정이 너무 뚜렷해서, 보트를레는 뤼팽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들으십시오. 더 큰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헐록 숌즈가 당신의 발자취를 쫓고 있습니다."

"자, 가자."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뤼팽이 말했다.

그는 순순히 따르며 배까지 이끌려 갔다. 배의 모양은 기묘했고, 그 생김새는 전혀 뜻밖이었다.

갑판에 올라선 그들은 가파른 작은 계단, 아니 차라리 사다리에 가까운 것을 타고 내려갔다. 그 사다리는 한 뚜껑문(해치)에 걸려 있었는데, 그들이 내려가자 그 뚜껑문이 위에서 닫혀 버렸다.

사다리 아래에는 램프 하나가 환히 밝히는 매우 비좁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엔 이미 레이몽드가 와 있었고, 세 사람이 딱 앉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뤼팽은 전성관 하나를 집어 들고 명령했다.

"출발해, 샤롤레."

이지도르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느끼는 그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바닥이, 발밑의 땅이 쑥 꺼지는 듯한, 허공에 뜬 듯한 느낌이었다. 이번에 꺼지는 것은 물이었고, 천천히 텅 빈 공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 우리 가라앉는 거냐?" 뤼팽이 낄낄거렸다. "안심해…… 지금 있는 위쪽 동굴에서 맨 아래쪽 작은 동굴로 내려가는 것뿐이야. 그 동굴은 바다 쪽으로 반쯤 트여 있어서 썰물 때면 들어갈 수 있지…… 조개 줍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야…… 아! 십 초만 멈추면 돼…… 이제 통과한다…… 통로가 좁거든! 딱 잠수함 크기야……"

보트를레가 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래 동굴로 들어가는 어부들은,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다른 동굴과 통하며, 그 곳에서 바늘바위를 가로지르는 계단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트를레."

"작은 공용 동굴의 천장은 썰물 때면 바위 색을 띤 움직이는 천장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그 천장은 밀물이 차오를 때 바닷물과 함께 밀려 올라가고, 썰물이 빠지면 다시 동굴 위에 단단히 덮이죠. 그래서 밀물 때 제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참신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디어죠.

물론 카이사르나 루이 14세, 다시 말해 제 조상들 중 그 누구도 이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당시 작은 동굴까지 내려가던 계단만 이용했을 뿐이죠.

저는 계단의 마지막 몇 단을 없애고, 이 움직이는 천장이라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프랑스에 바치는 선물이랄까요."

"레이몽드, 내 사랑, 옆에 있는 램프를 꺼주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죠."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희미한 빛을 마주했다. 그 빛은 마치 물 자체의 색처럼 창백했다. 그 빛은 두 개의 현창을 통해 선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갑판 바닥을 뚫고 올라온 커다란 유리 돔을 통해서도 들어왔다. 그 유리 돔을 통해 그들은 바다의 윗부분을 살필 수 있었다.

그때였다.

그들 바로 위를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공격이 시작되려나 보군. 적 함대가 기암을 포위하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기암이 아무리 속이 비어 있다 해도, 적들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가 전성관을 집어 들었다.

"심해를 벗어나지 마, 샤롤레. 어디로 가느냐고? 내가 말했잖아, 뤼팽 항으로.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알지? 배를 대려면 물이 충분해야 해. 우리에겐 숙녀가 함께 타고 있으니까."

암석투성이의 평원이 펼쳐졌다. 해초들이 물결에 떠밀려 올라가 무거운 검은 식물처럼 우뚝 섰고, 깊은 해류가 그것들을 부드럽게 흔들며 물에 떠다니는 머리카락처럼 길게 늘어뜨렸다.

또 하나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웠다.

"어뢰정이군." 뤼팽이 말했다. "곧 대포가 입을 열겠지. 뒤게트루앵이 뭘 할까? 기암을 포격할까? 보트를레, 뒤게트루앵과 가니마르가 맞부딪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다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육상 병력과 해상 병력이 합류하는 현장이라니! 어이, 샤롤레! 우리 졸고 있는 거 아닌가, 친구?"

배는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모래밭이 암석 지대를 대신했고, 곧 다른 암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에트르타의 오른쪽 끝, 아몽의 문이 자리한 곳이었다.

물고기들이 그들의 접근을 피해 도망쳤다. 그중 한 마리는 대담하게도 현창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좋아, 잘 가고 있군." 뤼팽이 외쳤다. "보트를레, 내 이 호두껍질 같은 배는 어떻소? 나쁘지 않지, 그렇지?"

"세븐 오브 하트 사건, 라콤 기사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 살인자들을 응징한 뒤 내가 프랑스 정부에 새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설계도와 서류를 바쳤던 일을 기억하시오? 또 한 번 프랑스에 준 선물이지."

"그래, 그 설계도들 중에는 잠수가 가능한 자동 보트의 설계도도 있었소. 바로 그 덕분에 당신은 지금 내 곁에서 항해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오."

그는 샤롤레를 불렀다.

"샤롤레, 위험이 사라졌으니 우리도 올라가게."

그들은 수면 위로 솟구쳤다. 유리 종 모양 덮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해안에서 1마일 떨어진 곳, 즉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있었다. 보트를레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페캉이 그들 옆을 지나갔고, 이어 노르망디의 모든 해변이 스쳐 지나갔다. 생피에르, 프티트달, 뵐레트, 생발레리, 뵐, 키베르빌.

뤼팽은 여전히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이지도르는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이 남자의 입담, 쾌활함, 장난기, 아이러니한 태연함, 그리고 생에 대한 즐거움에 그는 경탄하고 있었다.

그는 레이몽드도 주시했다. 젊은 여인은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몸을 기댄 채였다.

그녀는 그의 두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 쥐고서 종종 그를 올려다보았다. 보트를레는 그녀의 손이 몇 번이나 살짝 굳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짙은 슬픔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뤼팽의 농담에 대한 말없고 고통스러운 응답처럼 느껴졌다. 그 가벼운 말들과 삶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이 그녀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듯했다.

"그만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웃는 건 운명에 맞서는 일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디에프 앞바다에 이르자, 어선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잠수해야 했다.

스무 분 뒤, 그들은 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위들 사이로 불규칙하게 갈라진 틈이 이룬 작은 해저 항구로 들어선 배는 방파제를 따라 자리를 잡은 뒤,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르-뤼팽입니다." 뤼팽이 알렸다.

디에프에서 5리, 트레포에서 3리 떨어진 이곳은 좌우로 무너진 절벽 더미가 가려주어 완벽하게 보호되었고, 인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작은 해변의 비탈은 고운 모래로 덮여 있었다.

"보트를레, 상륙하시죠. 레이몽드, 제 손을 잡으세요."

그가 다시 말했다.

"샤롤레, 자네는 기암으로 돌아가 가니마르와 뒤게트루앵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고, 해 질 무렵에 내게 알려주게. 이 사건이 아주 흥미롭단 말이야."

보트를레는 궁금증이 일었다. 포르-뤼팽이라 불리는 이 감옥 같은 만에서 이들이 대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말이다.

그때 그는 절벽 바로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철제 사다리의 세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이지도르, 내 말 좀 들어봐." 뤼팽이 말했다. "네가 지리와 역사를 좀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파르퐁발 협곡 아래, 비빌 면(面)에 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한 세기도 더 전인 1803년 8월 23일 밤, 조르주 카두달과 공범 여섯 명이 제1통령 보나파르트를 납치하려고 프랑스에 상륙했지. 그들은 내가 보여줄 그 길을 따라 꼭대기까지 기어올랐어."

"그 이후로 산사태가 나서 그 길은 무너졌어. 하지만 발메라스, 즉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가 자기 돈으로 그 길을 복원했지. 그리고 음모자들이 첫날 밤을 보냈던 라 뇌빌레트 농장도 사들였어. 이제 그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세속의 일에 초연한 채,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시골 귀족의 떳떳한 삶을 살아갈 거야."

"신사 도둑은 죽었다. 신사 농부 만세!"

사다리를 지나자 길은 급격히 좁아졌다. 빗물에 파인 가파른 협곡이었다. 그 바닥에서는 난간이 달린 엉성한 계단 같은 것에 매달려 올라가야 했다.

뤼팽이 설명하길, 이 난간은 옛날 현지 사람들이 해변으로 내려갈 때 쓰던 긴 밧줄(에스탕페르슈)을 대신해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30분 동안 힘겹게 오르자,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섰다. 해안 세관원들이 피난처로 쓰는, 땅을 파서 만든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때 마침 길모퉁이에서 세관원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인사했다.

뤼팽이 그에게 물었다.

"고멜, 새로운 일은 없나?"

"없습니다, 두목."

"수상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없습니다, 두목… 그런데…"

"뭔가?"

"제 아내 말입니다. 라 뇌빌레트에서 재봉 일을 하는 세자린이요."

"알지. 세자린. 어머니가 그 애 얘길 하시더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웬 선원 하나가 마을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그 선원이 어떻게 생겼다던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답니다. 영국인 같은 얼굴이었다고요."

"아!" 뤼팽이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자네는 세자린에게…"

"눈을 크게 뜨고 살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두목."

"잘했네. 앞으로 두세 시간 안에 샤롤레가 돌아오는지 지켜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농장에 있을 테니."

그는 다시 길을 재촉하며 보트를레에게 말했다.

"이거 걱정스럽군… 혹시 쇰즈일까? 아! 만약 그자라면, 잔뜩 약이 올라 있을 테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그래,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넓은 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왼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늘어선 길이 보였고, 그 끝에는 뉴빌레트 농장의 건물들이 희

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곳이 그가 준비해 둔 은신처였다. 레이몽드에게 약속했던 안식처였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터무니없는 생각 때문에, 정작 목표에 다다랐을 때 행복을 포기하려 했을까?

그는 이지도르의 팔을 잡더니, 앞서 걷고 있는 레이몽드를 가리켰다.

"그녀를 봐. 걸을 때 그 작은 허리의 흔들림은, 내가 보자마자 몸이 떨릴 정도야. 그녀의 모든 것이 내게 그런 떨림, 감동과 사랑의 떨림을 불러일으켜. 그녀의 제스처든, 침묵이든, 목소리의 소리든. 어때, 그냥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안도감이 느껴져. 아, 보트를레! 그녀는 내가 뤼팽이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을 수 있을까? 그녀가 증오하는 모든 과거, 내가 그녀의 기억에서 지워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진정시켰고, 끈질긴 자신감으로 말했다.

"그녀는 잊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으니까. 나는 기암성의 안전을 버렸고, 보물과 권력, 자존심까지 모두 내던졌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 오직 사랑하는 한 남자로, 그녀가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한 남자로 남을 뿐이다.

도대체 정직하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말은 그가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아이러니 따위는 없었다. 그는 억눌린 격정으로 속삭였다.

"보트를레, 내 모험가로서의 삶에서 맛본 그 어떤 황홀함도, 그녀가 나에게 만족해할 때 보내는 그 눈길이 주는 기쁨에는 미치지 못한단다. 그때면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릴 만큼 약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지."

그는 울고 있었을까? 보트를레는 뤼팽의 눈가가 젖어 있음을 직감했다. 뤼팽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그들은 농장의 옛 정문 가까이에 다다랐다.

뤼팽이 잠시 발을 멈추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왜 내가 무서운 걸까? 가슴이 답답해. 기암성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운명이 내가 선택한 결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레이몽드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세자린이야. 달리고 있어…"

세관 직원 부인은 온 힘을 다해 농장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뤼팽이 재촉했다.

"무슨 일인가? 빨리 말해!"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하던 세자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남자 한 명…… 거실에 남자가 있어요."

"아까 그 영국인인가?"

"네…… 하지만 복장이 달라요."

"그자가 당신을 봤나?"

"아니요. 그자는 당신 어머니를 봤어요. 발메라스 부인이 그가 떠나려는 걸 붙잡았죠."

"그래서?"

"그자가 어머니에게 루이 발메라스를 찾고 있다며, 당신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어머니는 아들이 몇 년 동안 여행 중이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는 떠났나?"

"아니요. 그는 평야를 내려다보는 창문으로 손짓을 했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뤼팽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때 공기를 가르는 비명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다. 레이몽드가 신음했다.

"어머니예요…… 그 목소리 맞아요."

그는 그녀에게로 달려들었다. 격렬한 열정에 사로잡힌 채 그녀를 끌어당기며 외쳤다.

"와… 도망가자… 네가 먼저…"

하지만 그는 곧바로 멈춰 섰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음이 뒤집힌 채였다.

"아니, 안 돼… 이건 끔찍해… 용서해 줘… 레이몽드… 저기 저 불쌍한 여자… 여기 있어… 보트를레, 그 여자 곁을 떠나지 마."

그는 농장을 둘러싼 비탈을 따라 돌진했고, 방향을 틀어 그 비탈을 따라 달려 평야로 통하는 울타리 근처까지 갔다.

보트를레가 붙잡아 둘 수 없었던 레이몽드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던 보트를레는 농장에서 울타리로 이어지는 인적 없는 길에서 세 남자를 목격했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앞장섰고, 나머지 두 남자는 저항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는 한 여자를 양팔로 붙들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트를레는 헐록 숌즈를 알아봤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하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네 사람은 모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울타리에 다다랐다. 숌즈가 울타리 문 한쪽을 열었다.

그때 뤼팽이 앞으로 나서서 숌즈 앞에 버티어 섰다.

충돌은 고요하고, 거의 장엄할 정도로 조용해서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두 적수는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두 얼굴에 똑같은 증오가 격렬하게 일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뤼팽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부하들에게 이 여자를 놓으라고 하시오."

둘 다 최후의 결투를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온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쓸데없는 말도, 조롱 섞인 도발도 없었다. 오직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불안으로 미칠 듯한 레이몽드는 결투의 결과를 기다렸다. 보트를레가 그녀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잠시 후, 뤼팽이 다시 말했다.

"당신 부하들에게 이 여자를 놓으라고 하시오."

뤼팽이 입을 열었다.

"들어라, 숌즈…"

하지만 그는 곧 말을 멈췄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존심과 의지만으로 뭉쳐진 거인, 헐록 숌즈 앞에서는 그 어떤 협박도 무의미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급작스럽게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찰나, 영국인이 그를 앞질렀다. 영국인은 자신의 포로인 여자에게 몸을 날려, 권총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겨우 다섯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이댔다.

"움직이지 마, 뤼팽. 안 그러면 쏜다."

동시에 그의 두 동조자도 총을 꺼내 뤼팽을 겨눴다.

뤼팽은 몸을 굳혔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가슴을 적에게 드러낸 채 차갑게 다시 말했다.

"숌즈, 세 번째로 말하네. 이 여자를 내버려 둬…"

영국인이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손대면 안 되는 건가? 자, 자, 장난은 그만하자! 넌 발메라스란 이름도, 뤼팽이란 이름도 진짜가 아니지. 둘 다 훔친 거야. 샤르므라스란 이름도 그랬고. 그리고 네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그 여자는 바로 빅투아르, 네 오랜 공범이자 너를 키워낸 여자다."

숌즈는 실수를 저질렀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는 레이몽드를 바라보았다. 그 충격적인 폭로는 레이몽드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뤼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총을 쐈다.

"젠장!"

숌즈가 비명을 질렀다. 총알에 관통된 그의 팔이 몸 옆으로 축 늘어졌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외쳤다.

"너희들, 쏘라! 쏴!"

하지만 뤼팽은 이미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두 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오른쪽 남자는 부서진 가슴을 드러낸 채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다른 한 명은 턱이 산산조각 난 채 울타리에 기대 쓰러졌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빅투아르. 이들을 묶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다, 영국인."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굽혔다.

"아, 이 개자식…"

숌즈가 왼손으로 총을 집어 들고 조준하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다.

절규가 터졌다.

레이몽드가 두 남자 사이에 뛰어들어 영국인을 마주섰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목을 감싸 쥐었다.

몸을 일으키더니 빙글 돌아서, 뤼팽의 발치에 쓰러졌다.

"레이몽드! 레이몽드!"

그녀에게 달려든 뤼팽은 그녀를 품에 안아 꼭 껴안았다.

"죽었어."

순간, 모두 어쩔 줄 몰랐다. 숌즈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망연자실한 듯했다. 빅투아르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보트를레가 젊은 여자 쪽으로 다가가 몸을 굽혀 살폈다. 뤼팽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듯,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고통에 찌든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혀 몸을 떨며, 이유 없는 몸짓을 했다. 주먹을 쥐어 비틀며, 너무도 아픈 아이처럼 발을 굴렀다.

"이 비열한 놈!"

그가 갑자기 분노에 차 외쳤다.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숌즈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조르며, 굳은 손가락을 살갗 속으로 파고들게 했다.

영국인은 신음만 할 뿐,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빅투아르는 간절히 애원했다.

보트를레가 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뤼팽은 손을 놓았고, 땅에 쓰러진 적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다. 뤼팽이 레이몽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기 위해 이 위대한 모험가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잘 알고 있던 보트를레는, 이 비극적인 참혹함을 끝내 잊지 못했다.

밤이 내려앉아 전장을 그림자의 수의로 덮기 시작했다. 세 명의 영국인은 묶이고 입이 막힌 채 높은 풀밭에 누워 있었다. 노랫소리가 평야의 드넓은 침묵을 어루만졌다. 일터에서 돌아오는 뉴빌레트 마을 사람들이었다.

뤼팽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단조로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레이몽드와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던 그 행복한 농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녀를, 사랑 때문에 죽어 하얗게 변한 채 영원한 잠에 든 그 가엾은 연인을 바라보았다.

그사이 농부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뤼팽이 몸을 굽혔다. 그는 억센 팔로 시체를 붙잡아 단숨에 들어 올린 뒤, 허리를 깊이 숙여 그녀를 자신의 등에 짊어졌다.

"가자, 빅투아르."

"가요, 우리 아가."

"잘 있어, 보트를레."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소중하면서도 끔찍한 짐을 짊어진 채, 늙은 하녀를 뒤에 거느리고, 말없이 험악한 모습으로 바다 쪽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짙은 어둠 속으로 깊이 사라졌다.